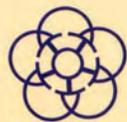


# 반월 23 2009

## 제23회 반월문화제

백일장 · 사생 · 서예 · 사진 · 좋은책읽기 독후감 입상작품집



포천문화원

▣ ‘반월’ 제23호 제자

서예가 志妍 金性姬

- 대한민국미술대전(국전)2회 입선
- 포천문화원 개관기념전 초대출품
- 아세아미술문화협회 추천작가



■ 표지설명 ■

제23회 반월문화제 대상 작품  
동남고등학교 1학년 이 세 은



# 문화비전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 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 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 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07년 10월 10일

## 포천문화원의 노래

김진웅 작사  
박진순 작곡

뾰뾰하고 너무 빠르지않게



1. 왕 - 방 산 정 기 받 - 아 한 빛으로 우 독 서
2. 한 - 내 천 구 비 구 - 비 이 - 어 온 역 사 를
3. 선 몸 들 의 맑 은 정 - 신 이 슬 처 럼 영 풍 현



꺼 저 가 는 민 족 춘 - 예 햇 빛 을 당 겨  
우 리 품 에 안 - 고 - 서 갈 고 닦 으 면  
여 - 기 는 우 리 고 - 장 충 절 의 터 전



슬 기 모 아 맘 을 리 니 새 싹 이 돋 네  
천 - 만 년 이 어 - 갈 열 매 맺 히 니  
남 기 신 뜻 진 리 되 어 갈 길 밝 히 니



어 찌 아 니 가 꾸 리 - 오 포 천 문 화 원  
영 - 세 에 빛 나 리 - 오 포 천 문 화 원  
그 - 뒤 를 이 으 리 - 오 포 천 문 화 원



# 내 고향의 상징



전체적으로는 산자수명한 자연을 주제로 하였으며, 통일조국의 중심지로 융성 발전하는 미래상과 환경친화적이며 전원적인 우리고장의 모습을 형상화하였음. 붉은 색의 태양은 진취적인 기상과 풍요한 미래를 향한 힘찬 전진을 의미한다. 녹색과 군청색은 푸른 산과 맑은 물을, 녹색에서 군청색으로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산과 물이 서로 어우러지는 쾌적한 포천의 모습을 나타낸다. 태극형상은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통일 조국의 중심지로 웅비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 우리고장의 새 **원앙새**

천연기념물 제 327호인 원앙은 1급수에만 서식하고, 포천 광릉계곡에 가장 많이 서식하는 오리과 물새로 '늘 함께 있는 의좋은 부부'를 비유하여 조류 학자도 적극 추천하고 있는 새이다.



## 우리고장의 꽃 **포천구절초**

국화과에 속하는 포천 구절초는 포천에서 처음 발견돼 명명된 포천 고유의 식물 (학명 : Chrysanthemum zawadskii Herb) 로 속명은 "포천가는입구절초"며 한탄강 주변과 운악산 등지에서 볼 수 있지만 자생지가 제한돼 있고 개체수가 많지 않아 자생지 보호와 보존이 필요하다.



## 우리고장의 나무 **소나무**

심장생의 하나로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푸른 모습을 간직해 곳곳한 절개와 의지를 나타내는 소나무이며, 또한 군내면 직두리에 있는 수령 약 300년의 소나무로 문화재청으로부터 2005년 6월 13일 천연기념물 제460호로 지정되었다.

## 포 천 시 민 헌 장

우리 포천시민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터전과 충·효의 정신을 바탕으로, 뜻과 힘을 모아 보다 살기좋은 내고장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다음 사항을 힘써 지켜 나간다.

1. 깨끗한 마음과 근면·성실한 생활로 행복한 가정을 이룩한다.
2.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명랑한 사회를 만든다.
3. 귀중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힘써 가꾸어 향토문화 발전에 노력한다.
4. 자랑스런 포천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내고장을 사랑하고 빛내는 데에 노력한다.

## 우리 고장의 연혁

포천시(抱川市)는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역사적으로 삼국 시대에는 변갈야 백제, 고구려, 신라의 세력권에 들어갔었으며 고려와 조선왕조 천년세월을 수도 서울의 울타리로써 중요한 역할을 맡아온 고장이다.

고구려 장수왕 63년(475)에 처음으로 마홀군(마홀馬忽郡)의 명칭과 명지(命旨)라는 별호를 쓰게 되었고 그 후 신라세력이 확장되던 진흥왕때(540~576) 견성군(堅城郡)이라 불렀다.

신라말 궁예가 철원에 도읍하고 국호를 태봉이라 칭하니 이 때에는 태봉 세력권에 들어갔고 이후 왕건이 고려를 세우니 우리 고장에는 궁예와 고려 태조 왕건에 얽힌 유적 및 일화가 많이 전해오고 있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 한후 태조23년(940)에 포주(抱州)로 부르다가 고려 6대 성종 14년(995) 십도제(十道制)를 채택하면서 처음으로 포천군(抱川郡)이라 부르게 되었다.

2003. 10. 19 도·농 복합시로 승격되었다.

# 2009 제23회 반월문화제

백일장 · 사생 · 서예 · 사진촬영대회 · 좋은책읽기 독후감 · 입상작품집

## Contents

■ 발간사	“반월”지 제23호 발간에 즈음하여	6
■ 축간사	창작활동의 저변확대의 장	8
	격조높은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문화제	10
■ 인사말씀	내일을 위한 “변화의 모색”을	12
■ 백일장		15
■ 사 생		63
■ 서 예		113
■ 사 진		137
■ 좋은책읽기 독후감		151
■ 심사평		181
■ 입상자 명단		189

## 발간사

# “반월”지 제23호 발간에 즈음하여



포천문화원장 이 만 구

반월문화제를 시작한지 어느덧 23개 성상이 흘렀습니다.

지난 4월 스물세 번째 반월문화제를 개최하고 입상한 우수 작품을 한데모아 한 권의 책으로 펴내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모든 정성과 창의력을 발휘하시어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반월문화제 행사에도 날씨 등 많은 염려를 하였습니다만 유치원 어린이에서부터 각 급 학교 학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하시어 대 성황을 이루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따라서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나 내용면에서 성장 발전해가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본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포천시장님, 시의회의장님,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하신 각 급 학교 교장 선생님과 지도교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4월 26일 본 행사에 이어 연계행사인 '향토사 바르게 알기 경시대회', '전국휘호대회', '전국한시백일장' 등을 준비하여 나름대로는 뜻 깊고 의욕적인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본 행사에도 백일장, 사생, 서예, 사진촬영 등 기·예능 경진 외에 좋은 글 써주기, 도자기공예, 한지공예, 그리고 전통 투호놀이, 연 만들기, 제기차기 등 열한가지의 문화체험마당을 준비하여 청소년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체험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은 매우 뜻 깊은 일이었으며 앞으로도 이는 계속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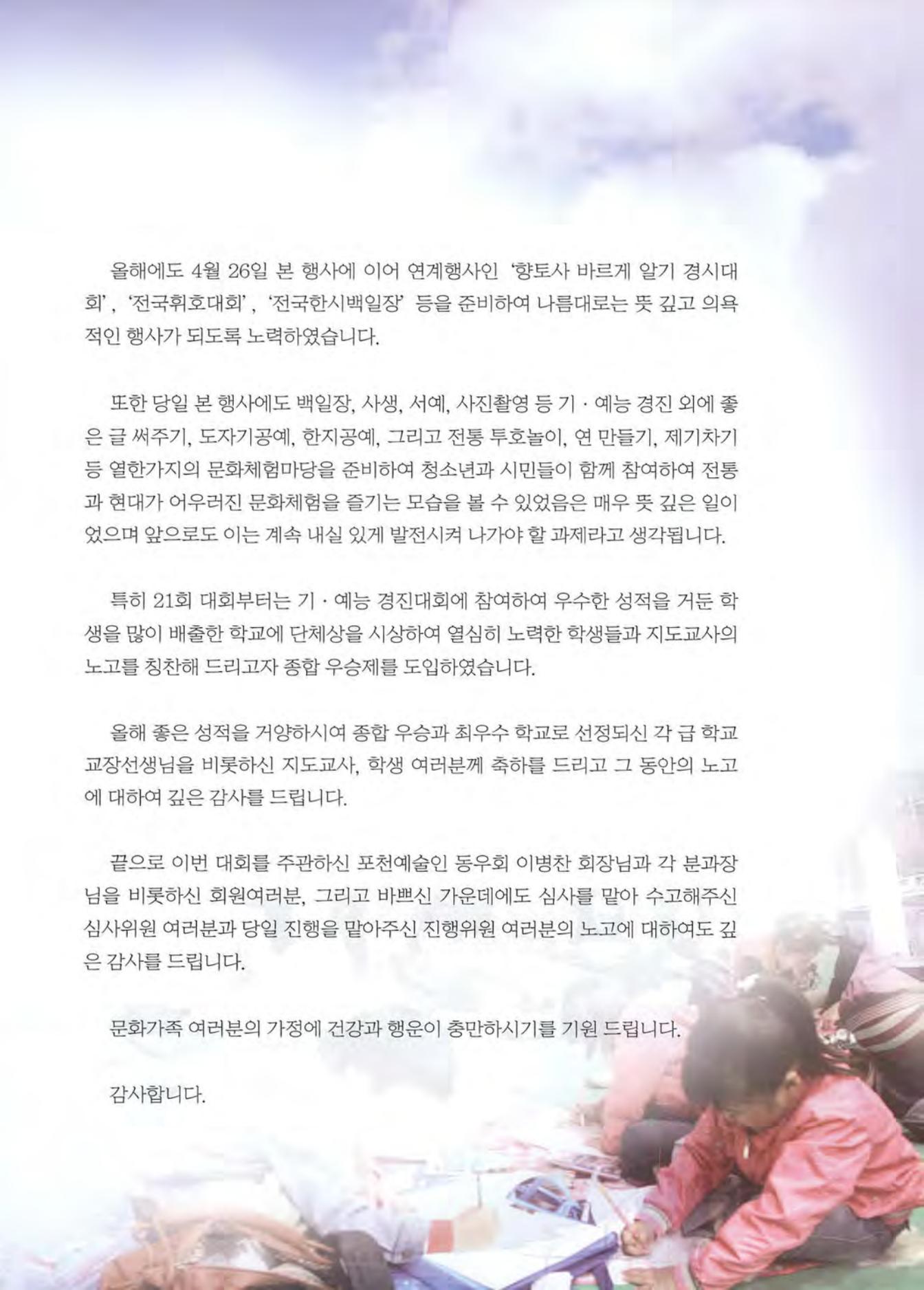
특히 21회 대회부터는 기·예능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을 많이 배출한 학교에 단체상을 시상하여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과 지도교사의 노고를 칭찬해 드리고자 종합 우승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올해 좋은 성적을 거양하시여 종합 우승과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신 각 급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신 지도교사, 학생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고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를 주관하신 포천예술인 동우회 이병찬 회장님과 각 분과장님을 비롯하신 회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심사를 맡아 수고해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과 당일 진행을 맡아주신 진행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축간사

# 창작활동의 저변확대의 장



포천·연천 국회의원 김 영 우

뜨거운 열기로 시원한 그늘이 생각나는 이 여름날, 포천 문화원에서『제23회 반월문화제』개최를 맞이하여 입상 작품집 발간을 축하드리며 아울러 입상자 여러분들께도 축하를 전합니다.

여러분,

포천문화원은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 창작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반월문화제를 개최하고 올해로 23회를 맞이했습니다. 해마다 포천시의 많은 학생들과 일반시민들이 참여해 백일장, 사진, 사생, 서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감없이 실력발휘를 해 주었고 올해는 175여점의 작품이 입상하였습니다. 또한 매 회를 거듭할수록 매우 우수하고 훌륭한 작품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또한 예술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욕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고 서로의 작품을 공유할 수 있는 작품집 발간은 직·간접적으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작품을 수록한 작품집 발간으로 우리 포천시를 나타내고, 더불어 우리 포천시가 내세울 수 있는 예술 작품집으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포천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포천문화원 이만구 원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입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격조높은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문화제



경기도포천교육청 교육장 오 정 순

제23회 반월문화제 수상 작품집 <반월>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문화는 그것을 공유하는 집단의 정체성과 그 구성원의 인격을 결정합니다. 한 나라, 한 고장의 주민들이 향유하는 문화의 양식이나 질에 따라 그 나라 또는 그 고장의 이미지가 형성되고 그 구성원들의 인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포천 문화원이 23회에 걸친 문화제를 열고 그 때마다 이처럼 훌륭한 수상 작품집을 발간하는 것은 포천의 자랑입니다.

반월문화제는 숨 가쁘게 전개되는 기계문명을 따라잡기에 심신이 피로한 시민들에게 글짓기, 사생, 서예, 사진 등 여러 가지 예체능 활동을 통하여 격조 높은 정신세계를 추구케 함으로써 자긍심과 행복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물질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물질은 행복의 필요조건일 뿐, 결코 충분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포천문화원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런 행사를 벌이는 뜻도 거기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입상자 여러분들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면서, 반월문화제가 회를 거듭할수록  
한층 빛나기를 바랍니다.

행사를 주관하시는 포천문화원 이만구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  
의 말씀 드립니다.



## 내일을 위한 “변화의 모색”을



포천예술인동우회 회장 이 병 찬

이십 삼년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십수년전 중·고등부에 참석했던 학생들 중에 특이한 이름과 뛰어난 재주 때문에 지금도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린아이를 손에 잡은 학부형으로 참가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반월문화제는 우리지역의 문화축제의 한 마당으로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자리를 굳건히 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없었는지 돌아보며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 이름뿐이 되어버린 예술인 동우회 주관이 아닌 가칭 반월문화제 준비 또는 주관 위원회가 구성되어야겠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젊은 회원의 보충이 어려워 노쇠단계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 구성되는 위원회는 한시백일장과 휘호대회를 지금의 반월문화제와 확실한 연계로 하여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 특정 소속인이기 때문에 대회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우리의 손실이 됩니다. 참가 작가의 손실과 대회의 질적 향상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

라고 봅니다.

넷째 : 많은 사람이 주말을 쉬지 못하고 행사에 봉사를 하였습니다. 해마다 특정한 몇몇이 행사마다 참여해야하고 봉사를 해야하는지 좀더 젊은 인력의 배움과 가르침이 함께 자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몇가지 생각을 적어보면서 작은 뿌듯함과 앞날의 환희를 눈에 그려봅니다.

그리고 식지않은 뜨거운 열정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관계 당국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며 더욱더 뜨거운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배는 부를수록 좋은 음식을 찾고, 옷은 걸칠수록 비단옷을 찾는다.”함은 사치와 멸망의 길로 나아감을 말하지만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들으며 바르게 말하며 바르게 움직임은 문화 예술이 지향하는 바이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이웃을 살피는 따뜻한 포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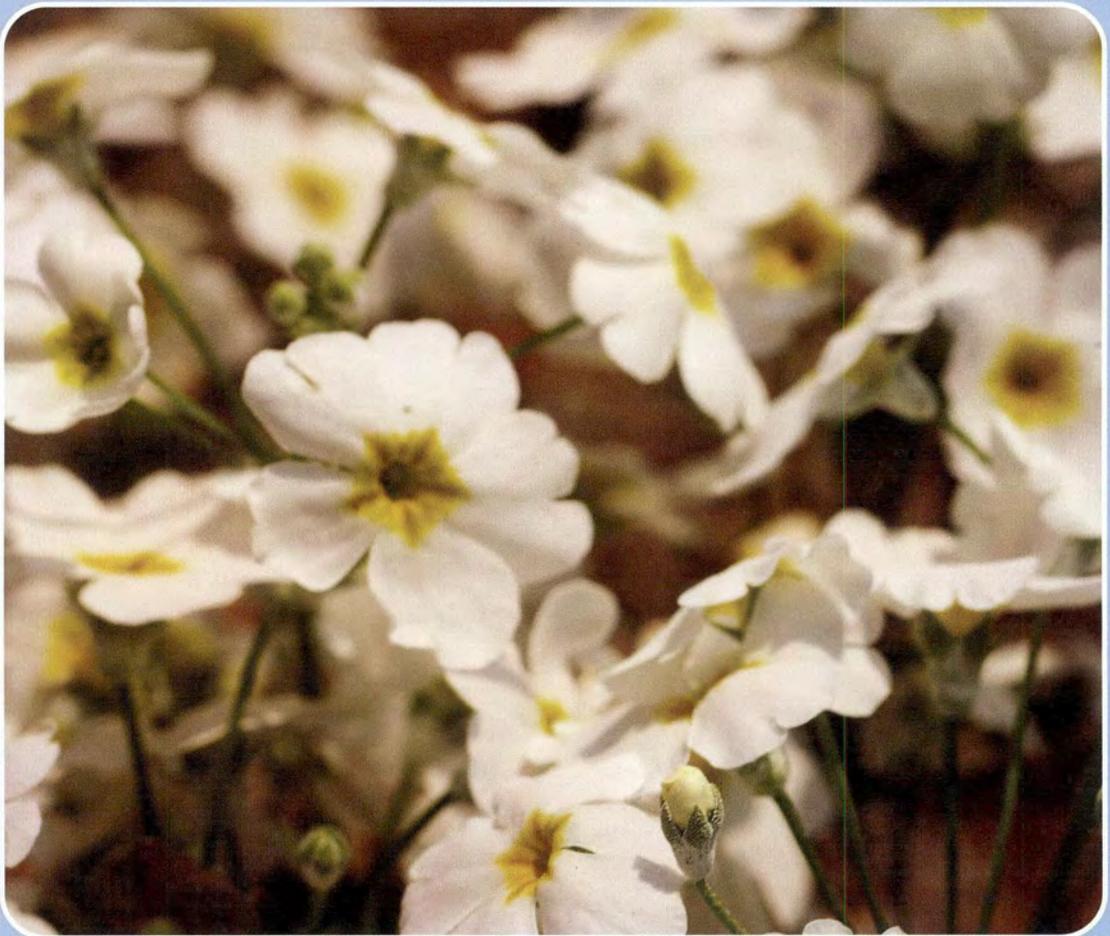






2009 제23회 반월문화제

# 백일장 익은 장 입상작품집



● 초등부 운문

장원	조민재	추산초등학교	6학년
차상	설수연	일동초등학교	3학년
차상	이연빈	추산초등학교	3학년
차하	강성은	추산초등학교	5학년
차하	정영은	포천초등학교	4학년
차하	김예림	일동초등학교	5학년

● 초등부 산문

장원	송정민	태봉초등학교	3학년
차상	김나영	신봉초등학교	4학년
차상	이아연	태봉초등학교	3학년
차하	정태경	포천초등학교	6학년
차하	김수빈	이곡초등학교	5학년

● 중등부 운문

장원	신승희	영중중학교	2학년
차상	박가영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차상	이소정	동남중학교	3학년
차하	최현아	포천여자중학교	2학년
차하	함지훈	포천중학교	3학년
차하	윤슬아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 중등부 산문

장원	엄혜민	포천여자중학교	1학년
차상	한금상	포천중학교	2학년
차상	손소원	대경중학교	1학년
차하	남지유	포천여자중학교	1학년
차하	최다원	포천여자중학교	2학년

● 고등부 운문

차하	김도희	동남고등학교	1학년
차하	이현주	동남고등학교	1학년

● 고등부 산문

장원	이혜영	송우고등학교	3학년
차상	오두송	동남고등학교	1학년
차하	최수정	포천일고등학교	3학년

● 일반부 운문

차하	김미현	포천시 신읍동
장려	최정현	포천시 소흘읍
입선	이진복	포천시 영중면

● 일반부 산문

차상	김영순	포천시 소흘읍
차하	한희영	포천시 소흘읍
장려	이혜정	포천시 소흘읍
입선	서선례	포천시 신읍동



## 봄 새싹



추산초등학교 6학년  
조민재

새싹아,  
겨우내 친구도 없이  
얼마나 쓸쓸했니  
여름엔 더위에 땀 흘리고  
겨울엔 추위에 부르르 떨고

새싹아,  
너는 나의 1년과 같구나  
여름이 되면 물장구 치고  
가을이 되면 골목길을 쏘다니고  
겨울이 되면 집에서 꼼짝 않고

또 하나 있지  
세상에 태어나 꼭 해야하는  
숙제가 있지

그것은 자손을 퍼뜨리는 일

새싹아,  
고난 겪고도 당당히  
적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장군의 모습

새싹아,  
용기를 잃지 말자  
우리에겐 희망이 있잖아  
땅속에서 자라는  
우리의 자손을 위해

차상

## 꽃의 향기



일동초등학교 3학년  
설수연

땅 속에서 꿈틀꿈틀  
움직이네요  
무엇이 움직일까요?  
새싹이지요.  
연두색깔 초록색깔 모두모아  
예쁜새싹

연두색깔 초록색깔이 모여서  
예쁜꽃이 만들어졌네요.  
봐도봐도 또 봐도 예쁜 꽃  
커다란 꽃 주머니 같네요.

꽃주머니에 들어가서  
숨고싶네요.



## 꽃의 향기



추산초등학교 3학년  
이연빈

꽃이 몰래 무얼 만들었을까?  
꽃의 향기를 만들었지.

꽃이 몰래 누굴 불렀을까?  
술술 바람을 불렀지.

꽃이 또 누굴 불렀을까?  
붕붕 꿀벌을 불렀지.

붕붕 꿀벌이 날아와  
꽃의 향기에 취해버렸지.

꽃이 준 꽃의 향기는  
바로 우리 엄마의 향기.



차하

## 봄과 아지랑이



추산초등학교 5학년  
강성은

차디찬 겨울이 끝나자  
분홍색 꽃들이  
하늘위로 솟아오르는  
봄 색종이 한 움큼

초록빛 새 생명이  
돌아나면  
하늘 위 별들의 흔적  
봄 한 움큼 위에  
조금씩 새겨진다

신기루 같은 봄 환상  
아지랑이 실들  
새 봄을 맞이하러  
자유롭게 날아오른다

새들도 별들도  
봄이 반가운 듯이  
윙윙 지지배배  
날아다닌다.



차하

## 꽃의 향기



포천초등학교 4학년  
정영은

음- 향기로운 꽃의 나라  
어느새 나는  
아름다운 꽃들의 잔치에  
초대받아 예쁜 드레스 차려 입고  
봄 들판을 달려요,

뽀족 가시 무서워  
만질 때 조심스러운  
붉은 장미꽃  
돌아가신 할머니 그리는  
우리아빠 닮아서  
카랑카랑 그리는 향기 풍겨요,

동그랗고 노란 해바라기꽃  
통통하고 둥근 엄마 닮아서  
달콤하고 푸근한  
맛난 향기 풍겨요

수줍고 부끄러운  
튤립 봉오리  
무뚝뚝한 우리 큰오빠 닮아서  
봉봉봉봉 향기없어요

높은산 바위틈에  
몰래 피어나는 에델바이스  
은근히 웃기는 작은오빠 닮아서  
도대체 어떤 향기날지  
궁금하기만 해

나는나는 무궁화  
우리나라 대표꽃이듯이  
우리가족 대표꽃  
예쁜 꽃송이  
언제나 나풀나풀  
멋진 향기 풍겨요

차하

## 숲속에서 하루를 보내며



일동초등학교 5학년  
김예림

숲속은 나의 놀이터  
키다리 나무 뱃 삼아 놓고  
장난꾸러기 바람을 따라가며  
신나게 노니다.

숲속은 나의 식량창고  
나무열매 따먹고  
맑은 샘물 마시며  
하루를 지냅니다.

숲속은 나의 세면실  
수정같이 맑은 물에  
세수를 하고 손을 씻으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숲속은 나의 방  
잔디가 침대되고  
낙옆이 이불되어  
곤히 잠듭니다.



## 그 친구의 휠체어



영중중학교 2학년  
신승희

삐그덕 삐그덕 휠체어가  
둥글게 굴러오던 소리

뒤돌아보니 등에 흰 분필로  
'바보'라고 그려놓은  
낙서가 보였다.

"안녕"  
하얗게 웃는 그 모습이  
둥글게 둥글게 휠체어 소리에 실려  
퍼져나간다

그 둥근 물결에  
어제와는 달리  
내 얼굴에도 둥근 미소가 퍼졌다.

삐걱거리던  
내 발걸음의 그림자가  
둥근 바퀴의 그림자와  
함께 걸어가던  
따스한 오후



차상

## 숲속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박가영

가족이란 숲속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오늘도 그렇게 자라고 있다

언제나 듩직하고 굳건한  
나의 나무 나의 아버지  
하루하루 떨어져 가는 잎이지만  
높은 곳에 서서 힘이 되어주는  
나의 나무 나의 아버지

언제나 상냥하고 한결같은  
나의 나무 나의 어머니  
견고하고 순결한 사랑의  
잎으로 나를 지켜주는  
나의 나무 나의 어머니

언제나 귀엽고 사랑스런  
나의 나무 나의 동생  
작고 여린 잎이라지만  
씩씩한 미소로 감싸주는  
나의 나무 나의 동생

한걸음 한걸음 다가갈 때마다  
행복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고 웃음을 배우며  
오늘도 그렇게 자라고 있다

가족이란 숲속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오늘도 그렇게 자라고 있다

차상

# 숲속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동남중학교 3학년  
이소정

맑은 계곡에서 흐르는  
아름다운 운율과  
온갖 새들의 청아한  
노래 소리가  
어우러지는 푸른 숲속

숲속에서 하루를 보내면  
세상의 모든 근심 사라지고  
넓은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가 된다

한줄기 햇살이  
사알짝 뿌려놓은  
금줄을 타고  
아지랑이가 넘실넘실  
피어오르는 푸른 숲속



차하

# 꽃의 향기



포천여자중학교 2학년  
최현아

시원한 바람과 함께 불어와  
내 코를 간지럽히는 꽃 향기에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두 볼이 분홍빛을 띄고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기분이 설레어  
향기로운 꽃 향기에 취해버리고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사랑 사랑 몸을 흔드네

팔랑 팔랑 날아오는 나비의 손짓에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같이 어울려 팔랑 팔랑 나도 같이 꽃을 향해 손짓하네

꽃 향기가 꽃 향기가  
나는 좋아서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 향기로운 꽃 향기를  
내 코에 담아두며 나비 같이 그 꽃에 취해버리지



## 우 정



포천중학교 3학년  
함지훈

나의 우정을 지키는 친구  
너는 나의 심장같은 친구  
너는 내가 더울 때 바람 같은 친구  
너는 내가 추울 때 온풍 같은 친구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같이 웃어 주는 즐거운 친구  
내 마음이 어두울 때  
마음 속 별이  
되어주는 친구  
너는 나의 영원한  
친구



차하

## 숲속에서 하루를 보내며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윤솔아

아무것도 없다.  
혼자 남겨진 이곳  
따스함을 포근함을  
느낄 수 없는  
감감한 어둠뿐  
차가운 소리뿐

조금만 더 나아가면  
조금만 더 견뎌내면

나의 방황 앞에  
들려오는 환한 소리  
비춰지는 한줄기 빛

이제 들려온다  
나를 향해 소리치는  
살랑살랑 불어오는  
소근소근 속삭이는  
푸르른 소리가

이제는 보인다  
나를 향한 미소와  
눈부시게 반짝이는  
활기차게 뛰어노는  
푸르른 모습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침이면 찾아오는  
따스한 햇빛을 위한  
따스한 소리를 위한  
내가 견뎌내야 할  
자그마한 어둠이었을 뿐

차하

## 꽃의 향기



동남고등학교 1학년  
김도희

“꽃내음”

시작을 알리는 따스한 봄의 기운  
그 속에 내리는 분홍빛 눈꽃  
온세상 만연한 그의 아름다움에  
차가운 순백의 눈꽃이 물러나고

따뜻한 꽃내음이 시작하는 오늘은  
따뜻함이 가득한 아이의 미소를 닮은 날  
봄을 가득히 채우는 그 미소에  
겨울의 마지막 차가움마저 녹아내리고

달콤한 꽃내음이 열어주는 내일은  
달콤함이 가득한 연인의 사랑을 닮은 날  
봄을 가득히 채우는 그 사랑에  
외로움과 눈물마저 모습을 감추고

봄의 향기에 취해  
꽃의 향기에 취해  
팬스레 기분이 좋아지는 날

봄내음이 꽃내음인 이유는  
그래서 인가 보다



차아

# 꽃의 향기



동남고등학교 1학년  
이현주

꽃의 향기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

봄의 기대를 품에 안은  
그것은 비로소 빛을 내고  
세상의 향기에 피어난다

세상의 향기는 어지러워서  
그렇지 못한 것들이  
꽃의 향기를 더럽히는 듯 하지만

그것은 너무도 아름다워서  
가지를 들어 보면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싱그러움과 따스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꽃의 향기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

꽃의 향기  
아 그것은 사람의 향기



## 꽃의 향기



포천시 신읍동  
김미현

향기가 있다는건  
그 속에 내 추억이 있는거다  
향기가 있다는건  
그 속에 내 모습이 있는거다  
향기가 있다는건  
그 꽃의 향기가 있다는건  
아득한 어느날에 내가슴속 설레임이  
그 안에 녹아있는거다



## 안 개 꽃



포천시 소흘읍  
최정현

향기 없어  
벌 나비도 유혹하지 못하지만  
장미 한 송이  
여왕처럼 받들 줄 알지.

창문 가  
물방울로 매달리기도 하고  
가지에서 그네를 타보기도 하지만  
지나가는 바람 뿐,  
날 것들이  
꽃을 찾는 봄날엔  
나도  
한 송이 꽃이 되고 싶다.

한데 어우러지자  
서로 뜨겁게 목을 끌어안자  
죽어서도  
별이 되어 빛날 것이고  
밤마다 조롱조롱  
사리로 맺힐 거니까.



입선

# 비 상



포천시 영중면  
이진복

스스로 옷을 벗어  
마음을 비울 줄 아는 겨울 숲  
봄은 허공으로 흐르는  
물줄기인가.

미끈한 몸매  
은빛 물관을 타고  
구름 호수로 이어지는  
은사시나무의 행렬.

돌아드는 여울목  
햇살을 잘게 부수어  
털어 낸 잎새 노래  
스스스

바람과 부딪치며 내는  
투명한 물소리  
솟구쳐 하늘을 잇는  
실 폭포의 향연.



## 자연은 나의 친구



태봉초등학교 3학년  
송정민

내가 다니는 태봉 초등학교 앞에는 태봉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낸 태봉산의 봄은 온갖 파릇파릇한 새싹들과 새순이 돋은 나무, 알록달록한 다양한 꽃들로 봄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가끔씩 보이는 다람쥐와 곤충들은 잔치에 흥이 났는지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학교 운동장에 있는 아이들의 함성 소리에 맞추어 벌이며 나비며 춤을 추느라 내가 온 줄도 모릅니다.

숲 속의 맑은 공기와 꽃 내음은 하루종일 지친 내 몸과 정신을 깨끗하게 해주는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주변의 모습을 살펴 보니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구석구석 눈에 들어옵니다.

아마도 등산객들이 버리고 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람쥐가 사람들을 보고 놀라 달아난 것 같습니다.

학교앞에 있는 태봉산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태봉산의 푸른 빛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있어주길 바라면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예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숲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기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기만 합니다.

이런 숲은 우리가 가꾸고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내린 태봉산의 모습은 물기가 촉촉히 젖은 살아 숨쉬는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면 그 푸른 빛은 더욱 더 빛날 것입니다.

따스한 봄날이 지나 무더운 여름이 와도 숲은 아름다운 잎들을 자랑하며 뽐낼 것이

고 끊임없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늘 밑에 땀을 닦으며 쉬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니 저절로 미소가 그려 집니다.

돌아오는 주말에는 가족들과 산에서 하루를 보내자고 제안 해야 겠습니다.

물론 맛있는 간식과 쓰레기 봉투도 잊지 않겠습니다.



차상

## 동물들과 하루를



신봉초등학교 4학년  
김나영

내가 숲속에서 하루를 보낸다면 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 음 제일 먼저 동물들과 함께 뛰어놀고 내가 포천에서 있었던 일을 재잘재잘 거리며 알려 주고 싶다. 또 운동기구가 있으면 그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고, 숲속에 있는 맑은 물을 동물들과 사이좋게 나눠 마실거다. 그럼 동물들과 더 가까워 지겠지?

그리고 숲속에 있는 열매들을 먹을 것이다. 물론 동물들과 함께 말이다. 또 자기전에 다람쥐와 함께 체험으로 도토리를 딸 거다. 그럼 참 재밌겠다.

또 토끼들은 집에서 가져 온 당근을 주고, 그럼 동물들이 좋아하겠지? 잠은 텐트를 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들과 잘 것이다. 한 3마리정도.

그리고 그 숲속에 공기가 맑아지라고 나무도 심어주고 갈 것이다. 가능하면 말이다. 또 예쁜 꽃, 나무, 동물들이 있으면 사진촬영을 해 친구, 가족 선생님들께 보여드릴 것이다. 내가 숲속에서 하루를 보냈다면 감짝 놀라겠지?

또 잠을 잘 때는 동화책 한권을 동물들에게 읽어줘야지 그럼 바로 졸려서 자겠지? 동물들이 자는 모습을 보다가 나도 흐뭇해서 자겠지?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동물친구들에게 아침인사를 한 뒤에 동물들과 오순도순 모여 앉아서 아침밥을 먹은 뒤에 동물친구들과 아침운동을 하고 숲속에 있는 물을 마신 뒤에 내가 일일선생님을 해준다. 3교시까지 있다.

1교시는 동화책 읽어주기. 2교시는 숲속 산책하기. 3교시는 재미있게 놀기이다. 그리고 노래 한가지를 알려 줄 것이다. 숲속과 관련된 노랜데 제목은 '숲속을 걸어요'다. 그런데 동물들이 과연 부를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친구들, 가족, 선생님을 소개해 줄 것이다. 그럼 동물들도 자기 가족을 소개해 주겠지? 그리고 내가 집에서 마술을 준비해서 마술을 보여줄 것이다. 그럼 눈을 동

그렇게 뜨고, 또 또 해달라고 하겠지?

또 내가 학교생활에 대해서 말해주면 기뻐하겠지? 그리고 내 비밀, 고민에 대해서 털어 놓으면 해결해 줄까? 아니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곰같은 동물들과 친해지면 동물들 집에 놀러 갈 것이다. 그리고 동물들 집은 어떻게 생겼나 무엇을 먹나? 그 많은 궁금증을 한번에 풀 것이다.

이제는 돌아갈 시간인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다음에 또 놀러올게 나 잊지마' 라고 말하고 떠난다. 모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숲속을 사랑하고, 아끼고, 동물들을 해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차상

## 꽃들의 향기



태봉초등학교 3학년  
이아연

꽃들에게는 각자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향기가 있다.

색깔과 모양이 예쁜 꽃은 자기에게 어울리는 향기로운 냄새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색깔과 모양을 가진 꽃은 겸손하고 은은하게 자기의 향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준다.

꽃들의 향기는 곤충들을 유혹해서 자기의 위치를 알리기도 해서 씨를 퍼뜨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냄새를 전달해 주는 아주 고마운 산소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나는 꽃에서 나는 냄새가 우리 엄마냄새와 똑같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꽃에서 향기가 나듯이 우리 엄마에게도 따뜻하고 향기로운 좋은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내가 열심히 공부할때는 따뜻한 냄새가 나고, 내가 할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울 때는 차갑고 화난 냄새가 난다. 하지만 나는 항상 포근하게 감싸주고 웃음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 엄마의 냄새가 너무 좋다.

엄마의 냄새는 내가 게으름을 피울 때도 금방 반성하게 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고, 공부하기 싫어서 투정을 부릴때도 꿈쩍 못하게 하는 힘을 가진 마법의 향기인 것 같다.

꽃들도 자기를 아름답게 바라 보는 사람에게는 좋은 향기를 풍겨주고, 자기를 꺾거나 함부로 다루는 사람에게는 나쁜 냄새를 풍겨주는 것 같다.

말을 못하고 표현을 할 수 없는 꽃들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생명을 가진 식물들이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꽃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쁘고 즐거운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또 향기로운 냄새는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준다. 그

래서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웃는 얼굴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꽃의 향기는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우리들을 달콤하고 신비스러운 연기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는 요술 향기이다.

이제부터는 나도 꽃들을 바라보는 자세를 조금 바꾸어야 될 것 같다.

꽃들을 자세히 보면서 그 꽃들이 뿜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웃으면서 바라보아야 겠다. 또 그 꽃들에게서 나오는 향기를 맡으면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다정하게 대해 주어야지 하는 생각을 내 마음속에 간직할 것이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부터는 아름다운 꽃들의 모습과 향기로운 향기를 느끼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아름다운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차하

## 그리운 로드리고에게



포천초등학교 6학년  
정태경

안녕 이곳 한국은 봄기운이 따뜻하게 올라오고 푸르고 높은 하늘이 아름다운 계절이야. 얼마전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하늘을 올려다 봤어 그런데 뭉게구름들이 마치 세계지도모양으로 둥실 떠 있더라. 그걸보면서 문득 널 떠올렸어.

로드리고 우리는 캐나다 밴쿠버의 맥닐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 모인 세계의 학생들에 끼어 처음 만났지. 우리는 너의 나라 멕시코도 아닌 그렇다고 내라인 한국도 아닌 캐나다에서 만났지. 나는 처음에 캐나다에 있는 학교로 영어를 배우러 왔을 때 환영밖에 없는 우리 반에서 오직 너만 백인이어서 신기해하며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나는 영어를 배우는 단계여서 어려워했는데 너는 나를 약간씩 도와주고 너랑 나랑 짝이 되면서 더욱 더 친해질 수 있었어. 너와 내가 그곳에서 4륜 오토바이도 타고 수영도 같이 가고 한국의 말을 가르쳐주던 추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나는 너와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백인과 금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피해가며 내가 알고있는 것을 물어봐도 그냥 모른다고 하며 지나갔어. 그리고 백인은 우리 한국인을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며 피하는 한국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로만 알았는데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에 놀러가고 싶다는 너의 말을 듣고 너에게 더욱 더 친근감을 느꼈고 외국인에 대한 예전에 가지고 있던 편견조차 사라졌어. 로드리고 너는 나에게 민족에 대한 편견까지 없애준 정말 소중한 친구야.

난 가끔씩 월드뉴스를 통해 멕시코 얘기가 나오거나 책을 읽을 때 멕시코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 더욱 열심히 보고 들곤 해. 널 그리워하며 지금 너의 나라는 어때?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고장 포천은 겨울이 지나고 산과 들에 새싹이 피고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있던 나무들도 이젠 조그마한 잎들이 가지마다 붙어있고 한국에서는 얼마전 벚꽃축제도 했을 만큼 봄풍경이 멋있고 네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라고 한 목련이 꽃망오리가

맏히고 이미 많이 퍼 있어. 그리고 로드리고 내일 4월 27일이 내 생일이야. 지금 네가 멕시코에 있어서 같이 우리집에 와서 내 생일을 축하해 줄 수는 없겠지만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만은 국경을 초월할 수 있잖아. 내 생일 마음만이라도 축하해줘.

로드리고 너도 기억나니 네가 나보다 10일 먼저 캐나다에서 멕시코로 가야해서 너는 학교 졸업식에도 못갔었잖아. 그리고 헤어질 때가 되어서야 자연스럽게 친한 친구처럼 쉽게 장난도 치며 놀았는데 헤어져야 했었다. 네가 헤어지는 날 마지막 소풍 때 20일 동안 나에게 배운 한국어여서 발음도 이상했지만 '안녕, 잘있어'라고 했을 때 난 친구들과 앞이라 꼭 참았지만 눈물이 나올 뻔 했었어. 문화도 언어도 틀리지만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던 그곳의 생활이 가끔 그립다.

로드리고

우린 글로벌시대에 살고 있으니 언젠가 또 만날 수 있겠지? 그때까지 우리 서로의 멋진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자. 약속하지? 건강하게 잘 있길 바래. 정말 보고싶다.



차하

## 꽃의 향기



이곡초등학교 5학년  
김수빈

푸르스름한 새벽 공기 속에 어둠 속 하나의 등잔같은 꽃망을. 보슬보슬 새벽의 봄비 한 줍 내린다. 투명한 빗방울 머금고 조심스레 꽃봉우리를 살며시 열어본다.

꽃내음이 나옴과 동시에 아두운 장막을 걷어낸다. 가벼운 봄 햇살과 투명한 바람 여러 가닥이 꽃내음을 고루 퍼뜨려 준다. 꽃은 그래도 성이 차지 않는지 다른 꽃들을 일으켜 현란한 아름다움을 뽐내본다. 모두 은은하지만 때론 그윽한 향기에 빠져 부럽다는듯이 모두 그를 우러러 본다. 그 은은한 향기는 바람에 몸을 싣고 나무를 스칠땐 나무를 춤추게 하고 동물들에게는 즐거움을 주고 식물들에게는 잎사귀를 간지럽게 하고 새들은 그를 샘을 내게 된다.

하지만 새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들은 향기를 자랑삼아 노래를 불러본다. 햇별은 푸른 쪽빛 하늘을 곱디 고운 주황빛으로 물들인다. 하지만 꽃에 향기의 대한 자만감은 사그라들지 않은 모양이다. 모두 그의 향기에 빠져 들어있으며 꽃은 자신의 자만심에 빠져있었다.

그때 태양이 말했다.

“이 향기는 너만이 이룬것도 아니고 완전한 너만의 것도 아니란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꽃은 자신의 자만심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꽃잎을 오므렸다. 내 일도 꽃은 다른 생물들에게 자만스럽지만 은은한 향기로 행복을 줄 것이다.

## 새학년 새로운 친구들



포천여자중학교 1학년  
엄혜민

나는 올해에 중학생이 되어서 처음으로 다른 학교에서 온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다. 그런데 입학하기 전날 불의한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기브스를 했고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을 사귀기는 커녕 가만히 앉아있어서 같은 학교에서 온 친구들만 나에게 말을 걸어주었다.

하지만 그 친구들조차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친구 사귀기에 바빠서 많이 찾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그 아이들마저 처음본 사람같이 느껴졌다.

첫 급식도 만만치 않게 힘들었다.

교실이 5층이었고, 내려가는 계단이 우리 교실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1층인 급식실까지 내려가는 것이 힘들었다.

그리고 급식 받을때 젓가락이 없어서 다시 가지러 가야했다.

그때 만난 친구가 바로 안지수이다. 내가 중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사귄 친구였다.

지수가 혼자있는 내 옆에 앉아주었고 젓가락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초창기에는 조용히 앉아만 있었으므로 내가 그리 조용하지 못한 성격이라는 것을 아는 아이는 아마 없었을 것이다.

반이 시험배치 자리로 되어있어서 번호대로 앉아 있었는데 자리를 정하고 나서 지수와 짝이 되었고 내 근처에 앉은 희주와 더욱 친해졌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희주도 다른 친구를 사귀느라 정신이 없어서 쉬는 시간에도 자리에 가만히 있는 날은 별로 없었다.

희주는 몇일만에 유진이와 친해진 것 같아 부러웠다.

어느 날 수정이가 내게 말을 걸어 주었다.

나는 말을 자주하지 않아서 목소리가 잠긴 상태였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는 되지 않았다.

나는 원래 말을 재미있게 할 줄 모르며 기분이 꼴꼴해서 표정이 어두운 탓도 있었다.

그리곤 내가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지 못한 것인데 수정이가 잘난척 한 것이 알미워서 말을 지루하게 하고, 말투가 국어책 처럼 딱딱하다며 뒷담을 하기도 했다.

지금은 친하게 지내므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잘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와 희주가 멍하게 앉아있는 날도 많았는데 그때 헤빈이가 찾아와 말을 걸었다.

헤빈이는 정말 말을 잘했다.

재치도 있었고, 정말 잘 웃는것 같았다. 얘기를 하다보니 나와 공통점이 많아 마음이 잘 통했다.

다리가 많이 나온듯 하자 다른 아이들 자리를 오고가며 놀았다.

다리가 아픈 동안 나 대신 청소를 해 준 다운이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수련회에 가서는 서먹했던 배드민턴부의 성희와 연우도 친해졌다.

수련회 두번째 밤에는 눈을 맞으며 캠프파이어를 했는데 잠바도 없던 나는 체육복만 입고 별벌 떨고 있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유지수가 '너 정말 춥겠다'라며 잠바를 벗어주었다.

나는 나보다 더 추워보이는 지수에게 미안해서 다시 돌려주었다.

그 뒤에 또 추위에 떨고있자 안지수가 잠바를 벗어주었다.

지수에게도 미안해서 돌려주고 최대한 몸을 움직여 땀을 내 보려고 했다.

하지만 내 몸으로 떨어지는 눈들이 녹지 않고 그대로 굳어서 우박같아지자 체온만 내려갔다. 그렇게 겨우겨우 캠프파이어를 마치고 숙소에 가려니 막막했다.

그때 내가 너무 추워보였는지 희주가 잠바를 벗어주었다.

희주도 숙소까지 갈 때 많이 추울텐데...

이 셋에게 매우 고마웠다.

덕분에 조금이나마 따뜻할 수 있었다. 다시 학교생활로 돌아와서 평안한 생활을 계속했다.

영재반에도 들어갔는데 몇일만 다니고 끊어버렸다. 영재반을 하느라 꿈인 아나운서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방송부를 못하게 된 것이다.

영재반을 그만 뒤 버려서 친해졌던 아이들과 서먹해진 것은 아쉬웠다.

그러던 어느 날 급식실에서 식혜를 먹으려다 옷에 묻었는데 지수에게 잠시 가지고 있으라고 했더니 검지와 엄지손가락으로만 잡으며 걸레취급을 하길래 기분이 상했다.

또, 자신도 많이 잤으면서 내가 졸았다고 선생님께 고자질을 해서 나만 혼란적도 있었다.

많이 화났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렇게 화낼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 일로 지수에게 화를 많이 냈었는데, 미안해졌다.

이렇게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고 해결하며 평안한 학교생활을 했다.

“얘들아!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차상

# 믿음



포천중학교 2학년  
한 금 상

믿어줄게. 언제나 너의 말을 절대 의심하지 않을게.  
귀 기울일게. 너의 입장에도 서서 생각하고 이해할게.  
사소한 말다툼, 서로에게 상처주는 말.

그래도 이렇게 다들 사람이 있다는 것도. 서로를 믿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

친구.

나의 생각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

때로는 선의의 경쟁자가 되어 서로를 자극시켜 줄 수 있는 사람, 힘들 때 용기를 북돋아 주며 눈물을 아끼지 않고 슬플 때도 같이 흘려줄 수 있는 사람, 너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 그런 사람으로 추억되고 싶다. 아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노력해도 되지는 않아. 때로는 네가 나에게 비판을 해준다면 훨씬 빠르게 나에게 자신을 가지고 네곁에 필요한 사람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거 같다.

사람은 만나면 헤어질 때도 있어. 아니, 어쩌면 그 헤어짐 속에 만남이 있는 것이지. 만약 너와 작별하고 네 기억 저편으로 가버린다면 조금은 섭섭해질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본다면 네 손끝 그 향기에만 길들여진 내가 되기 보다는 너를 추억하며 다른 친구를 만나는 것 또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작별을 하지 않을 때까지 아니, 작별을 해도 지금처럼 서로를 생각하며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

난 너를 믿는다.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조금 더 나날이 발전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자.

차상

## 꽃의 향기



대경중학교 1학년  
손소원

벌써 만물의 생명이 태어나는 봄이 왔다. 산에는形形色색의 꽃이 피어나며 그 꽃들은 온 산을 메운다. 또한 봄이되면 생활의 휴식 한 조각을 선사해주는 꽃의 향기들도 만발하다. 이러한 꽃들을 바라보고 꽃의 내음을 맡고 있노라면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생활의 여유가 생겨난다.

봄은 이처럼 아름답다. 하지만 거리와 도심속에는 봄의 향기, 꽃의 향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매연과 냉정함뿐만 존재하고 있다.

여유 또한 잃어버렸다. 꽃의 향기를 맡고 있노라면 생기던 여유조차 사라져 버렸다.

봄의 향기, 그 꽃의 향기의 한 조각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아름드리 꽃이 만발한 곳에서 그 향기를 맡고 있노라면 머릿속은 어느 덧 비워져 버리고 그 대신에 봄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가득 메워버리고, 여유라는 단어가 생긴다. 사람들은 그 달콤한 내음을 잊어 버렸다. 더 이상 머릿속에는 봄과 꽃의 향기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진달래, 개나리, 이름모를 꽃들이 만들어 내던 그 오묘한 내음을 잊어 버렸다.

그 꽃의 향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꽃의 향기를 찾아서 오늘도 떠나고 있다. 어디에 선가 있을 그 오묘하고 영롱한 향기를 찾으려 말이다.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그 달달한 향기를 세상을 메워주던 사람들에게 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주던 그 향기를 찾아서 떠난다. 향기는 매연속에서 사라져 버리면 사람들의 기억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 속으로 사라져 버리면 사람들에게 여유와 봄이라는 두 단어가 생겨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꽃의 향기를 찾아서 꽃의 향기가 새어 나오는 곳으로 일탈하는 것이 어떨까?

차하

## 영원한 친구



포천여자중학교 1학년  
남지유

나는 내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쓰려니까 부끄럽기도 하지만 평소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말들을 지금 다 털어 놓으려고 한다.

나는 처음에 의정부에 살았었다. 그러다가 5학년이 끝날 무렵, 집을 포천으로 이사 하면서 학교도 이곳, 포천의 왕방초등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었다.

5학년이 다 끝날 시기여서 나는 친구도 한명 사귀지 못한 채 6학년이 되었고, 6학년 때 이 친구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이다.

친구야!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기억해? 난 첫 날부터 반을 못 찾아 지각을 해서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네가 먼저 말을 걸어 주었잖아. 그 순간 얼마나 기쁘던지. 이 첫 날을 계기로 우린 점점 친해졌고 이렇게 지금 단짝이 된거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네가 나한테 준 만큼 난 너에게 해준것도 없는것 같아. 친구란 마음으로 통하는 거지만 내가 너에게 너무 초라한 친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미안한 마음도 들어. 또 이런 나를 곁에서 묵묵히 지켜준 네가 한없이 고마워. 그리고 내가 걸으론 별로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전학 와서 처음 생긴 단짝이란 존재가 내겐 얼마나 특별했는지 몰라. 어딜가든 함께하고 같은 일로 까르르 웃고 같은 일로 슬퍼하고 이런 사소한 것들이 나한테는 가슴까지 벅찼던거야.

또, '우정이란 것은 두 사람의 신체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라고 '아킬레토스' 라는 사람이 말했대. 우리는 비록 무려 12년 동안이나 각자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이렇게 한 곳에서 만났잖아. 마치 하나의 영혼처럼 우린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곳을 향해 함께 가고 있는거야. 그리고 내가 언젠가 인생에 있어 진정한 친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의 일생을 반박에 못 산 셈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그런데 나는 너라는 진정한 친구를 가지고 있잖아. 이것에 대해 난 너무 감사해. 진정한

친구를 가져서 감사하고, 그 진정한 친구가 너라서 더 감사하다구.

그런데 우리도 언젠간 우정이라는 끈이 느슨해 지면서 고난이 찾아 올 때도 있겠지. 그럴 때마다 우정은 느리게 자라는 나무와 같다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이겨내자. 힘들때는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주면서 그렇게 그렇게 이겨내자.

또, 난 네가 새벽4시에 전화해도 흔쾌히 받아주는 친구,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켜올 때 귓속말로 조용히 알려주는 친구, 썰렁한 농담에도 배꼽잡고 웃어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되어줄께. 친구가 슬퍼할 때 자신의 눈에 물파스를 발라서라도 같이 펄펄 울어주고 싶고, 내 친구가 시무룩해 있으면 어릿광대 뼈에로 분장을 해서라도 친구의 웃음을 보며 행복해 하는게 친구의 마음이니까.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친구를 위해주는게 친구의 마음이니까.

넌 내 마음 알지? 우리 훌륭한 사람이 되서 멋진 남편을 만나고 귀여운 아기를 낳고 쭉글쭉글 할머니가 될 때까지우정이라는 끈 놓지 말자.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건 너와 함께여서 일거야. 내가 너에 대한 이런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너는 너의 집에서 무얼하고 있을까? 짐작해보다 문득 손거울을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입은 살며시 미소 짓고 있구나. 널 만난건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야.

사랑해 친구야.



차하

## 꽃의 향기



포천여자중학교 2학년  
최다원

절대 녹지 않을 것 같던 대지가 봄의 따뜻한 햇살에 사르르 녹아 이젠 싹이 트기 시작했다. 덕분에 내 몸도 도로 위에 아지랑이 처럼 축 늘어지고 바닷 속 미역처럼 흔들거린다. 이렇게 봄의 햇살에 나른해져 낮잠을 자고 있는 나에게 엄마는 “산에 가자!”라며 쳐진 내 어깨를 툭툭 치셨다. 엄마는 무척 들뜨신 모양이셨다. 수건을 양 손으로 꼭 쥐시곤 이리저리 몸을 풀고 계셨으니 이대로 라면 정상까지 한 걸음에 간다해도 문제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나른한 몸을 일으키기가 힘들었다. 봄의 산은 화려하고 호화스럽긴 하지만 눈으로만 느끼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등산이라면 더더욱 싫었다. 하지만 엄마는 막무가내로 내 손을 이끌어 반월산 입구까지 데려오셨다. 축 늘어져있던 내 눈이 순간 번뜩하고 커졌다. 입구부터 날 반겨주는 샛보란 철쭉들과 아기의 터질것 같은 볼을 연상케하는 연분홍 빛나무의 향기가 단번에 내 눈과 코를 사로잡았기 때문이었다. 산행을 하는 내내 눈이 시큰거렸다. 만발한 꽃들이 봄의 햇살을 받아 시릴 정도로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쉽 없이 걸었으니 아파야 할 발은 아프지도 않고 눈이 아팠다. 문득, 이 순간의 모든 오감들을 저장해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황홀할 정도로 아련한 봄 꽃들의 형상들과 간간히 들려오는 종달새소리…. 코 끝에 내려앉은 봄이라는 향기가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다. 좋았던 순간은 머릿 속에서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고. 이 기억들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아! 산에 안왔으면 큰일났을 뻔 했구나! 나즈막하게 탄성을 내뿜었다. 그리곤 좀 더 걸으니 포장도로가 나왔다. 이런 자연 속에선 정말 어울리지 않는 광경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도로에서 누엎히게 흔들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저것이 바로 아지랑이구나! 조용히 그 여린 몸짓을 흔들고 있는 모양이 마치, 완전한 봄을 바라는 모든 생명들의 몸부림과도 같아보였다. 오늘로써 난 비로소 느꼈다. 봄은 모든 오감들이 깨어나는 계절이라는 것을…

## 당신이 떠나간 그 자리



승우고등학교 3학년  
이해영

작년 3월 꽃피는 계절 그날에는 당신과 함께 거닐며 예쁘게 피어난 꽃들을 보러 다녔지. 지금도 여전히 꽃은 피었지만 그때의 그토록 아름답기만 하던 그 꽃들이 전혀 반갑지 않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관심조차 없어졌어. 난 여전히 그대로 변한 것 하나도 없는데 당신과 나의 관계엔 큰 변화가 생겼네. 난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당신은 날 떠나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며칠 전만해도 괜찮았는데. 개나리, 진달래, 유채꽃 특히 당신이 어린 아이처럼 좋아했던 벚꽃이 한창 피어나니까 당신 생각이 더 많이 생각나. 기억할 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같이갔던 봄 소풍에서 당신이 나에게 했던 말이 떠오르네.

“꽃은 저마다의 향기를 갖고 있어서 제 각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대. 그러나 모든 꽃의 향기가 다 향기로울 수 없어서 제일 먼저 지는 꽃이 꽃들 사이의 경쟁에서 진거래.”라고 내게 신이 난 얼굴로 말하던 모습이 얼마나 귀엽던지….

사랑한단 말을 자주하지 않았던 것에 매번 불만을 품었었던 당신에게 난 정이 무섭다고 말했었어. 근데 그렇게 하길 잘했던거 같애. 안그랬으면 당신을 절대 보낼 수 없었겠지. 당신이 떠나간 그 자리에서 난 여전히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고 우리의 추억이 되어버린 그 장소엔 봄이 찾아와 향기롭고 예쁜 꽃들의 경쟁으로 시끄러워.

아참! 당신은 잘지내? 그 곳에서의 생활은 힘들거나 외롭진 않아? 아직도 난 당신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

당신이 보았다면 바보같다 욕했겠다. 걱정하지만 이젠 당신을 편히 보내기로 했으니까 당신이 내게 항상 죽게되면 벚꽃이 되어 다시 태어나겠다던 그 약속 믿고 길가에 피어있는 벚꽃에겐 당신이 좋아했던 눈길로 눈인사하고 말거야. 당신과 같이 보았던 예쁜 꽃들도 당신이 설명해 주던 꽃의 향기도 두번 다시 당신과 같이 볼 순 없지만 당신이 떠난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향기로운 벚꽃이 기승을 부리며 우리 둘의 추억을 잊지 말라는 듯 피어나고 있어. 은은한 자신만의 꽃의 향기를 품고서…

차상

## 봄과 아지랑이



동남고등학교 1학년  
오두송

봄입니다.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그런 봄. 다 늦은 저녁에 축 늘어진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 가득한 얼굴로 엄마가 들어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고 엄마 표정으로 보아 할아버지 병세가 악화되신 것 같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불도 켜지 않은 채 엄마는 베갯잇을 눈물로 적시고 계셨습니다.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갈까 입을 막으시면서.

통통부는 눈으로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두송아, 내일아침 일찍 병원에 가봐. 할아버지가 널 찾으시더라.”

“네.”

책상 위에 가만히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동네 철물점에서 두껍고 커다란 스티로폼을 한장 들고 오시면서 ‘쓱쓱, 싹싹’ 자로 재고 톱으로 자르고 테이프로 붙여서 할아버지의 스쿠터 앞에 작은 의자를 하나 만들어 놓으십니다.

“두송아~ 두송아~ 이놈이 어디갔나?”

다섯살 두송이는 큰 소리로 대답하며 할아버지께 달려갑니다.

“한바퀴 돌자.”

할아버지 스쿠터에 올라타서 내 전용의자에 앉아 동네 한바퀴를 돌니다.

동네 저수지 근처 가갯방에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주면 더욱 신난 두송이는 우쭐대며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포천에서 장이 열리면 할아버지께서는 꼭 저를 위해 과자나 사탕을 사다주셨습니다. 동네 어귀까지 나가서 할아버지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며 오늘은 무엇을 사올까 생각해 봅니다.

엄마 아빠가 어려웠던 시절 할아버지네 집앞에 조립식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7년을 살았었기에 다른 외손자들 보다도 저에 대한 사랑이 무척 강하셨던 할아버지. 어느날인가 가족들과 함께 이모 할머니네 집에 놀러갔는데 동네 다리 옆 큰 웅덩이에 발을 헛디뎈 제가 빠졌습니다. 엄마 아빠는 너무도 순간적이고 놀란 마음에 “아~”하고 소리만 지르고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웅덩이로 뛰어 들어가 저를 안고 구해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웃이 다 젖었고 놀란 저는 그냥 마구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저를 가만히 안아 주셨습니다. 그 웅덩이는 생각보다 깊었고 잘못하면 큰 일이 날수도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당신의 안전은 뒤로하고 손자인 저를 구하기 위해 몸을 날리셨던 겁니다.

눈을 떠보니 책상앞에서 그냥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병원으로 가는 버스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기사 아저씨가 무슨 일인가 자꾸 거울로 쳐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입원실 문을 여는데 갑자기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목이 콧 메여 오면서 숨을 쉴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말자 이를 악물고 할아버지앞에 다가섰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을 만큼 마르신 할아버지. 절 알아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아드립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목이 메어 더이상 아무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모, 할머니 모두가 울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우리의 곁을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다섯살인 두송이는 할아버지 스쿠터에 올라타서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놈아 너 커서 돈 벌면 할애비 맛있는거 사줄꺼?”

“네 할아버지-”

이제 열일곱이 된 두송이는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킬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할아버지의 웃는 모습이 너무도 보고 싶습니다.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내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차하

##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



포천일고 3학년  
최수정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어느덧 우리는 그 긴 시간을 훌쩍 뛰어넘었네.

코 흘리던 옛날의 너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나의 코흘리개 시절이 너와 함께였다는 건 큰 행복이자 위안이야.

사실 우리는 공통점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통했고, 늘 마음을 나눴지. 유난히 힘든 일이 많았던 나에게 넌 언제나 봄바람이었어.

있는 듯 없는 듯 다가와 나의 상처입은 마음을 따뜻한 말로 쓰다듬고 안아주었지. 부모님의 이혼에 남몰래 울 때도, 내가 나쁜 길에 빠질 때도.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할 때도 넌 가족보다 먼저 내 옆에 서있었어.

그런 너에게 난 그저 부족한 친구였어. 고집이 세어 너의 이야기는 잘 들으려 하지 않았고, 특하면 화가 나 먼저 소리치기 일쑤였지.

난 착하기만 한 너보다 세상을 좀 더 아는 내가 너의 위라고 생각했어.

근데 알고보니 넌 늘 나의 위에 있더라. 나보다 먼저 더 나를 알았고, 나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 언젠가 내가 고등학교 친구때문에 힘들어 할 때 넌 나에게 말했다.

“걔 너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 나의 이 이상한 성격도 철없는 장난도 모두 마음으로 알아주는 건 너뿐이더라.

가만히 생각해. 네가 나의 친구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또 그래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예전부터 지금까지 옛날 어느 날에 시간이 멈춘 듯 철없고 장난기 많은 나지만 너에겐 언제나 든든하고 씩씩한 너의 애칭 ‘바보’ 그대로 남고 싶어.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도 함께 하자는 우리의 약속처럼 지금 우리가 맞잡은 이 손, 끝까지 놓지 말자. 네가 있어서 너무 고맙고 행복해. 부끄럽지만 널 아주 많이 사랑해. 내 친구야.

차상

##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



포천시 소흘읍  
김영순

초등학교 6학년

내 인생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인생의 길을 알려준 사람이 내게 있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왜 그렇게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느꼈었는지. 비뚤어진 인생관, 잘못된 세상으로의 편견,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관심과 사랑을 그 사람은 내게 주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엔 옷 잘 입고 엄마가 학교에 잘 찾아오는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꼭 반장, 부반장을 하는 거였다. 이유는 없었다. 그 아이는 빨간 구두 신을 때 다른 친구들은 검정 고무신 신었을 뿐이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난 혼혈인처럼 보였던 거다. 검은 피부에 커다란 눈, 숱많은 검은머리, 공부도 곧잘했고 운동도, 그림도 뭐든 남들보단 잘 했던 것 같다. 내 느낌은 그랬다. 그러나 항상 구두신은 친구가 1등이 되었고 잘해야 나는 입선 아니면 낙선이었다.

당연한 거라 생각했다. 난 구두를 신지 않았고 학창시절 졸업식 빼곤 학교에 한번도 부모님이 오신적이 없었으니까.

6학년때 담임을 맡으신 선생님께서 내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였다.

“넌 특별하다. 넌 뭐든지 할 수 있다.”

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다. 그때부터 난 공부잘하는 아이로 줄곧 불리어졌으니까.

선생님께 잘 보이려고도 선생님께 날 알아달라고도 아닌 누군가 내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행복했으니까.

중·고등학교를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서 한번쯤은 선생님을 만나봐야지 했지만 지금의 내 위치가 너무 초라해 선생님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 늦은 공부를 시작했

고 운 좋게 의정부의 한 대학에 강의를 나가게 되었다.

선생님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고 인터넷이며 교육청이며 수소문 끝에 선생님께서 인천국제고등학교 초대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는걸 알았다.

바로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저 선단초등학교에 다녔던 김영순인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 영순이, 그럼 알지!”

20년을 훌쩍 넘은 때묵은 대화는 전선을 타고 근 1시간을 오고갔다.

선생님께서서는 같은 교육의 길을 걷고 있는 나에게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다.

초등학교 6학년때 외톨이인 나를 선생님께서는 친구처럼 다정하게 지켜봐 주셨고 지금의 나를 이미 알고 계셨다. 전화기 너머에 선생님의 말씀이 들렸다.

“영순아 넌 내 친구잖아. 몰랐니?”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해 친구”



차하

## 꽃의 향기



포천시 소흘읍  
한희영

4월 5일, 한식차례로 충청도 청양에 다녀왔다.

마당가에 서서 허물어져 가는 기와집을 보고 있노라니 마음이 착잡했다.

빗장을 걸어 잠그는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 시부모님이 쓰시던 안채와 내가 쓰던 아랫채 사이 안마당 한켠에 여름이면 채송화가 피고 봄에는 수선화가 피고, 겨울이면 눈 쓸어낼 걱정에 마당 넓은 탓을 했었다.

“어머님, 세숫비누 떨어졌는데요!”

하면 대답대신 안방에 금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껴서 써라. 조자룡이 흰칼 쓰듯하지 말고…” 하셨었다. 헌데 그 비누는 실망 덩어리 그 자체였다.

삼국지 속에 조자룡이까지 들먹이며 주신 금고 속에서 나온 비누치고는 너무나 초라했다. 노란색 금박지를 뜯어내면 계란 노른자를 뭉쳐 놓은 듯, 비린내를 풍기던…

신혼시절 병아리 새댁 열다섯해가 숨어 있는 오랜 기억들이 서성거렸다.

장독대가 있는 뒷뜰에는 계단식으로 쌓아 정원을 꾸몄고 라일락향기가 온 동네를 휘감고 가면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앵두나무에 매달렸었다.

옆집에 손님으로 온 아이와 소꿉놀이에 빠져 오지 않는 아이를 데리러 간 나는 당황했었다.

“나는 돈까스 먹으러 갈꺼다!”

옆집 손님으로 온 아이는 남자아이 였는데도 곱슬곱슬한 파마 머리에 피부가 하얀, 한눈에 보아도 서울 아이였다.

햇볕에 그을려 늘 밖에서 개구쟁이 노릇만 한 여섯살 아들녀석이

“우리는 엄마가 전화하면 까스 갖고 오는데…”

서울아이가 배를 움켜쥐고 웃어대자 아들녀석이 내 손을 잡고 우리집 쪽으로 잡아 끌었다.

“돈까스? 그거 돼지고기로 만든 것인데 엄마가 만들어 줄게.”했더니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지금은 군대를 다녀와 대학을 졸업한 어른이 되었고 어릴때부터 인스턴트 음식을 멀리 해서인지 간식거리로도 즐기지 않는다.

오래전 그 곳에서 살 때는 솔향기인지 꽃내음인지 모르고 지냈었다.

여학교 시절에 문학반 수업을 끝낼쯤에 선생님께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곤 했었다.

“낙엽타는 향기가 그윽하지, 안그러 한가 제군들!” 우리는 이맛살을 찌프리며 연기의 반대 방향에 서성였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낙엽타는 향기도 그윽한 것을...

종가집 장손 외며느리를 위해 알뜰함과 검소함을 보이셨던 시어머니 속 깊으신 뜻처럼, 오래된 고향집에서는 담장아래 핀 수선화처럼 정겨운 추억에 향기가 느껴진다.



##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 - 그 냇가에서 -

포천시 소흘읍  
이혜정

옥수수는 하얗고 검게 이를 들어내 웃고 툇마루 옆 덕구는 하품만 하더니 이네 즐고 있는데 문 밖의 친구들 덤지도 않은지 벌써부터 와 나오라고 소리 지른다. 기달려, 나 밥 먹고 나간다.

밥이라야 반찬없이 열무김치에 말아먹어도 두그릇 후딱 헤치울 나이였기에 입안에 열무김치 잔뜩, 마지막 손갈질을 하고는 설거지 하라는 어머니의 말을 뒷전으로 한 체 세숫대야에 빨래 한 가득 넣고 즐행랑을 친다. 토요일 오후가 되면 약속이라도 한 것 처럼 동네 아이들은 냇가로 모여 실내화며 가방, 교복 모두 갖고 나와 빨래를 경쟁 하듯이 하곤 했었다. 바위에 가지런히 실내화 널어 놓고 교복은 바람에 날리지 않게 돌맹이를 엮어 놓고는 흰 종아리살 들어내고 냇가에 발을 담근다. 냇가에 송사리때는 노래하듯 즐을 지어 다니고 동무들은 바윗돌 뒤집어 달팽이를 잡는다.

이상스럽게도 친구는 달팽이가 사는 곳을 잘 안다. 바윗돌만 뒤집으면 달팽이가 다 닥다닥 붙어있었다. 그래서 친구는 달팽이 소녀라고도 불렀다.

어느 새 날은 저물어 해가 지면 종알되던 수다를 냇가에 남겨둔 채 집으로 향한다. 종일 붉은 태양을 어찌나 받았는지 담벼락 밑 채송화와 민들레, 해바라기 모두 고개숙여 날 반기고 있다. 반가움을 모른 척 할 수 없어 빨래에 지친 어깨로 우물가에 가 새로 장만한 펌프 옆에 물 한 가득 집어놓고 펌프질을 한다. 다라에 물 한 가득 넘치게 받고는 날 기다려준 꽃들에게 한바가지 물로 답례한다. 즐고 있던 덕구도 달려와 우물가에 혀를 널름거리고 눈을 감고 있던 씨암닭도 물 한모금 먹고 하늘보고 물 한모금 먹고 하늘 보고 인사한다. 그렇게 하루 해가 저물고 아버지는 모기 퇴치 하시려고 잘 말려 놓은 속을 피워놓고 이열치열 이라시며 뜨겁게 끓인 칼국수를 대청마루에 앉아 먹으면 여름 한 철은 거뜬하다.

저녁식사가 끝나면 친구들은 또 한번 모인다. 냇가에 목욕을 가는데 우린 장난끼가 발동하여 후레쉬를 저만치 비춰대면 여기저기 흰살 드러내 목욕하던 아줌마들 난리가 난다. 반딧불도 후레쉬를 경쟁하듯 힘껏 빛을 내고 하늘엔 별들이 쏟아져 내릴 것만 같다. 그렇게 한차례 소동이 끝나면 냇가도 평온 속에 잠을 청한다. 가만히 가만히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 조그만 바윗돌에 부딪혀 조화를 이룬 냇물소리, 빨래를 비벼대는 소리, 폐구정물 내려온다고 시비 붙어 종알대는 소리, 아직도 그 고운 추억들이 내 가슴속에 남아있건만... 그곳에 살던 은빛 송사리와 달팽이 모두 이사를 갔나보다. 너희들이 보고 싶은데 지금은 나이를 많이 먹었겠구나! 내 나이 마흔이 넘었으니 말이야.

“얘들아, 우리 그 냇가에서 다시 모이자꾸나.”

그동안에 못다한 얘기 보따리 모두 풀어 놓자구나.



입선

## 꽃의 향기



포천시 신읍동  
서선례

꽃의 마음으로 향을 품으면...  
사람에게도 향이 날까?

내가 품고싶은 향은 무슨 향일까?

라일락, 장미, 아카시아, 제비꽃, 달맞이꽃 등등 최고의 명품 샤넬향일까?  
자스민 향일까?

아니다.

세상의 어떤 향도 사람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는 사랑의 향기가 사라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향은 사라지고 꽃은 시들어 서글픈데 꽃의 향이 무슨 의미가 있으랴.

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향을 품기란 너무도 아득해서 그 끝을 알수가  
없다.

욕심이 과한 탓일까?

사람은 누구나 영원불멸하기를 원하지만 아름다움도 향기도 짧아서 한번  
시들면 그 시작을 찾을 수 없다.

향을 품고 하루, 아틀, 사흘, 백일... 내게서 사라진 향을 찾으려 최고급 명  
품향수를 뿌려봐도 이미 마음에서 떠난 향은 풍겨나지를 않는다. 아름다운 사  
랑의 향기를 마음으로 간직하고 가두어 둘 수 있게 최우의 수단을 써보았지만  
사악함만 깃들어 순수함을 잃은지 오래다.

처음처럼

단내나고 감미롭고 향기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영원히 지지않는 꽃이 되련만.

그런 꽃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서 마음을 잃어버린, 어떤 향도 품을 수 없는 아픔이다. 벌과 나비도 들지 않아 열매 맺지 못하고 시들어 지고 마는.

그런 꽃.

달빛 아래 아름다움으로 빛을 품고 향기 품어 사랑을 노래한지 몇날이 지났다고 꽃은 시들고 향기는 날아가버려,

세상의 덧없음을 노래하는가.

가슴 속에 그 향기 가두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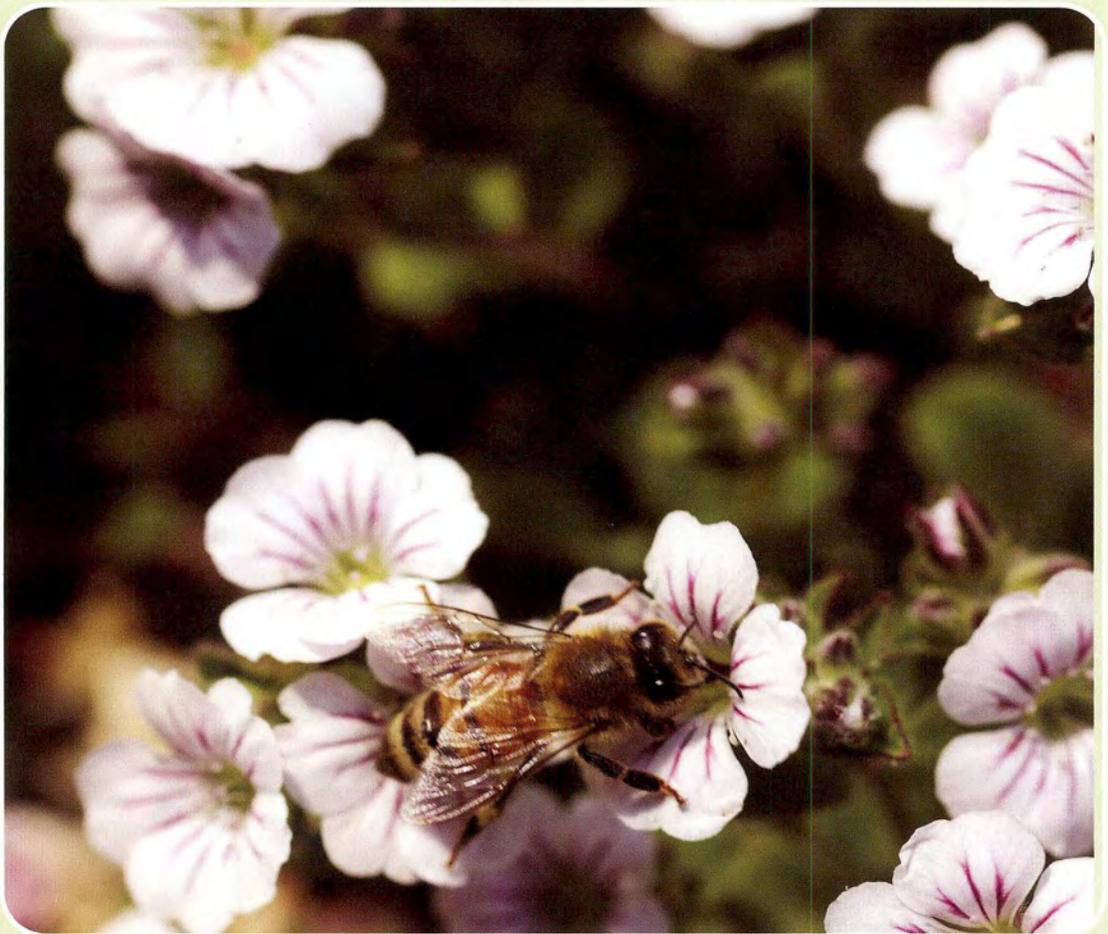
추억으로 남길까...





2009 제23회 반월문화제

# 시생대회 입상작품집



### ● 유치부 상상화

최우수	장재용	연세어린이집
우수	김은진	양문어린이집
우수	송윤주	세화유치원
특선	정원빈	자연과동화어린이집
특선	이수인	자연과동화어린이집
특선	김지연	키즈아트미술학원

### ● 초등부 저학년 상상화

최우수	이지원	태봉초등학교	1학년
우수	임문섭	신봉초등학교	2학년
우수	손기원	송우초등학교	1학년
우수	유제혁	이곡초등학교	3학년
특선	이선용	태봉초등학교	2학년
특선	장채린	선단초등학교	2학년
특선	이선아	추산초등학교	2학년
특선	정하은	태봉초등학교	1학년
특선	이민주	추산초등학교	3학년
특선	구하늘	송우초등학교	3학년
특선	송광호	가산초등학교	1학년
특선	김채린	신봉초등학교	1학년
특선	이 준	포천초등학교	1학년
특선	이윤지	태봉초등학교	3학년
특선	박상욱	왕방초등학교	2학년
특선	임주원	추산초등학교	2학년
특선	이유민	태봉초등학교	2학년
특선	김민석	포천초등학교	2학년
특선	한예진	청성초등학교	3학년

### ● 초등부 저학년 포스터

특선	김정우	영북초등학교	3학년
----	-----	--------	-----

### ● 초등부 고학년 사생

최우수	김경실	추산초등학교	6학년
우수	주은총	송우초등학교	5학년
우수	강은빈	송우초등학교	4학년
우수	정희아	추산초등학교	6학년
특선	이은서	추산초등학교	4학년
특선	장성명	신북초등학교	4학년
특선	이건우	태봉초등학교	4학년
특선	강승범	태봉초등학교	4학년
특선	정민성	왕방초등학교	4학년
특선	박예원	포천초등학교	4학년
특선	정다희	일동초등학교	6학년
특선	김민주	추산초등학교	5학년
특선	홍예지	태봉초등학교	5학년
특선	최우준	포천초등학교	5학년
특선	이지오	추산초등학교	5학년

### ● 초등부 고학년 판화

우수	이강연	추산초등학교	6학년
우수	김민재	추산초등학교	5학년
우수	최선관	포천초등학교	4학년
특선	배형근	포천초등학교	5학년
특선	손규민	추산초등학교	4학년
특선	배대근	포천초등학교	6학년

### ● 초등부 고학년 한국화

우수	이찬희	가산초등학교	5학년
특선	김재영	유암초등학교	6학년

### ● 중등부 사생

최우수	최수연	영중중학교	1학년
우수	조서경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우수	최석주	송우중학교	2학년
특선	윤소정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특선	김지은	갈월중학교	3학년
특선	허재경	송우중학교	1학년
특선	곽윤재	송우중학교	2학년
특선	원지연	포천여자중학교	1학년
특선	황혜지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특선	이재이	경북중학교	1학년

### ● 중등부 소묘

최우수	권지연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우수	이현지	송우중학교	1학년
특선	김채운	갈월중학교	2학년
특선	조현섭	내촌중학교	3학년

### ● 중등부 판화

최우수	김나나	영중중학교	3학년
특선	김은아	포천여자중학교	2학년
특선	한소현	송우중학교	1학년

### ● 중등부 한국화

우수	지희정	영중중학교	2학년
특선	김선욱	포천여자중학교	2학년

### ● 고등부 사생

대상	이세은	동남고등학교	1학년
특선	이가령	송우고등학교	1학년
특선	서하늘	포천고등학교	1학년

### ● 고등부 정물화

최우수	차정희	포천일고등학교	3학년
우수	김영희	포천고등학교	3학년
특선	허슬기	포천고등학교	3학년
특선	정승희	포천고등학교	3학년

### ● 고등부 소묘

우수	신동해	포천고등학교	2학년
특선	성민예	송우고등학교	2학년

### ● 고등부 구성

우수	김다래	포천고등학교	3학년
특선	김선주	포천고등학교	2학년
특선	김나연	포천고등학교	3학년

### ● 고등부 판화

특선	문희진	관인고등학교	2학년
----	-----	--------	-----

### ● 고등부 포스터

특선	김선혜	포천고등학교	1학년
----	-----	--------	-----

### ● 일반부 사생

우수	허 옥	포천시 소흘읍	
특선	윤종철	포천시 신읍동	
특선	민순희	포천시 신북면	
입선	유재현	포천시 소흘읍	
입선	조웅진	포천시 소흘읍	





연세어린이집  
장재용

최우수



양문어린이집  
김은진

우수





세화유치원  
송 윤 주

우수



자연과동화어린이집  
정 원 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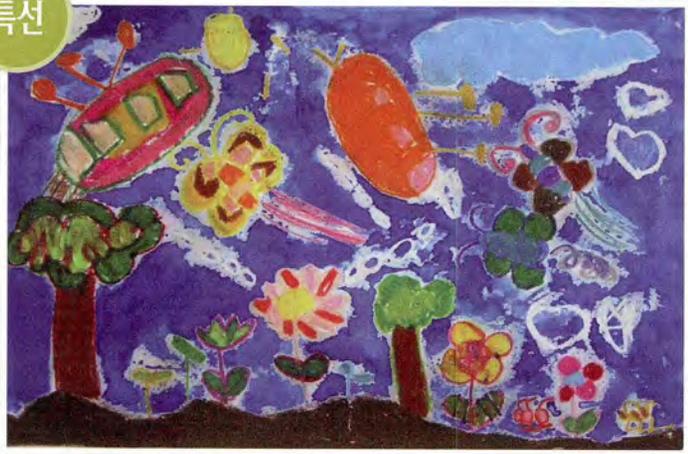
특선





자연과동화어린이집  
이수인

특선



키즈아트미술학원  
김지연

특선





태봉초등학교 1학년  
이지원

최우수





신봉초등학교 2학년  
임문섭

우수



송우초등학교 1학년  
손기원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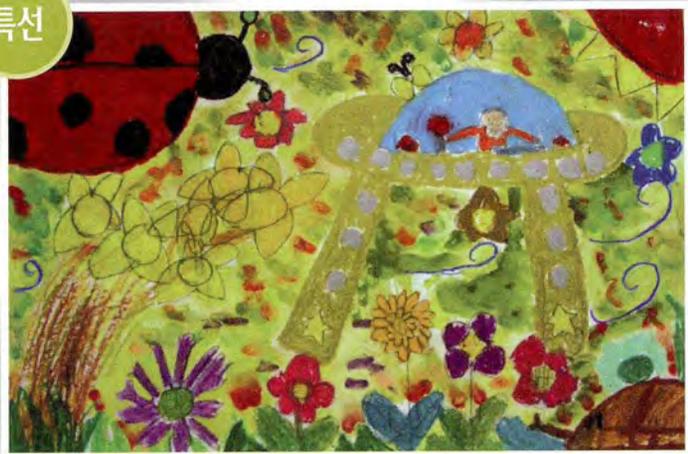
이곡초등학교 3학년  
유제혁

우수



태봉초등학교 2학년  
이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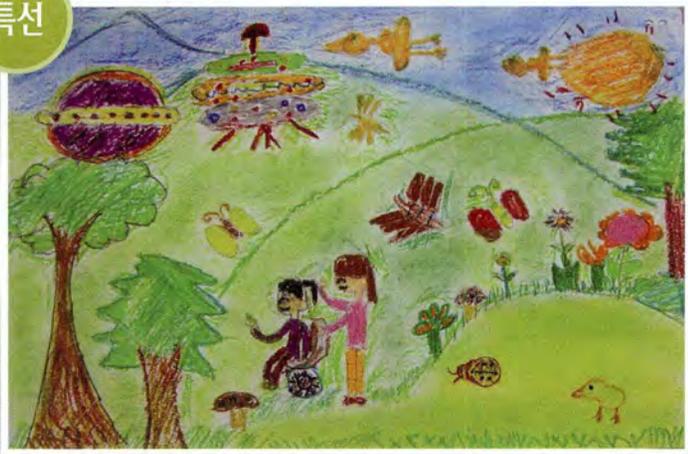
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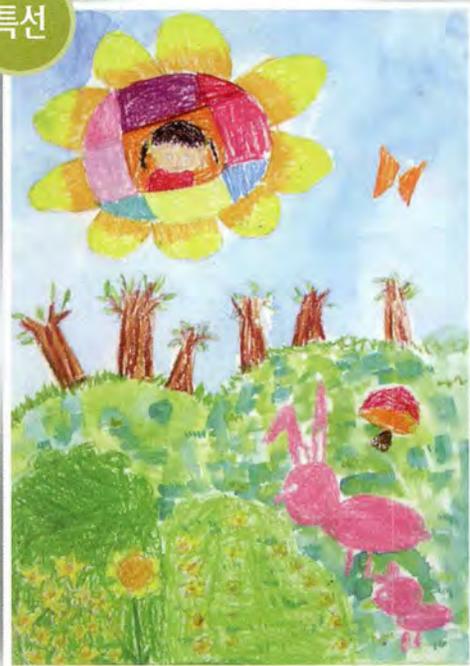
선단초등학교 2학년  
장채린

특선



추산초등학교 2학년  
이선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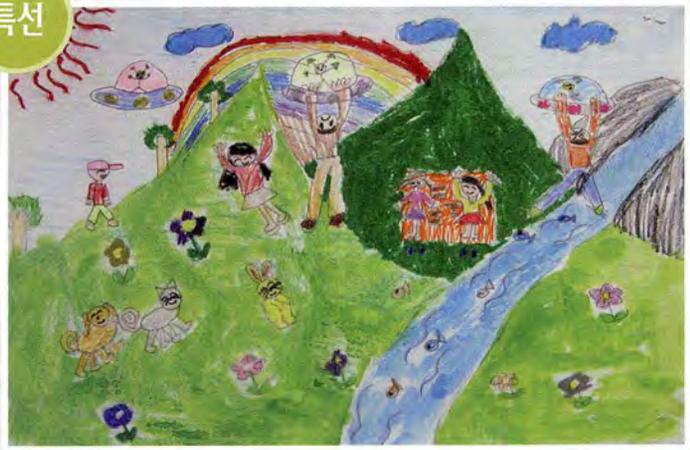
특선





태봉초등학교 1학년  
정 하 은

특선



추산초등학교 3학년  
이 민 주

특선





송우초등학교 3학년  
구하늘

특선



특선



가산초등학교 1학년  
송광호





신봉초등학교 1학년  
김채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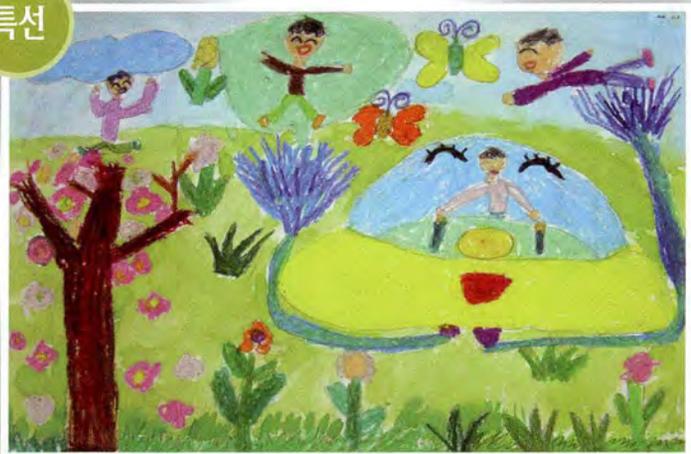
특선



특선



포천초등학교 1학년  
이준





태봉초등학교 3학년  
이 윤 지

특선



특선



왕봉초등학교 2학년  
박 상 옥





추산초등학교 2학년  
임주원

특선



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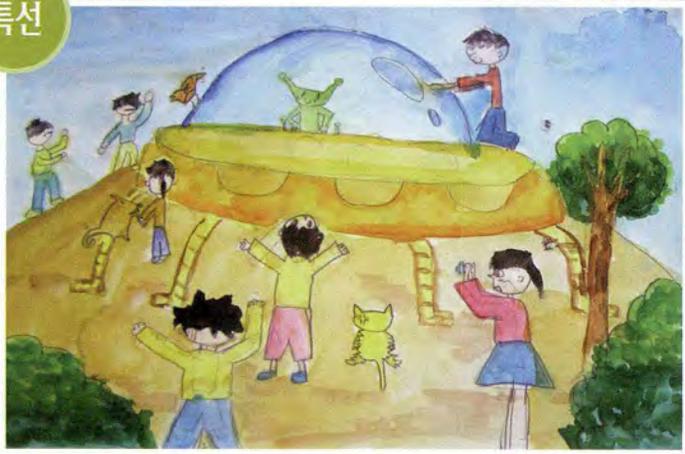
태봉초등학교 2학년  
이유민





청성초등학교 3학년  
한예진

특선



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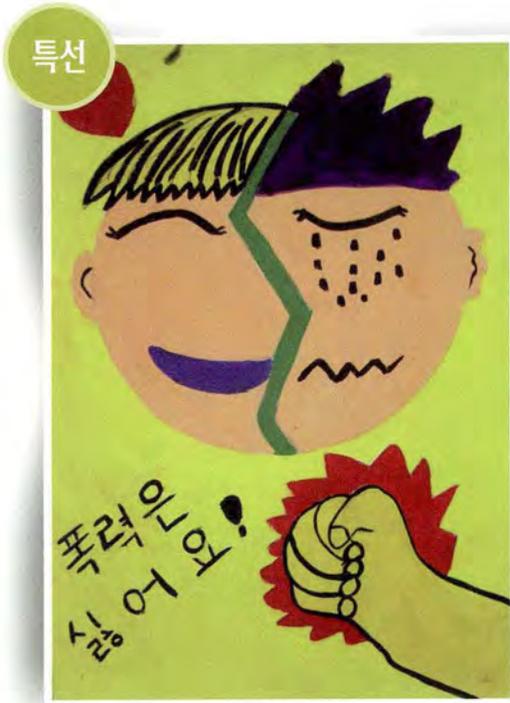


포천초등학교 2학년  
김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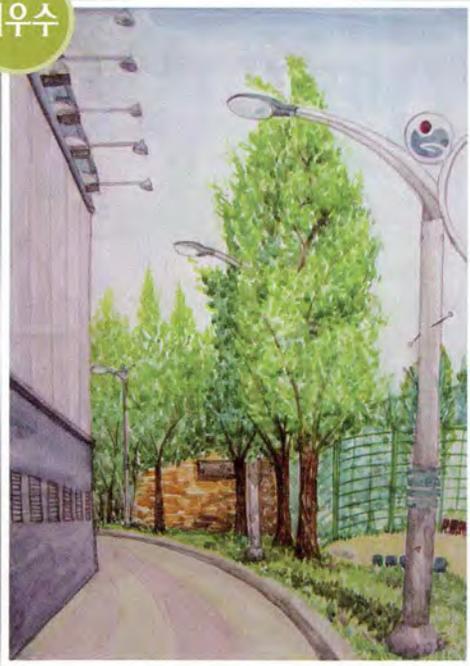
영북초등학교 3학년  
김정우





추산초등학교 6학년  
김경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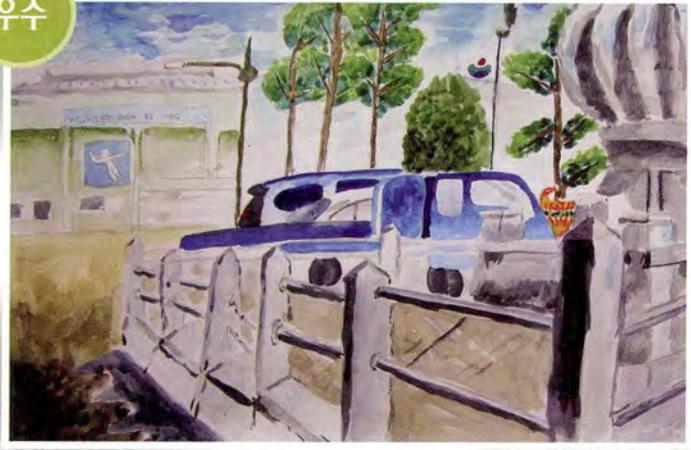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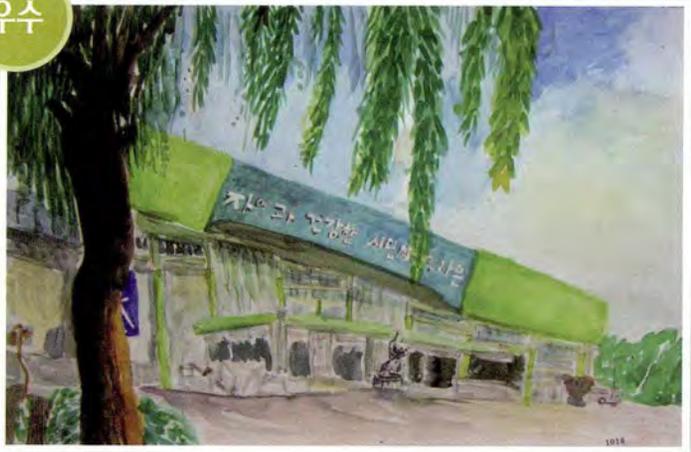
송우초등학교 5학년  
주 은 총

우수



송우초등학교 4학년  
강 은 빈

우수





추산초등학교 6학년  
정희아

우수



특선



추산초등학교 4학년  
이은서





신북초등학교 4학년  
장성명

특선



특선



태봉초등학교 4학년  
이건우





태봉초등학교 4학년  
강 승 범

특선



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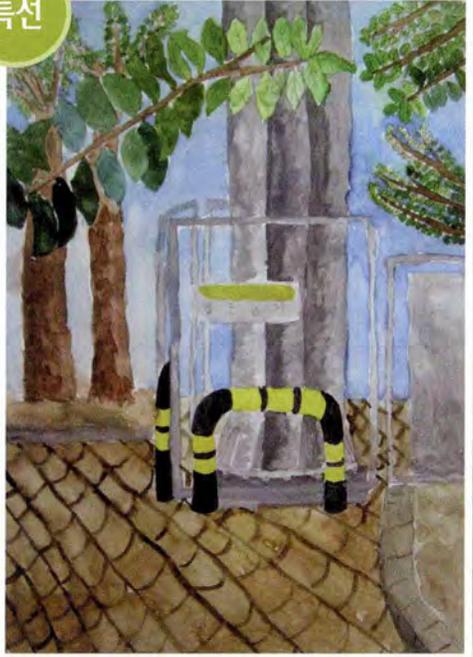
왕방초등학교 4학년  
정 민 성





포천초등학교 4학년  
박예원

특선



특선



일동초등학교 6학년  
정다희



추산초등학교 5학년  
김민주

특선



태봉초등학교 5학년  
홍예지

특선





포천초등학교 5학년  
최우준

특선



특선



추산초등학교 5학년  
이지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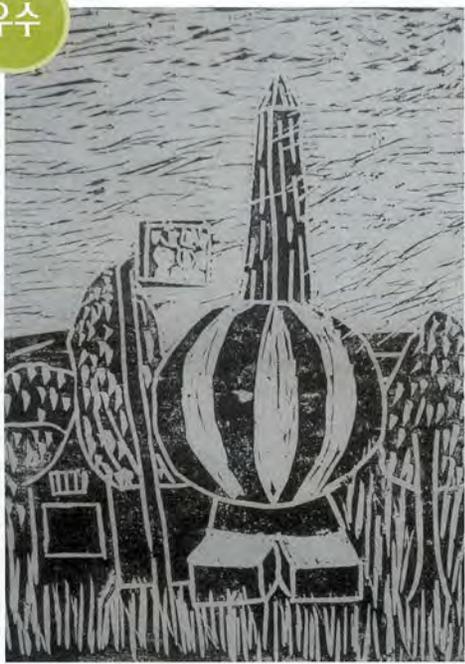


추산초등학교 6학년  
이강연

우수



우수



추산초등학교 5학년  
김민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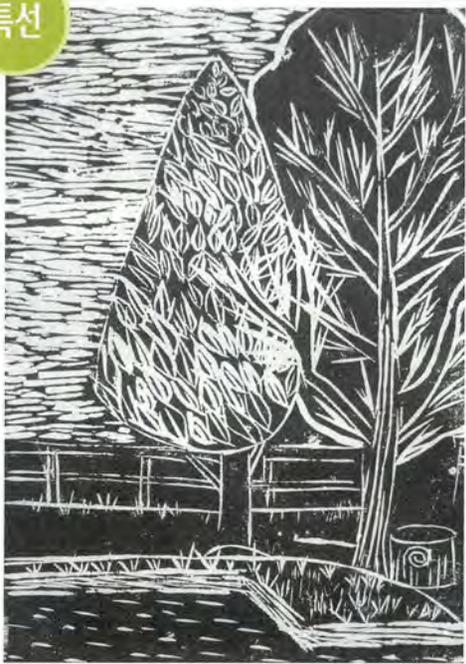


포천초등학교 4학년  
최선관

우수



특선



포천초등학교 5학년  
배형근

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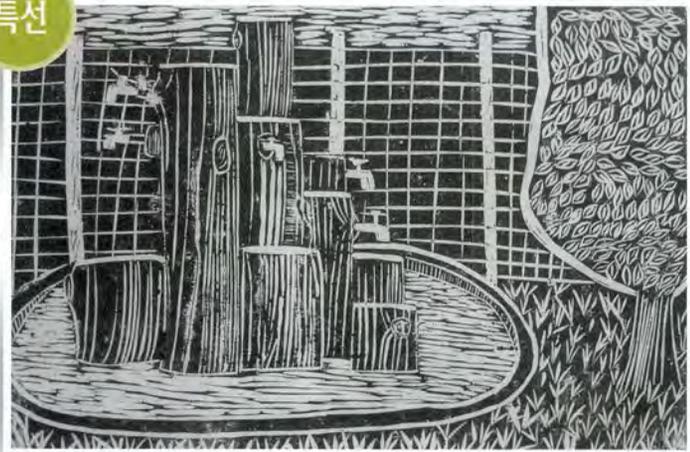
추산초등학교 4학년  
손규민



특선



포천초등학교 6학년  
배대근





가산초등학교 5학년  
이 찬 희

우수



유암초등학교 6학년  
김 재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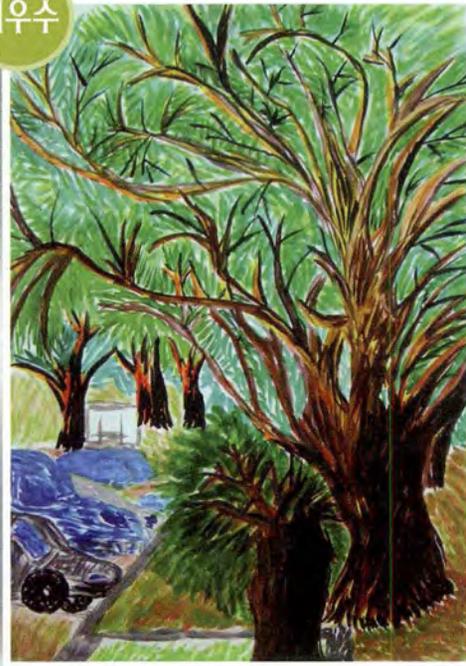
특선





영중중학교 1학년  
최수연

최우수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조서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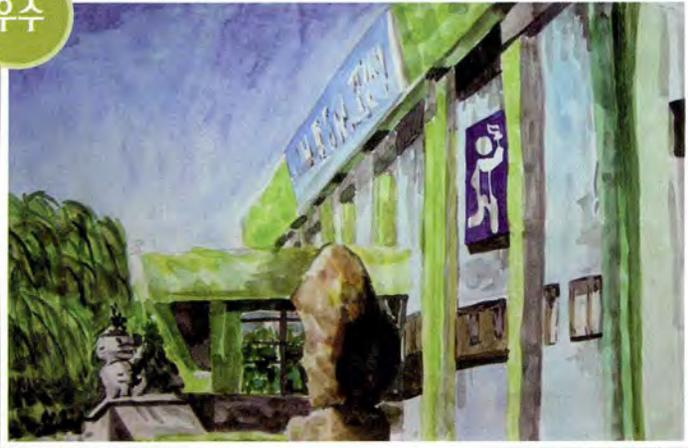
우수





송우중학교 2학년  
최석주

우수



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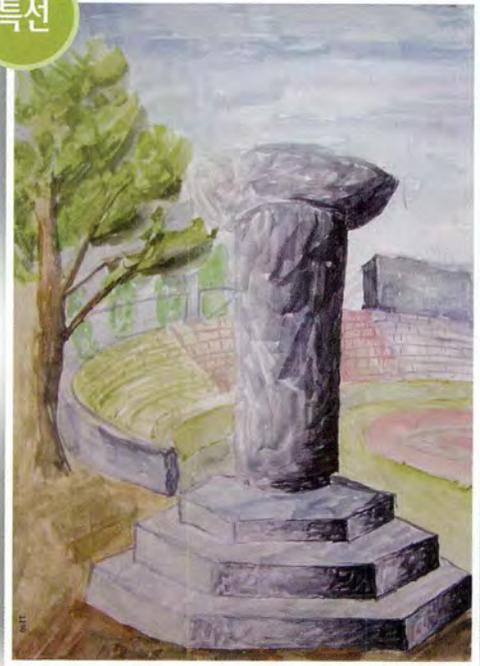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윤소정





갈월중학교 3학년  
김지은

특선



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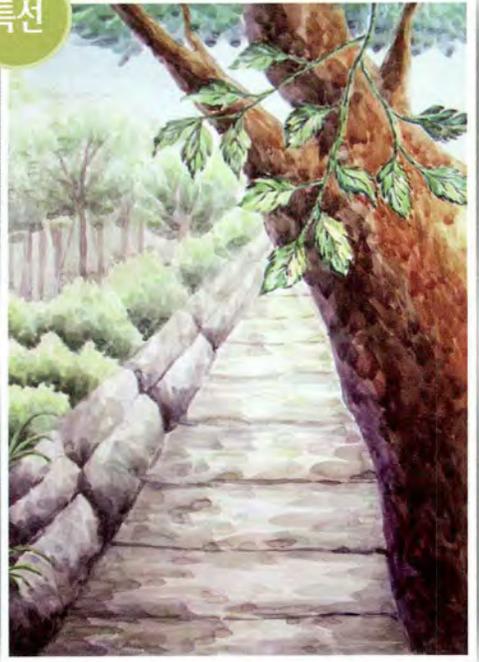


송우중학교 1학년  
허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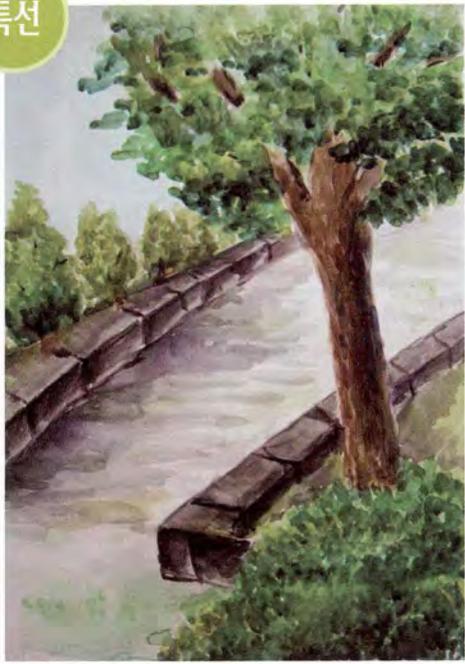


송우중학교 2학년  
곽윤재

특선



특선



포천여자중학교 1학년  
원지연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황혜지

특선



특선



경북중학교 1학년  
이재이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권지연

최우수



송우중학교 1학년  
이현지

우수





갈월중학교 2학년  
김채윤

특선



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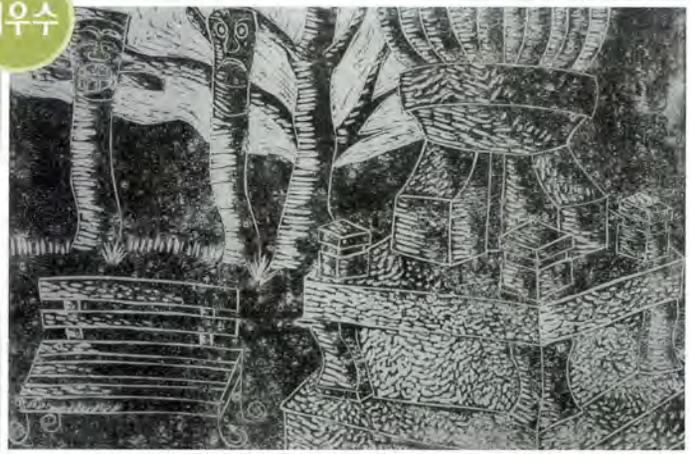


내촌중학교 3학년  
조현섭



영중중학교 3학년  
김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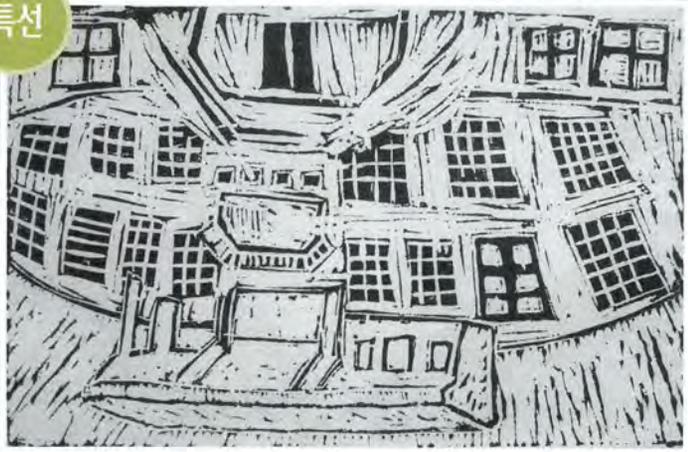
최우수





포천여자중학교 2학년  
김은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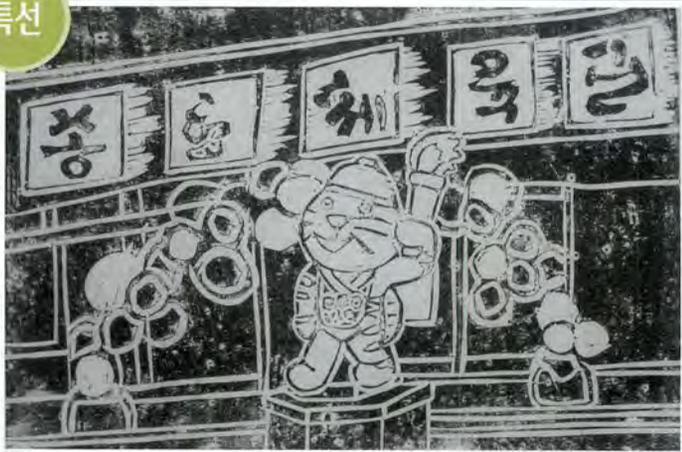
특선



특선



송우중학교 1학년  
한소현





영중중학교 2학년  
지희정

우수



특선



포천여자중학교 2학년  
김선옥





동남고등학교 1학년  
이 세 은

대상





송우고등학교 1학년  
이가령

특선



포천고등학교 1학년  
서하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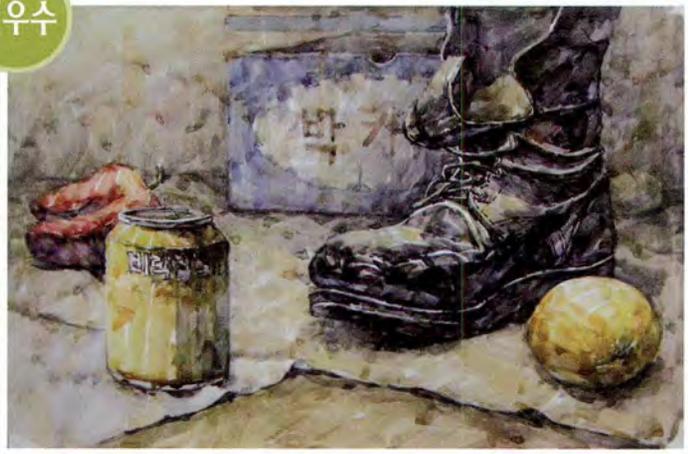
특선





포천일고등학교 3학년  
차 정 희

최우수



우수



포천고등학교 3학년  
김 영 희





포천고등학교 3학년  
허슬기

특선



포천고등학교 3학년  
정승희

특선





포천고등학교 2학년  
신 동 해

우수



특선



송우고등학교 2학년  
성 민 예





포천고등학교 3학년  
김다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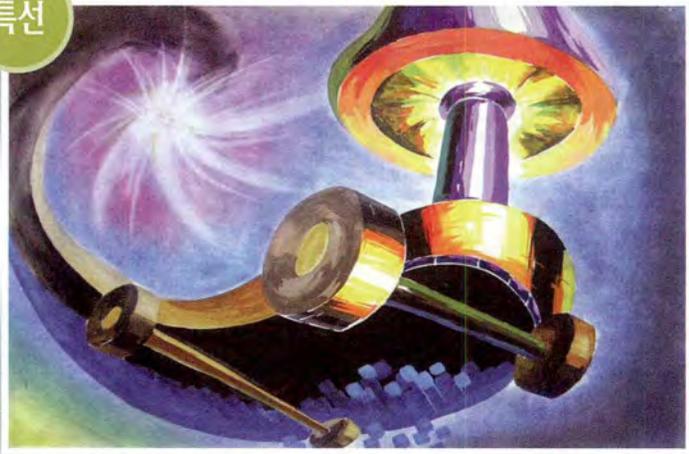
우수





포천고등학교 2학년  
김 선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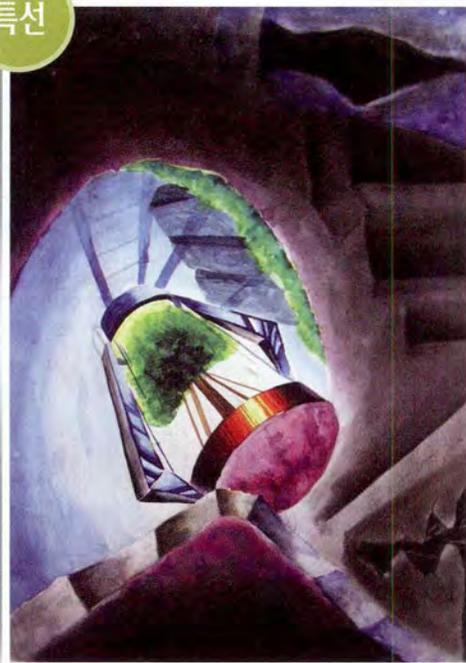
특선



특선



포천고등학교 3학년  
김 나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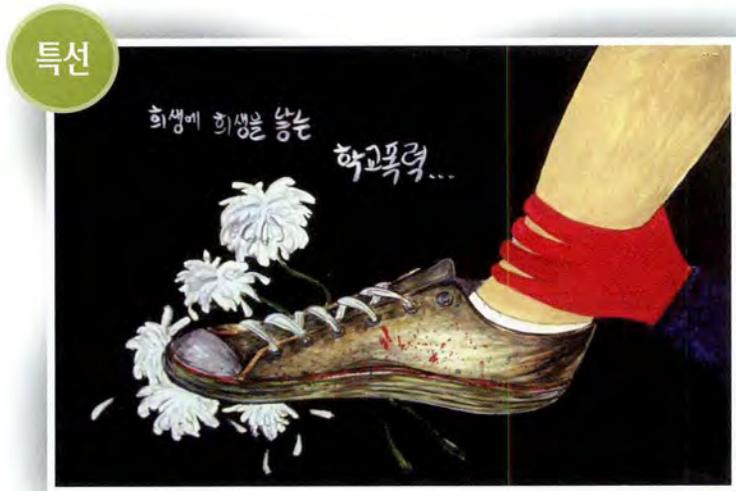
관인고등학교 2학년  
문희진

특선





포천고등학교 1학년  
김 선 혜





포천시 소흘읍  
허 옥

우수





포천시 신읍동  
윤 종 칠

특선



특선



포천시 신북면  
민 순 희





포천시 소흘읍  
유재현

입선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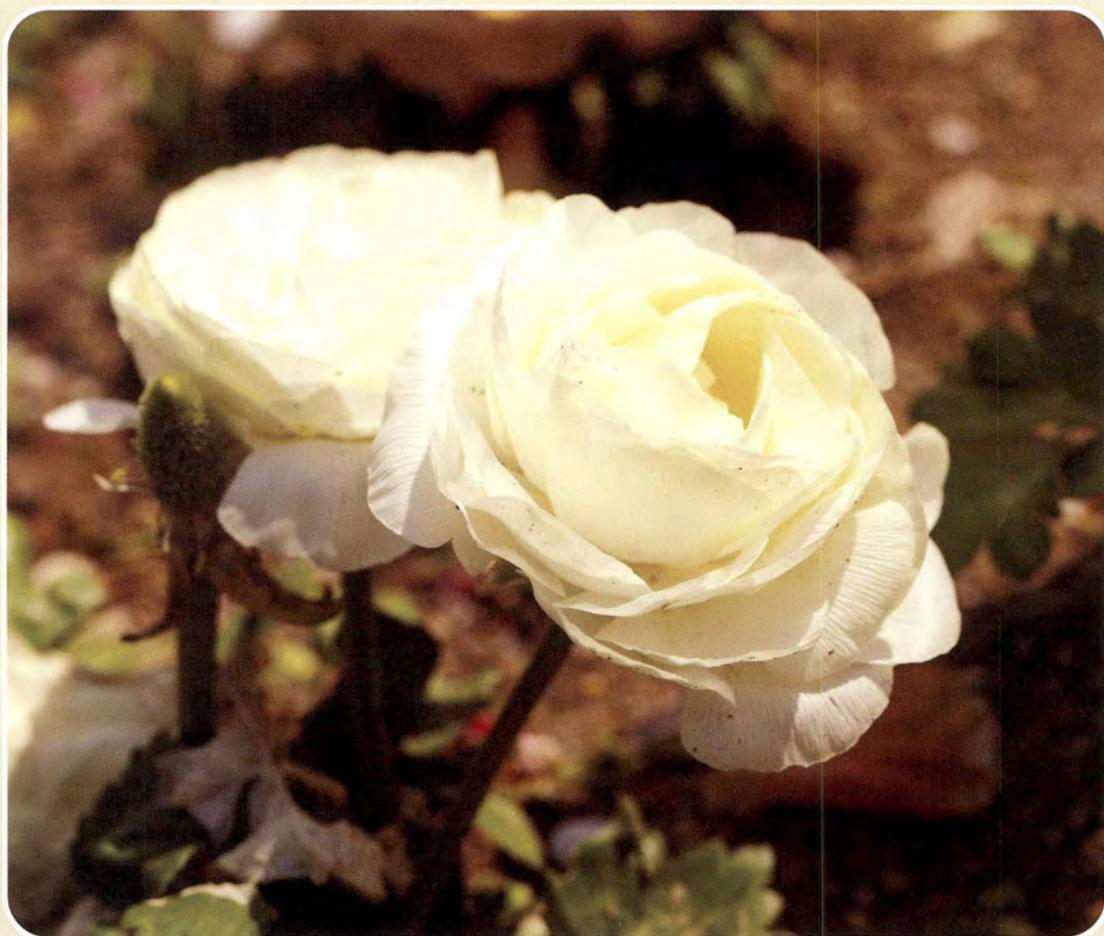
포천시 소흘읍  
조웅진





2009 제23회 반월문화제

# 서예대회 입상작품집





● **초등부 한글**

최우수	김이준	선단초등학교	5학년
우수	한나연	포천초등학교	5학년
우수	신윤호	왕방초등학교	5학년
특선	김은주	영중초등학교	5학년
특선	한규리	왕방초등학교	6학년
특선	양기영	신봉초등학교	5학년
특선	유호권	태봉초등학교	2학년

● **초등부 한문**

우수	박지윤	포천초등학교	5학년
우수	김우석	영북초등학교	5학년
특선	김혜서	영북초등학교	6학년

● **중등부 한글**

우수	한도연	포천중학교	2학년
----	-----	-------	-----

● **중등부 한문**

최우수	홍주연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우수	이수현	포천여자중학교	2학년

● **고등부 한문**

최우수	이병무	포천일고등학교	2학년
우수	이병민	포천일고등학교	1학년
우수	이해인	포천고등학교	2학년
특선	이영미	동남고등학교	3학년

● **일반부 한글**

우수	홍성민	포천시 선단동	
입선	한현민	포천시 신읍동	
입선	박광모	포천시 군내면	

● **일반부 한문**

최우수	구자영	포천시 선단동	
우수	김용순	포천시 영북면	
우수	유명렬	포천시 영북면	
특선	이옥주	포천시 일동면	
특선	홍순익	포천시 소흘읍	
특선	김광수	포천시 신읍동	
특선	이갑형	포천시 관인면	
특선	이순휘	포천시 가산면	
특선	함영대	포천시 선단동	
특선	이양순	포천시 관인면	
입선	전윤종	포천시 영북면	
입선	김대용	포천시 영북면	
입선	임병식	포천시 영북면	
입선	오석교	포천시 영북면	
입선	이덕성	포천시 영북면	
입선	최장식	포천시 소흘읍	
입선	김수덕	포천시 소흘읍	
입선	유만영	포천시 이동면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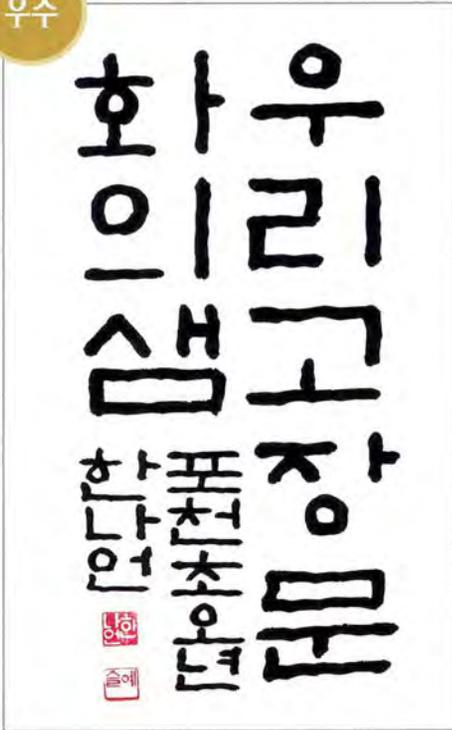


선단초등학교 5학년

김이준

강은의  
신념  
학은의  
지념  
선단초등학교  
김이준

우수



포천초등학교 5학년  
한나연

우수



왕방초등학교 5학년  
신윤호

특선

아리나 장  
망의 색  
정양석 양의 그림자



영중초등학교 5학년  
김은주

특선

강원신문  
양방초등학교 6학년  
한규리



왕방초등학교 6학년  
한규리

특선

신봉초이년양기영  
문우  
화리  
의고  
샘장



신봉초등학교 5학년  
양기영

특선

태봉초이년유호권  
내  
문  
화  
의  
고  
터  
장



태봉초등학교 2학년  
유호권

우수



포천초등학교 5학년

박지윤

學 豈 可  
忽 手 哉

抱川初校五年朴智潤

우수

學豈可忽  
乎哉

永北初五年  
金禹錫



영북초등학교 5학년  
김우석

특선

學豈可忽  
乎哉

永北初六年  
金慧書



영북초등학교 6학년  
김혜서



최우수

無言實踐熟慮斷行

抱川女子中學校 三學年 洪周妍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홍주연

우수

無言實踐熟慮斷行

抱川女子中學校 二年 李受珉



포천여자중학교 2학년  
이수현

최우수

無忍不達 鷓夢蝥生  
抱川一高等學校二年 李炳武



포천일고등학교 2학년  
이 병 무

우수

無言實踐 熟慮斷行  
抱川一高等學校一年 李炳致



포천일고등학교 1학년  
이 병 민

우수

無忍不達鵬夢蟻生

抱川高等學校二學年李海仁



포천고등학교 2학년  
이해인

특선

無忍不達鵬夢蟻生

東南高三年李英美



동남고등학교 3학년  
이영미



입선

泰 宗 聖 德 萬 古 無 疆 萬 歲 無 疆  
 本 日 天 降 聖 德 萬 古 無 疆 萬 歲 無 疆  
 仁 君 萬 歲 萬 歲 萬 歲 萬 歲 萬 歲 萬 歲  
 萬 歲 萬 歲 萬 歲 萬 歲 萬 歲 萬 歲 萬 歲

이 글귀의 내용은 세종대왕의 즉위 500주년을 기념하여  
 신씨씨족회(신씨)가 주최한 서예대회에서  
 박광모 씨가 쓴 글귀입니다.



포천시 신읍동  
한 현 민

입선

님을 미 들 것 가 못 미 들 스 님 이 시 라  
 미 더 온 시 절 도 못 미 들 줄 아 라 스 라  
 맛 기 야 어 려 와 마 는 아 니 맛 고 어 이 리

기축년

호산

박광모



포천시 군내면  
박 광 모

최우수

不怠勤久只是誠不  
 至於事厥僭皆是齋  
 誠齋

己丑仲春竹軒具滋英



포천시 선단동  
 구자영

우수

不能動人只是誠不至  
 於事厭倦皆是無誠處

己丑孟夏之節 耕雲金龍淳



포천시 영북면  
김용순

우수

君子雖不在位然以  
 人觀其德用為儀法

己丑孟夏之節 古松 劉明烈



포천시 영북면  
유명렬

특선

不能勤人只是誠不至  
於事厭倦皆是無誠處

己丑夏首 佳園 李玉朱



포천시 일동면  
이옥주

특선

君子雖不在位然以人  
觀其德用為儀法

居仁



포천시 소흘읍  
홍순익

특선

不能動人只是誠不至  
於事厭倦皆是無誠處

己丑 姜勳 氏 金光洙



포천시 신읍동  
김 광수

특선

不能動人只是誠不至  
於事厭倦皆是無誠處

己丑 智山 李甲衡



포천시 관인면  
이 감형

특선

事不能  
厭動  
皆是人  
只是  
無誠  
處不  
至於

己丑年  
幽靜 李淳徽



포천시 가산면  
이순휘

특선

人君子  
觀子  
其雖  
德不  
用在  
為位  
儀然  
法以

乙丑仲春半月之化  
條幽靜咸泳大



포천시 선단동  
함영대

특선

君子雖不在位然以  
人觀其德用為儀法

己丑春日 瑞江 李良淳



포천시 관인면  
이양순

특선

君子雖不在位然以  
人觀其德用為儀法

己丑孟夏 雲谷 金大龍



포천시 영북면  
김대용

입선

不能動人只是  
誠不至於事  
處  
倦皆是無誠處

己丑夏 晚翠全閔鍾



포천시 영북면  
전 윤 중

입선

不能動人只是誠不至  
於事  
處  
倦皆是無誠處

己丑夏之節長川任炳植



포천시 영북면  
임 병 식

입선

君子雖不在位然以  
人觀其德用為儀法

己丑 春日 晚 恩 吳 鎬 教



포천시 영북면  
오석교

입선

君子雖不在位然以  
人觀其德用為儀法

己丑 孟夏 裕泉 李德成



포천시 영북면  
이덕성

입선

君子雖不在位然以人觀  
其德用為儀法

光南崔長植



포천시 소흘읍  
최장식

입선

君子雖不在位然以人觀  
其德用為儀法

溢空金修德



포천시 소흘읍  
김수덕

입선



포천시 이동면  
유만영



2009 제23회 반월문화제

# 사진대회 입상작품집



● 초등부

최우수	이 정	송우초등학교	4학년
우수	정아현	청성초등학교	6학년
특선	김아림	송우초등학교	4학년
특선	이혜승	청성초등학교	6학년
특선	백수진	삼정초등학교	6학년
특선	이 산	신북초등학교	5학년

● 중등부

최우수	박예진	이동중학교	1학년
우수	김민영	동남중학교	3학년
우수	김상현	포천중학교	3학년
특선	이성주	포천중학교	2학년
특선	백영민	포천중학교	1학년
특선	송지현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특선	주정우	포천중학교	3학년
특선	박진용	포천중학교	3학년
특선	윤세웅	포천중학교	1학년

● 고등부

최우수	한선희	동남고등학교	2학년
우수	박윤진	동남고등학교	1학년

● 일반부

최우수	김연경	포천시 관인면
우수	배현수	포천시 신읍동
특선	차영숙	포천시 이동면
특선	석창진	포천시 가산면
입선	김영화	포천시 이동면





송우초등학교 4학년  
이 정

최우수



집중



청성초등학교 6학년  
정 아 현

우수





송우초등학교 4학년  
김아림

특선



외로움의 눈물



청성초등학교 6학년  
이혜승

특선



우리 포천의 수호신



삼정초등학교 6학년  
백수진

특선



바람개비가 바라보는 세상



신북초등학교 5학년  
이산

특선



음... 자네가 대상감이네.



이동중학교 1학년  
박예진

최우수



우리집 가훈을 맞춰주세요.

우수



동남중학교 3학년  
김민영



산책

우수



포천중학교 3학년  
김상현



몰입



포천중학교 2학년  
이성주

특선



더 섬세하게!



포천중학교 1학년  
백영민

특선



오성, 한음의 친구들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송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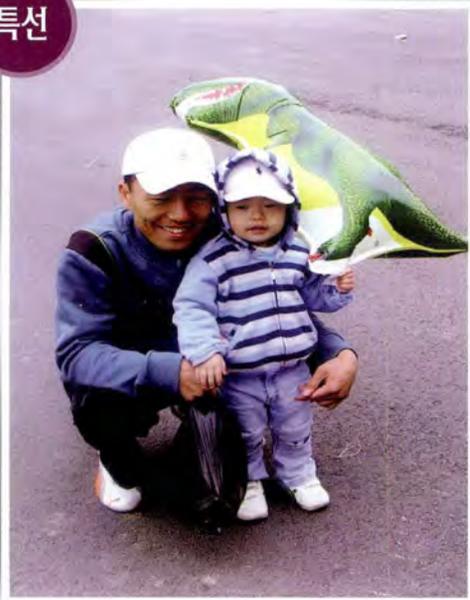
특선



특선



포천중학교 3학년  
주정우



풍선을 꼭 잡고 아빠와 함께 찰칵



포천중학교 3학년  
박진용

특선



이끄러주는 선생님, 자라나는 새싹



포천중학교 1학년  
윤세웅

특선



아빠와 즐거운 야구 한판



동남고등학교 2학년  
한 선 희

최우수



이렇게 하는거란다.



동남고등학교 1학년  
박 윤 진

우수



얼썩!



포천시 관인면  
김연경

최우수



자연을 종이에 담는다는 것은

우수



포천시 신읍동  
배현수



노력하고 노력해요

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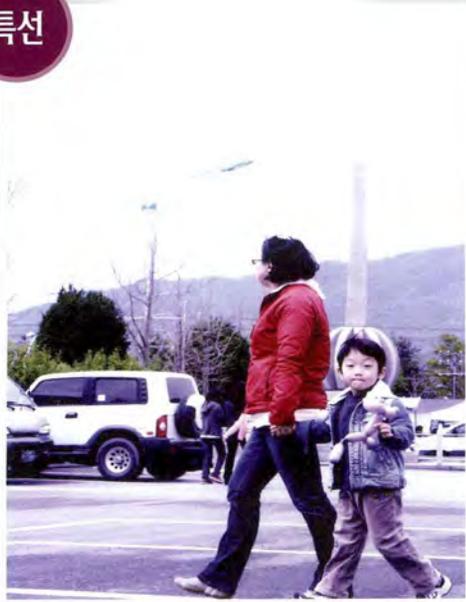


포천시 이동면  
차영숙

특선



포천시 가산면  
석창진



두 손 꼭 잡고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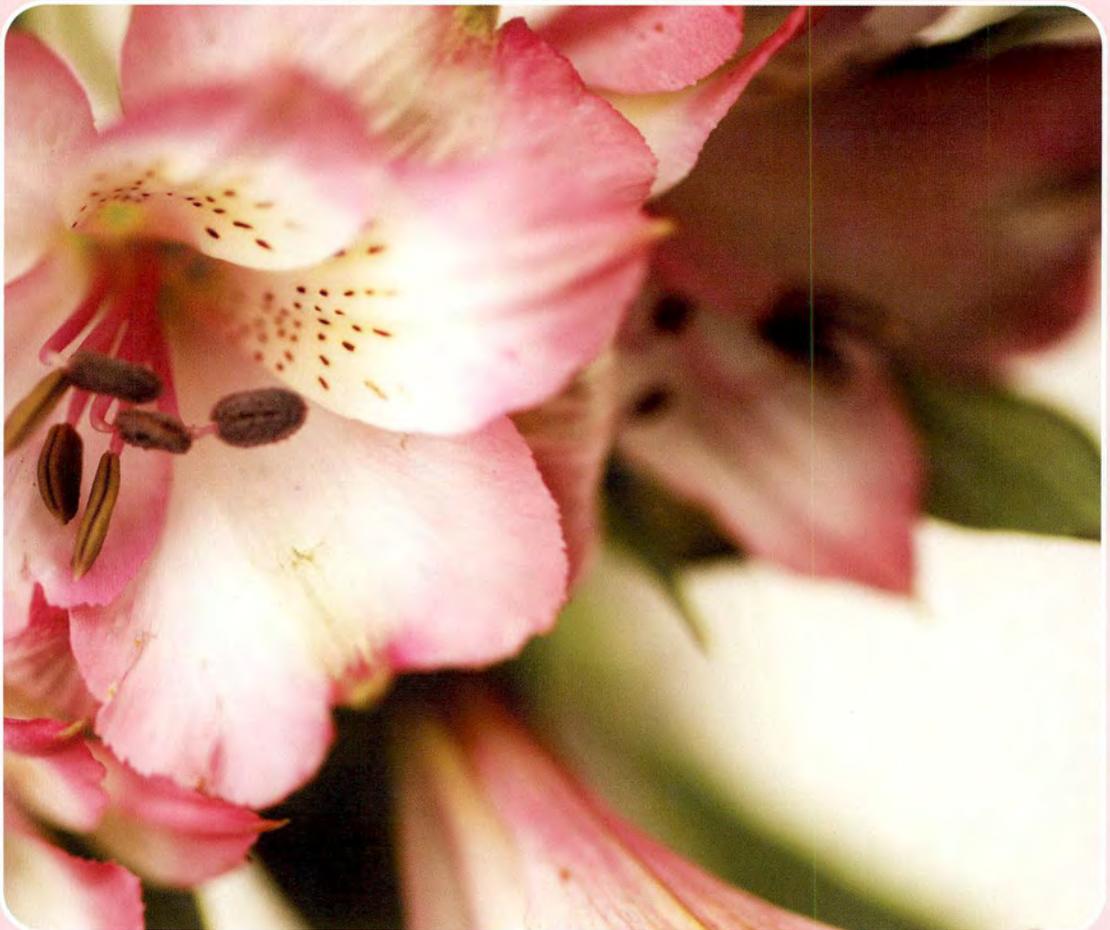


포천시 이동면  
김영화





# 좋은책읽기 독후감 입상작품





● 초등부

장원	이 진	창수초등학교	4학년
차상	이주희	지현초등학교	5학년
차상	이영찬	선단초등학교	3학년
차하	이지연	포천초등학교	6학년
차하	강예진	보장초등학교	4학년

● 중등부

장원	이영아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차상	조현정	포천여자중학교	2학년
차하	오윤아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차하	최미송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 고등부

장원	이하은	동남고등학교	1학년
차상	이재운	동남고등학교	2학년
차하	송민호	동남고등학교	2학년
차하	이은샘	동남고등학교	2학년

● 일반부

차상	박경자	포천시 일동면
----	-----	---------



# 신기한 동물이야기

## - '유니콘과 신비한 동물들' 을 읽고 -



창수초등학교 4학년  
이진

사람들은 유니콘, 피닉스, 키메라와 같은 전설 속의 동물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다. 평소 '그리스 로마이야기' 책을 손에서 떼지 않을 정도로 좋아하는 나는 전설 속에 나오는 동물들에 대해 늘 궁금해 하고 있었다. 피닉스는 지금도 살아 있을까? 유니콘의 머리에는 정말로 뿔이 달려있을까? '유니콘과 신비한 동물들' 은 나의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가뭇의 단비같은 책이었다.

이 책은 그리스 신화에 나온 전설속의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유독 나의 시선을 끈 동물이 있었다. 바로 '태양의 새 피닉스' 이다. 나는 피닉스에 대해 전설 속에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조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책은 피닉스가 왜 불사조가 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다.

세상이 시작되던 어느 날, 땅을 내려다보던 태양은 유난히 아름다운 깃털을 가진 피닉스를 보게 되었다. 새의 아름다움에 반해 태양은 외쳤다. "영광을 입은 피닉스여! 너는 나의 새가 되어 영원히 살리라!" 이 소리를 들은 피닉스는 행복에 젖어 노래를 불렀다. "영광, 영광의 태양이시여, 이제부터 이 몸은 당신 한 분만을 위해 노래하겠습니다." 태양의 계시를 받은 피닉스는 행복했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피닉스만 보면 눈부시게 빛나는 깃털을 뽑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가 보다. 예쁜 것을 보면 갖고 싶고, 만지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행동으로 인해 그 피닉스는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다. 며칠 전 수학여행으로 경주를 다녀왔는데, 석굴암에 낙서와 훼손이 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안 좋았다. 석굴암도 피닉스처럼 얼마나 힘들었을까...

피닉스는 태양의 말대로 영원히 살아 남았지만 오백년이 지나고 무척 늙고 말았다. 자신의 모습에 실망한 피닉스는 날마다 태양을 찾아가 다시 젊고 강하게 해달라고 노래를 했다. 하지만 태양은 그때마다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지친 피닉스는 마지막으로 태양에게 부탁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고향으로 가서 향기 나는 계피나무 껍질로 둥지를 만들고, 나무의 진으로 동그랗게 알을 만들었다. 태양도 피닉스의 정성어린 부탁에 순식간에 하늘에서 구름이 사라지고 바람이 잠잠해지더니 피닉스의 둥지에 강렬한 태양빛이 쏟아졌다. 주변의 온갖 동물들은 빛을 피해 굴속이나 바위 밑으로 달아났지만 피닉스는 그 빛을 쬐고, 몸에 불이 붙어 불덩이가 되었다. 피닉스는 타서 회색재로 변했지만 그 회색재가 다시 퍼덕이더니 아기 피닉스로 변하고, 아기 피닉스는 다시 날개 짓을 하자 큰 피닉스로 변해 다시 또 영원한 새가 되었다.

우리는 태어나기 위해 10개월을 엄마 뱃속에서 지내야 하고 다른 동물들도 몇 달씩 지내야 하지만, 피닉스는 달랐다. 알을 낳은 적도 없고 새끼도 없지만 500년에 한 번씩 자신의 고향에 와서 다시 또 몸을 태워 또 다른 피닉스를 만든다. 처음에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지만, 책을 읽다 보니 그럴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물고기 중에도 암수가 함께 있는 물고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물고기처럼 피닉스도 새끼를 낳는 것이 아닐까?

피닉스는 전설 속에서 살고 있어서 지금은 없는 새일 것 같았는데 피닉스의 진짜 이름은 '베누'라는 이집트 새로 이집트 동쪽, 아라비아 또는 인도에 살고 있다고 한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피닉스는 못 보겠지만, 이집트에 가서 베누는 꼭 한번 보고 싶다. 베누를 만나 피닉스의 전설을 내가 다시 한 번 파헤쳐 보고 싶다.

피닉스의 전설을 파헤쳐서 장수의 비결을 알아내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오래 장수할 수 있도록 해서 500년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 번 보고 싶다.

## 가족의 소중함

### - '최척전' 을 읽고 -



지현초등학교 5학년  
이주희

이 책의 주인공인 '최척전'은 전쟁중에 가족을 잃고 오랜 시간동안 서로의 생사를 모르며 살아가지만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된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내내 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 동생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다.

주인공인 최척전은 임진왜란이 일어나 전쟁 전부터 혼인을 하려고 했던 '옥영'과 이별을 하게 되고 이후에 전쟁에 휘말리면서 힘든 생활을 하게된다. 전쟁에서의 어려움 보다는 가족과 옥영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

하지만 최척전은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도 언젠가는 가족을 만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했다. 최척전만 의지가 강했던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를 생각해보았다. 만약 내가 최척전이였다면 어땠을까?

나는 최척전처럼 용감하거나 의지가 강하지 않다. 가족을 만나고 싶은 생각은 최척전보다 많이 했겠지만 가족을 만나기 위해 여러가지 위기를 이겨내고 견뎌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전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다. 6·25 전쟁 때 할머니는 초등학생이었는데 6·25 전쟁만 생각하면 너무 무섭다고 하셨다.

한국군, 인민군, 미군, 중국군이 할머니가 살고 계신 마을에 번갈아 들어왔는데 모든 군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많이 했고 군인들의 무서운 얼굴뿐만 아니라 멀리서 들리는 포성, 전투기 굉음이 너무 싫었다고 하셨다. 6·25 전쟁에서 가족을 잃지는 않았지만 친척 중에 전쟁에 나가 돌아오지 못한 친척도 있다고 한숨을 쉬기도 하셨다.

지금도 북한하고 총을 겨누고 있기는 하지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지금이 너무 좋

다.

가족과 친구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지만 최척전을 읽으면서 그리고 우리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이렇게 가족들과 지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평소에 엄마, 아빠 말 듣지 않고 말썽만 피웠는데 나를 키워주시고 보살펴주시는 부모님에게도 고마워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 반지 엄마를 읽고



선단초등학교 3학년  
이영찬

반지 엄마를 몇 번 읽었다.

이 책은 읽을수록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것 같다.

주인공이 자기에겐 부자이면서도 멋진 또 다른 진짜 엄마가 있다고 상상을 하였다. 한마디로 주인공은 환상에 빠진 것이다.

엄마가 가게를 하시지만 그래도 가난했다. 그래서 아빠의 치료비 때문에 가발 비닐봉지를 떼어내서 돈을 벌어야 했다. 그러던 중 주인공은 가발 보따리에서 나온 반지를 상상속의 엄마가 보낸 것이라고 생각했다. 반지를 보면서 여러가지 상상을 하였다.

엄마를 돕지 않으면서 힘들다고 가발공장이 망하길 바랬는데, 정말로 공장이 망해 버렸다. 내 가슴이 쿵! 했다. 가난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어쩌나 했지만 주인공은 오히려 좋아했다. 정말 생각이 없나보다.

주인공은 이전 일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봉투를 붙이는 일을 하게 되었다.

주인공은 힘든 엄마를 보면서도 엄마를 돕지 않고 학교에서 놀다가 늦게 오고, 말도 함부로 해서 엄마의 속을 썩였다. 너무 짝없어 보이고 한심해 보였다. 만약, 나라면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드렸을 것이다.

어느 날 엄마께서 뜨거운 물에 다리와 발을 데이는 사고가 생겼다. 나는 얼마나 다쳤는지 걱정이 되었다.

엄마가 다치고 나서야 주인공은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엄마는 데인 곳이 아프신데도 자식들에 대한 걱정과 가난한 살림만 걱정하셨다. 참 대단하지만 내 마음은 아팠다.

우리 어머니도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신다. 정말 모든 어머니들

은 훌륭하시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가 항상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엄마의 사랑과 마음을 알고 나서야 헛된 생각과 반지를 버렸다. 엄마의 진짜 사랑을 알고서 또 다른 엄마에 대한 헛된 상상을 버렸다.

엄마의 사랑을 알게 된 것과 환상과 상상을 버려서 참 다행이었다.

나를 최고로 사랑해주시는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다.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



## 나는 나예요

### - 좋은 엄마 학원을 읽고 -



포천초등학교 6학년  
이지연

좋은 엄마 학원이나 좋은 아빠 학원이 정말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내 손톱 물어뜯는 습관도 생기지 않았을텐데. 난 태권도, 피아노, 댄스, 드럼, 미술 등 여러 곳의 학원을 다니며 배웠다. 내가 다니고 싶어서가 아니라 엄마의 강요에 의해서이다. 그 결과 난 내가 배웠던 것 그 어디에도 소질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덩으로 모든 일에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며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만 얻었다. 요즘은 “네가 뭐 한 가지라도 잘 하는 것이 있어야지. 특기가 없으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 너 이번 시험에서 떨어지면 학원 보낸다.”라고 하신다. 나에겐 날카로운 무기이고 협박이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학원에까지 가서 공부하고 싶지 않다. 좋은 엄마 학원이라는 책 제목을 보고

‘아,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잘 가르치는 이야기이겠구나. 읽어보고 엄마에게도 말해드려야지. 학원 갖고 협박하지 말고 내가 부족하면 엄마가 가르쳐 달라고 해야지.’ 하고 마음 먹었다.

그런데 엄마를 교육시키는 학원이었다. 중학교 선생님인 다정이네 엄마가 다정이의 개성이나 잘 하는 것은 인정해 주지 않고 주연이 엄마를 만나 정보를 들으며 뭐든지 다정이를 주연이 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고, 교육자인 다정이가 엄마가 이러니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 것은 어찌면 당연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다 맘에 드는 것은 아니다. 다른 친구 엄마 아빠처럼 젊고 예뻐요 좋겠고 놀이동산에도 함께 가봤으면 좋겠고 맛있는 간식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나도 이제는 다정이처럼 포기했지만 지난 해까지만 해도 “놀이동산 가요. 가족여행 가요. 간식 만들어 주세요.”하고 부탁했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엄마 아빠가 젊고 멋쟁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

은 부모님의 가슴에 상처만 주게 될 것이라는 걸 내 경험을 통해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내게 너무 많은 걸 바라신다. 내 주위에는 예술방면으로 잘 하는 친구도 있고 공부를 잘 하는 친구도 있고 다정이처럼 음식이나 태권도를 잘 하는 친구도 있다.

“민지는 어쩔 그렇게 춤을 잘 추니, 너도 댄스학원 계속 다녀라. 세상에 은정이 그림을 봤는데 어찌면 그렇게 잘 그리니? 넌 왜 미술학원이 싫은건데? 지연아 수영이는 이번 시험에서 올백 맞았다며? 은솔이는 체르니 30번 치고 있다더라. 넌 도대체 뭘 잘 하는데?” 엄마가 내게 바라는 것 보다 내가 엄마께 바라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도 깜짝 놀라실 것이다. 그리고 보니 다정이네 엄마가 좋은 엄마 학원에 가서 가족에게 다정하게 신경쓰고 집안 일 잘 하는 교육을 받은 후로 대화 단절증에 걸린 것처럼 나랑 엄마도 대화 단절증인 것 같다. 내가 좋아하고 필요해서 배우면 좋겠지만 자기 생각과 상관없이 끌려가서 배우는 것은 정말 싫다. 학원에 억지로 보내 놓고는 왜 잘하지 못하냐고 닥달하는 것도 싫다. 이 책을 읽고나니 나도 엄마랑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엄마, 저는요. 책읽는 것이 참 좋아요, 춤추는 것 보다 책 읽는 것이 더 좋구요. 악기 연습하는 것 보다 공상하는게 더 좋다구요. 그림 그리는 것 보다 글쓰기가 더 좋아요. 저는 이 다음에 화가나 피아니스트나 무용수나 운동선수가 아닌 신경정신과 의사나 검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나예요.”하고 말씀드려야겠다. 그리고 엄마, 아빠께도 이 책을 꼭 읽어 보시라고 해야겠다. 다정이네 아빠는 회사일로 늘 바쁘셔서 가족에게 신경을 잘 쓰지 못한다. 좋은 아빠 학원 전단지를 보신 다정이의 엄마가 다정이 아빠를 학원에 등록 시킬까? 다정이는? 억지로 학원에 끌려가는 것은 불안하고 화나는 일이라는 것을 다정이네 엄마도 그리고 다정이도 알게 되었으니 그 전단지는 필요없는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스스로 노력하고 싶다. 내가 필요하면 엄마께 도와달라고 하거나 학원에 보내달라고 할 텐데, 시험 때만 되면

“너 성적 떨어지면 학원 보낸다.”라는 말은 제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 할아버지는 수레를 타고



보장초등학교 4학년  
강예진

할아버지와 손자가 있었다. 할아버지는 산 위에 절벽으로 가자고 하였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수레에 태우고 산 위로 올라가며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손자는 한 글자씩 썼다.

‘아우리오’ 할아버지는 무언가 아는듯이 물어보았다. “남은 글자는 중간에 붙는 거냐, 끝에 붙는거냐, 아니면 맨 처음에 붙는거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손자는 중간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산으로 올라갔다. 정상에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아우레리오 내 이름도 오랜만에 불러보는군. 내 이름도 불러 봤겠다. 너는 내려가거라.” 손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는 마음이 흔들렸는지 수레를 타고 아래로 내려갔다. “이것도 꽤 재미있는데 흘라디 호오오오오~”라고 외쳤다. 목표도 없고, 사는 재미도 없고, 더구나 자신의 존재감마저 희미한 살아가야할 의미를 잃어버린 할아버지, 그런 할아버지가 아이처럼 “흘라디 호오오오오~”라고 외치며, 수레를 타고 언덕을 내려가는 마지막 장면에서는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음을 느끼게 된다. 살아가는데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슬한 사람들에게 아주 잠시 필요한 존재가 되어도 그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우린 스스로의 틀에 갇혀 삶을 그늘지고, 또한 우울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책은 아우레리오라는 자신의 다섯 글자를 한자한자 알아가며 서서히 삶의 희망을 배워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따뜻하게 그려지고 있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말을 아주 잘 듣는 착한 소년같다. 그에 비하여 할아버지는 짹짹하고, 매정했지만 원래는 따뜻한 것 같다. 저마다 고민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과연 이토록 귀엽고 사랑스러운 손자를 혼자 두고 삶을 마

감할 수 있었을까? 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것이다. 세상을 살면서 안겨어본 일 없이 모두 다 겪어봤다고는 하지만 손자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모든 일을 겪었다고 말할 수 없을테니 말이다. 나는 할아버지가 마음을 돌려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갑자기 자신에게도 할 일이 있다는 걸 느낀 것일까?

어쨌거나 페피토에게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웃들도 할아버지가 돌아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 무녀도

## - 어느 슬픈 모자이야기 -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이영아

무녀도. 학생이라면 꼭 읽어봐야 한다는 필독 소설 목록에 자랑스럽게 적혀있는 소설, 그와 동시에 섬세한 묘사와 특별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다.

본래 필독 소설을 골라 읽기보다는 좋아하는 작가나 문체, 내용의 재미를 보고 책을 고르던 내가 어째서인지 이 글을 찾게 된 이유는 앞서 말한바 있는 '묘사'와 '구성' 때문이었다. 친구에게 우연히 들은 그 소문은 최근 동화를 짓고 싶어서 글 잘 쓰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던 나에게 신의 계시와도 같은 말이었다. 곧장 도서관으로 달려서 '무녀도'라고 적혀있는 책을 빌린 나는 기대 반, 의심 반의 마음으로 책장을 펼쳤다.

첫 장을 펼치자마자 나온 글은 바로 '무녀도'에 대한 묘사였다. 무당에게서 느껴지는 신비로운 색채를 하나하나 섬세하게 묘사한 그 부분은 나에게 뭔가 사실적으로 다가오면서도 몽환적인 미묘한 감정을 주었다. '색채묘사란 이런 거다.'라고 말하는 듯, 모범답안의 묘사. 그것을 출발로 나의 무녀도 삼매경은 시작되었다.

이 소설의 주요 인물인 모화는 무당으로 나에겐 살짝 괴기스럽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인물이었다. 무당답게 묘한 풍경의 집에 살고 있는 모화는 자신이 용신 딸의 화신이라고 부르는 딸이 한명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낭이'로 말을 할 수 없는 불쌍한 인물이다. 내용상, 의붓오빠인 육이를 좋아한다. 마지막으로 모화의 아들이자 낭이의 의붓오빠인 육이는 기독교인으로써 나에겐 현대적으로 비춰진 인물이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광적으로 예수를 섬기는 인물이었는데 아마, 개화파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묘사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어찌되었든,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모자는 그 덕분에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기 시작한다.

무당으로써 민간신앙의 대표 겪인 모화와 그런 그녀의 아들이자 기독교인의 대표 격인 육이의 갈등, 그 갈등이 너무 심화된 것인가? 결국 무녀도는 어머니와 아들 둘 다 죽어버리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버린다. 이것 참 불행한 모자가 아닌가? 이념의 차이 때문에 피를 나눈 가족끼리 다투어 마지막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다니….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도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졌다면 적으로 판단해야만 했다는 것인가? 서로 조금만 이해했더라면 이런 비극적인 결말은 나지 않았을텐데,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이 개화기 때라는 것으로 보아 작가는 모자의 비극을 통해서 우리 전통문화와 서양에서 전파된 문화가 심하게 충돌하면 결국 비극적으로 끝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것이 아니라면 외래문화 때문에 위축되어만 가는 우리 문화를 되돌아보자고 말하고 싶어던 것일까? 솔직히 난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념 차이 하나로 양쪽 다 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녀도에 나온 모화와 육이처럼 말이다.

너무나 슬프고 비극적인 모자의 이야기 무녀도. 내용과 문체 둘 다 마음에 든 소설은 정말 오랜만이다. 게다가 얻어가는 교훈까지 있다니 책장을 덮으며 난 '필독소설이 그리 재미없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작은 반성을 하였다.

앞으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주는 필독소설, 그리고 우리나라 근·현대 문학을 자주 읽어 머릿속 지식의 양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 아버지의 위대한 유산을 읽고



포천여자중학교 2학년  
조현정

아버지의 위대한 유산 이라는 책은 한 책 안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었다. 가끔, 지어낸 이야기 같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전부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 이라고 한다.

“웃고 즐기렴, 삶은 축제란다.”

“사랑하렴, 먼저 안아주면 된단다.”

“배우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단다.”

“살펴보렴, 꿈을 따라갈 수 있단다.”

“괜찮다. 나를 넘어서렴.”

이렇게 총 5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한장 한장 읽을 때마다 항상 나를 도와주시는 아버지가 떠올랐다.

일상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아버지의 도움이 이 책을 읽으며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었다.

장래희망이 그림 쪽인 내가 얼마나 다른 주위사람에게 내 꿈을 말했을 때 모두들 포기하라고만 했다. 돈 문제라던가 여러가지로 어려운 일이라고들 하였다. 하지만 정말 하고 싶었다.

내가 유일하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인 그림 그리기를 말이다. 정말 포기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어렸을 적 이야기를 해주셨다. 아버지도 그림을 그리고 싶으셨다고, 하지만 집안사정이 안 좋아 그림은 커녕 공부도 못하고 일을 했다고 말이다. 아버지는 나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해주고 싶다며 여러가지 그림용구들을 사주시고 학원도 보내주셨다. 정말로 감사했다. 그 때 만큼은 나도 진심으로 울었었다. 가끔은 술을 드시고 방에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하실 때면 귀담아 듣고는 한다. 이따금 하셨던 말을 다시 하시긴 하시지만 정말 나의 삶에 필요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책에서도 아버지들은 의도하건 하지 않건 아이에게 인생을 알려주고 그 의미를 일깨워준다. 아버지들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 교과서의 이름은 '아버지의 삶. 그래서 모든 아버지들은 위대한 스승이다.' 라고 말한다.

이런 일이 있는 후로는 아버지께 관한 책들이 가끔 눈에 들어오곤 했었다. 어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그저 그랬던 내가 계속 꾸지람만하고 무서운 이미지였던 아버지가 아들이 다치자 일하던 그 모습 그대로 병원에 뛰어와서 울먹이며 아들 앞에서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울컥해서 눈물을 흘릴 뻔 한 적도 있었다.

이 책을 읽음으로서 다시 한 번 아버지께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았다. 그리고 나를 격려해주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내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나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10대를 위한 재미있는 경제 동화”를 읽고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오윤아

우리 10대 청소년에게는 익숙하고 친숙한 듯 하면서도 아직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애매한 것이 경제이다. 그래서인지 청소년들을 위해 편찬한 경제 관련 서적이 많이 있으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제목에서부터 ‘재미있는, 쉬운’이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고 있는 한다. 하지만 그렇게 이름을 지어도 거부감이 들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제 정말 청소년을 위한 정말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가 나왔다.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 봤을 법한 친숙한 동화 7가지를 경제적인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경제개념과 경제활동을 대화글로 다시 한번 더 상기시켜주고 있다. 교과서에서 본 내용을 다뤄서인지 내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많이 나왔지만 책을 보면서 놀라고 말았다. 분명 교과서에는 이렇게 저렇게 딱딱하게 배웠지만 이 책에서는 그 내용을 너무나 부드럽게 풀어서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백설공주의 스타일과 마녀 스타일을 기업가 정신에 적용시켜 본 것이라든지 독사과의 제조비용 의문제기 라든지, 어려운 공공재나 공유자원도 농장을 비유해서 풀이 한 것 등이 그렇다.

이 책에서는 경제개념보다도 더 중요한 놓치면 안되는 메시지가 있다.

바로 ‘경제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다. 유리구두의 브랜드 가치는?, 돼지 삼형제의 목숨을 구해준 통나무 집의 현시세는?, 신데렐라가 주어진 기회와 선택에서 오는 비용은? 등등 참 신선하다. 즉,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 사고 방식을 기르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을 배움으로써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을 조금 더 경제적, 과학적으로 바라볼 때 더 합리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과연 경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책의 중간 부분에서 경제의 의미가 나오자 문득 이런 생각이 났다. 물론 경제학자나 연구소 종사자, 기업 경영자 이런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평범한 셀러리맨이나 서민들은 분명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개념을 저버리고 살아가기 일쑤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경제'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워 거부감이 들었다. '경제'를 떠올리면서 주요 뉴스 첫머리를 장식해 주던 어여쁜 앵커들의 무표정과 시위와 실업과 실직 등 그런 단어들 접한 까닭이기도 할 것이다. 발상의 전환이라고 했듯이 나 또한 경제 활동을 당당히 실천하는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서도 경제와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경제활동이 아닌 것이 없었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한 번 더 깊게 생각하고, 그 가치를 두어 열심히 익혀 가야겠다.



## 10대를 위한 재미있는 경제동화를 읽고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최미송

10대를 위한 경제동화, 이번에 주욱 둘러본 책 중에 가장 맘에 드는 제목이었다. 원래 약간은 경제 쪽에 관심이 있었기에, 별다른 부담과 거부감 없이 책을 접할 수 있었다.

몇 페이지 정도 읽어나가자 이 책을 선택하기를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제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서 읽기 쉽고 재미있는 책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이 책은 그런 걱정 없이 읽을 수 있었다. 조목조목 설명 되어져 있는 경제용어들이 이해를 도와주었고 우리에게 익숙한 동화 속 인물이 주인공인 만큼 친숙함을 느낄 수 있었다.

책 속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백설공주 경영자 되다.'였다. 성에서 내쫓긴 백설공주가 경제학을 제대로 배워서 왕비의 과일 회사에 대적한다는 얘기였는데 그 짝막하고 유쾌한 이야기 속에서 나는 공급량에 따라서 상품의 품질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야기 안에서는 왕비의 가게가 모든 공급을 책임지고 있을 때에는 과일(그러니까 상품)에서 벌레가 나오는 등 상품의 질에 문제가 많았다.

그러나 경쟁사인 백성공주의 과일 공장이 문을 열자 천천히 개선이 일어나고 있었다.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의 품질이 좋아졌고 가격도 낮아졌다. 잘 생각해 보니 이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와의 관련이 있는 것 같았다. 또 이 이야기가 끝날 때 쯤 왕비가 백설공주의 회사를 인수하려고 한다. 솔직히 그 부분을 볼 때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다. 경영에 대해서는 아는 부분이 전혀 없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다행이도 왕자가 나타나서 공주를 도와준다. 비록 동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낭만적인 도움(?)은 아니었지만 난 왕자가 공주의 기업을 도와주는 장면에서 어릴 적 동화 백설공주를 보면서 왕자님의 키스

장면에 가슴 두근거리던 그런 느낌을 받았다. 동화에서처럼 왕비가 처벌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에구, 네가 날 두 번 죽이는구나 흑흑”하는 왕비의 혼잣말은 약간 통쾌하면서도 왕비가 조금 불쌍해 보이기도 했었다. 왕비가 망가진 이유는 뭐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이 책에는 백설공주 이야기 말고도 잭과 콩나무, 럼플십스킨, 80일간의 세계일주 등의 유명한 이야기를 패러디해놓은 재미있는 경제동화들이 많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전보다 더 넓고 풍부해진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었다. 내 또래의 아이들이 읽기엔 전혀 무리가 없는 좋은 책이다. 아직 확실한 경제관념이 잡혀있지 않은 많은 친구들에게 추천해 주고픈 책이었다.



## ‘악동 테리에’ 를 읽고



동남고등학교 1학년  
이하은

서로 비밀을 마음 놓고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큰 선물이고 모든 사람들은 그 선물이 자신에게도 있기를 바란다. 첫 인상이 좋지 않았던 테리에가 짐의 옆자리가 된 것이 자신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는 걸 짐을 알고 있었을까? 몸집은 거대하고 한 걸음씩 걸을 때 마다 불살이 덜렁거리 마치 불독을 연상시키는 테리에가 짐의 반으로 전학을 오고 짐의 옆자리가 되는 것으로 소설은 시작된다.

짐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엄마의 한숨에 아파하고 그러한 엄마에게 배려하는 성숙한 아이 같지만 집에서 하루종일 아무도 만나지 않고 침대에만 누워있는 엄마 때문에 집에 있기 힘들 때마다 자신의 아지트인 바닷가 벙커로 가서 몰래 레고 놀이를 하는 어린 아이다. 짐에게 있어서 유일한 안식처이자 도피처인 아지트가 어느 날 전학생 테리에에게 빼앗기게 된다. 다시 아지트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 과정속에서 친구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하고 손해 보는 일을 피하려고 하는 쿠르트와 로게르와는 달리 테리에의 우정은 절대 계산적이고 이기적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느 새 짐과 테리에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결국엔 짐은 자신의 안식처인 벙커를 되찾지 못하지만 친구 테리에라는 다른 안식처를 찾게 된다. 공동의 아픔을 가지고 점점 가까워지고, 술만 먹으면 난폭해지는 테리에의 아빠와 술먹은 남자를 무서워하는 짐의 엄마를 이어주려는 둘은 계획을 세우면서 짐과 테리에의 성장이야기는 끝이 난다.

이 소설에서 부모와의 갈등, 친구와의 우정, 믿었던 우정의 배신 등 고통을 겪어 나가는 짐과 테리에의 성장기는 누구나 겪어보고 또 난 그 과정에 있기도 해서 친근하게 읽었던 것 같다.

글을 읽으면서 짐과 테리에가 자신들이 겪는 아픔들로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깝다고 느꼈지만 내가 지금까지 성장해왔던 시간들과 현재의 성장을 바라보니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아픔을 겪고 그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씩 깨달아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성장통을 짐과 테리에는 함께 했다는 것에 부러움을 느꼈다. 순수한 마음 그 하나만으로 서로 비밀과 아픔들을 공유하며 위로해주는 진정한 친구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짐은 뜻하지 않게 테리에라는 모든 사람들이 탐내는 선물을 가진 것이다.

전혀 평범하지않은 짐과 테리에의 우정이야기에서 내뿜는 그 무엇가로 인해서 나는 책을 읽을수록 의미가 특별해 짐을 느낄 수 있었다.



## 모화와 육이



동남고등학교 2학년  
이제윤

무녀도는 무속과 신령을 믿는 어머니와 기독교를 믿는 아들 간의 갈등을 그려낸 소설이다. 무당인 모화는 아들 육이를 절간으로 보내고 남편은 외지에서 일하기 때문에 귀머거리 딸인 낭이와 함께 도깨비소굴 같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몇 년이 지나 아들 육이가 돌아왔을 때 모화는 기뻐서 울기까지 했다. 하지만 육이가 식전에 하느님에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고 불도에도 그런 것이 있냐고 물었다. 이것을 계기로 육이는 낭이와 모화에게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되고, 모화는 육이가 그 동안 절간에 있지 않고 기독교에 귀의하여 살아온 것을 알게 된다. 그 후 모화는 아들에게 귀신이 붙었다고 여겨 주문을 외웠다. 그리고 육이도 육이 나름대로 어머니에게 귀신이 붙었다고 걱정하여 기도를 했다. 그리고 육이는 그를 먹이고 입혀준 목사에게 청하여 경주에도 교회를 세워달라고 청했다. 어느 날 밤, 평소대로 성경을 품에 안고 자던 육이가 허전함을 느껴 일어났을 때 그의 가슴에는 성경이 없었다. 모화가 성경을 가져가서 주문을 외우며 태우고 있었다. 육이가 이에 놀라 어머니를 저지하려고 했을 때, 모화는 육이를 예수 귀신으로 보고 손에 쥐고 있던 식칼로 육이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 인해 육이는 세 곳에 상처를 입게 되고 앓아누웠다. 모화는 아들을 위해 간호하고 주문을 외웠다. 이 사이에 마을에는 교회가 들어서게 되고 마을 사람들은 신기함과 호기심으로 교회를 다니게 된다. 이로 인해 기독교는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씩 전파되었다. 이와 반대로 마을에 자리 잡고 있던 무술적 권위는 점차 쇠퇴하게 된다. 육이의 건강상태가 나빠졌을 때 현 목사가 찾아왔다. 성경을 사달라는 육이의 청에 목사는 자신의 가방에 있던 성경을 기꺼이 주었고 육이는 기뻐하며 하느님의 품으로 떠나버린다. 모화는 육이의 영혼을 예수 귀신이 데리고 간 것이라고 여겨 매일 교회를 저주하고 주문을 외웠다. 그러는 사이에

마을에서 모화는 굿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는다. 모화는 이 굿을 통해 원혼의 풀이 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 낭이의 입을 열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모화는 평소보다 더 신기 어린 자태를 지니며 굿에 임하였다. 그녀는 그날 밤 죽은 여인의 혼을 건지기 위해 그 여인이 빠져 죽은 못으로 들어가 사라진다. 굿이 끝나자 모화가 죽고 낭이는 입을 열게 되었다. 마을로 돌아온 낭이의 아버지는 낭이를 데리고 길을 떠나는 것으로 소설이 끝난다.

이 소설은 어머니와 아들의 대립 속에서 전통문화와 외래문화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한국적인 것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경시되어왔다.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 또 외래 문화를 받아들일 때 무조건적인 수용은 위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는 요소들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너무 추종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이후에 우리의 문화에 외래의 문화를 접목하여 또 다른 우리의 문화를 창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세계화를 위한 온고지신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 「10대를 위한 재미있는 경제동화」를 읽고



동남고등학교 2학년  
송민호

경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서야 처음으로 접해 본 교과 과목이다. 1학년 때 일반 사회에서 조금 배우긴 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깊이 있게 배우게 된 것은 2학년이 되고 나서이다.

비교우위, 생산요소, 독점, 과점, 자유경쟁시장, 계획경제체제 등 처음에 이러한 경제 용어들을 익히는데 많은 어려움과 노력들이 필요했다. 처음에 경제교과서를 보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떤지 우리나라는 어떠한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배워보고 싶었지만 막상 수업을 하고 배워 갈수록 수많은 경제 용어들을 익히는데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렇지만 도서관에서 이 책이 나의 눈길을 끌었다. ‘10대를 위한 재미있는 경제 동화’ 경제가 따분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나에게는 흥미로운 책이 아닐 수 없었다.

책을 펴고 조금씩 읽어 나갈 때마다 더욱 더 빠져들었다. 자칫하면 어렵고 답답하게만 느껴질 수 있는 경제용어들이 쉽게 풀어서 설명 되어있었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쉬운 예를 들어서 간략하고도 쉽게 이해를 도왔다. 또한 10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누구나 알고 있는 동화 속 주인공들을 등장시켜서 거부감 없이 책을 읽을 수 있었다. 처음에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고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운 내용일까봐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책을 읽을수록 이러한 부담감들이 조금씩 해소 되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퍼그 세자매와 늑대신사’라는 이야기였는데 세 자매가 도시로 진출하여 한 집에서 같이 지내다가 불편함을 느껴서 부동산 업계에서 알아주는 어떤 정보든지 다 알고 있는 늑대 신사를 통하여 집을 사게 되는데 자매 중 두 명은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게 크고 화려한 집을 사서 어려움을 겪고 나머지 한 명을 두 자매보다

화려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집을 구입하였지만 재테크 가치가 있고 자신이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집을 구입하여 혼자 성공하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시장경제의 논리와 정보의 수요 등 많은 경제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는데 교과수업시간에 접하긴 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한편 읽음으로 인하여 이해가 쉽고 빠르게 되었다.

이 책의 또 한가지 장점은 이야기 뒤에 경제용어에 대한 설명을 돕기 위하여 이야기 속 인물들을 등장시켜 경제 용어들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다. 이야기를 읽고 나서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독자들을 위한 글쓴이의 배려가 느껴졌다. 경제에 대해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와 같은 10대 청소년들에게 권하고 싶다. 또한 책의 분량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시간이 부족한 고등학생들도 쉬는 시간이나 잠깐 짬을 내서 읽어도 금새 읽을 수 있는 정도여서 부담스럽지 않다는 점도 이 책의 매력이다.

경제가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진다면 이 책을 한번 접해보는 것이 어떨까?

비록 경제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글쓴이의 많은 배려가 담겨져 있다.

지금 막 경제를 접하기 시작한 고등학생 독자뿐만 아니라 경제를 배우거나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읽기에도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좋은 도서이다. 경제...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 수박과 같은 무녀도



동남고등학교 2학년  
이은샘

‘무녀도’는 내가 중학교 때 읽었던 책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다. 이 작품은 무녀도라는 그림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준다. 무녀인 모화는 딸 낭이와 함께 ‘도깨비굴 같이 낚고 혈린 집’에 살았다. 낭이의 아버지는 봄가을 다녀갈 뿐이었다. 그런데 오랫동안 안 소식이 끊겼던 아들 육이가 돌연 예수꾼이 되어 나타났다. 모화는 하느님을 믿어야 하며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하는 아들이 귀신에게 홀렸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모화는 성경책을 불사르고 그를 말리던 육이는 모화가 휘두르는 칼에 상처를 입는다. 모화는 육이를 정성껏 간호하지만 육이는 현목사를 만나고 결국 성경책을 안고 죽는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실의에 빠진 모화는 마지막 굿을 벌인다. 이번 굿에서 모화가 부자 집 며느리의 혼백을 건지고 낭이의 입도 열게 할 것이라고들 했다. 하지만 모화는 혼백을 부르다가 물속에 아주 잠겨버렸다. 며칠 후 낭이의 아버지가 왔을 때 낭이는 ‘아버지’라고 소리를 내어 부른다.

마지막 굿 때문인지 말 못하던 낭이가 말을 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낭이는 ‘도깨비굴 같이 낚고 혈린 집’을 떠난다. 이러한 비교적 짧은 내용의 한국 대표단편 작품이다. 샤머니즘과 그리스도교의 갈등이 있는 이 작품은 토속신앙과 그리스도교 신앙이 대립하고 시간이 지나 갈등은 심화되어 모화가 칼을 들고 춤을 추고 육이를 치려 하며 결국에는 모화가 죽음을 맞는 비극적인 결말을 만든다. 이 작품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과 깊숙한 곳에 숨겨진 내용이 있다. 바로 한국 토속신앙의 폐퇴이다. 겉으로 보이는 내용은 어머니와 아들 간의 갈등이지만 숨겨진 내용은 토속신앙과 그리스도교의 거룩적인 종교갈등인 것이다. 모화의 죽음은 토속신앙의 폐퇴를 말해주는 것 같고, 교회가 설립되는 것을 보아 육이의 죽음은 모화와는 다른 것 같다. 이 작품은 극단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예를 들면 아들에게 칼을 대는 모화의 모습. 이처럼 극단적인 상황과 성경책을 인용한 작가의 표현법은 놀라움을 자아낸다. 이 작품은 거부 할 수 없는 운명적인 삶을 가진 인물들의 이야기로써 나에게는 많은 생각을 갖게 해줬다. '김동리' 작가는 정말로 이러한 작품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놀랍다.

현대소설에서 느낄 수 있는 종교 갈등에 논리적인 계산 또한 내게 한국단편소설에 또 다른 면을 알게 되는 것 같았다. '무녀도'라는 작품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속이 짝찬 수박같은 작품이다. 겉은 검정색과 초록색에 모자 간에 갈등이지만 속은 붉고 격렬한 종교적 갈등이라는 점과 작품 속에 나타나는 멋진 작가의 표현법이 있기에 나는 '무녀도'를 수박과 같다고 말하고 싶다.



## 아름다운 마무리를 읽고(법정)



포천시 일동면  
박경자

열네살에 시집을 온 아이가 있었다. 두 살을 더 먹은 사내아이를 앞에 두고 신랑이라 하고, 각시라 했단다. 학교도 모르고, 나들이도 모르고, 산골에서 그저 밥하고, 동생 돌보다가 일본군이 처녀들을 잡아 간다는 송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등 떠밀려 탄 가마에 종일 흔들리다가 내린 뉘 집 마당이 첫나들이였고, 시집이었던단다.

어디로 어떻게 왔는지 길을 몰라 되돌아 갈 수도 없고....

구석자리 찾아 울고 있으면 수줍은 사내아이가 와서 공기놀이도 해주고, 글도 가르쳐 주고... 그렇게 그렇게 동무처럼 자라다가\_\_\_\_. 광복이 되고, 첫아이가 생기고, 6.25가 일어나고\_\_\_\_. 부모가 죽고, 첫아이가 죽고... 손가락이 퍼지지 않는 추위에 초근목피로 위태하게 이어가던 목숨. 그 사내아이가 죽은 인민군의 벗겨온 옷으로 보냈던 하루가 68년을 함께 보내게 됐단다.

팔십 둘이 된 할머니는 혼자서는 어찌지 못하는 와상의 환자가 되었다. 허리가 절반이 굽은 할아버지가 떠 먹여 주는데로, 입혀 주는데로 서로를 알아보는 또렷한 정신을 연신 서로 “고맙다”말하며 살았다. 할아버지의 힘겨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자식들이 시설 좋은 요양원에 할머니를 보내셨다

할머니는 그곳에서 날마다 울고, 할아버진 집에서 날마다 한숨지었다. 먼 길의 요양원을 겨울 칼바람 맞으며 하루도 빠짐없이 버스타고 출퇴근을 했고, 돌아오는 길엔 늘 목메어 했다. 결국 석달을 억지로 채우고 다시 집으로 돌아 온 할머니를 전보다 더 살갑게 할아버진 보살폈다. “결혼 70주년에 잔치하자”는 할아버지의 꿈을 같이 꾸었다.

할머니는 평생 꽃을 좋아했다. 꽃을 좋아하면 외로워진다고 할아버지는 그다지 반기지 않았다. 그날은....., 마당에 핀 봄 꽃 들을 작은 화분에 옮겨 심어 할머니가 내다보

는 창가가 비좁도록 채워 주었다. 그리고 작별인사도 없이 긴 낮잠으로 아주 먼 나라로 가셨다.

할머니는 꽃을 보고 운다. 아직도 2년을 못 채운 약속의 시간이 남아 있다며 이제야 할아버지를 나무란다. 꽃을 보면서...

나는 그런 애뜻한 사연의 봄날을 겪으며, 발견한 이 “아름다운 마무리”란 제목의 책에 당연히 관심이 갈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한구절 한구절 법문 같은 법정스님의 글이니 말이다.

결혼 20년도 못 채운 우리 부부는 삐걱삐걱 참 여러 소리를 낸다. 밝고 순하게 잘 자라는 아이들에게도 자꾸 무어라 주문하여 소리 내게 만든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는 소리다. 부모의, 어른들의 욕심이 훨씬 크다. 우리네 일상은 막연함에 대한 욕구와 불만과 기대차로 어떤 때는 왜? 소리를 높이는지도

왜? 높아진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언성을 높이며 조급증에 시달린다. 너무 앞서 가려고 모두가 아우성이다. 내일이 기약되지 않는 혼미한 사회에서 그런 만큼 더 항상 아름다운 마무리를 염두에 두고 처신해야 될 요즘인데 말이다. 혼잡한 교통, 무너지는 공사장, 가스 폭발, 화재, 비행기 추락.... 이런 중에 내일 내가 건강하게 살아 남아 있으리란 보장을 누가 하겠는가! 손 안의 모래알이 빠져 나가듯이 막연한 미래에 대해 조금 느슨해 지고 마주보는 가족에게 할머니처럼 먼저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한다면, 또한 법정스님의 말씀처럼 “삶은 소유가 아니라.....<중략>....순간 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에 근접 할 수 있지 않을까!

남편 ‘이라기보다는 평생 동무 잃음에 대한 믿기지 않음에도 모진소리 주고받은 적 없는 근 70여년의 세월이라 달리 애달플걸 없었다. 다만 “와상의 나를 먼저 보내고, 하루라도 맘 편히 자고 하루라도 휘적휘적 돌아보고 떠나지...”라며 말씀하시는 할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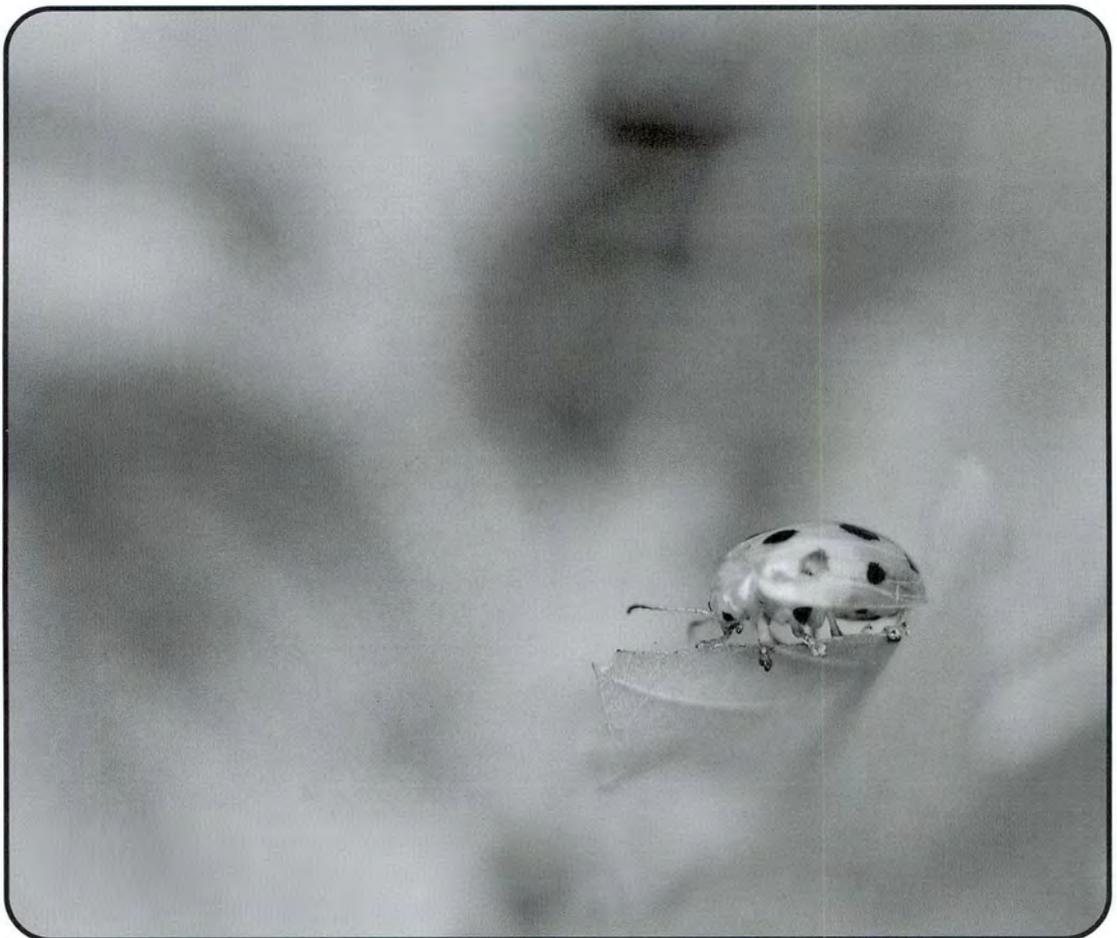
꼭 생의 끝 즈음을 위한 마무리가 아니어도 하루하루를 곱게 마무리 하여 간다면 30년쯤 지나면 나도 담담 해 질 수 있겠지. 마음이란 것이 어찌나 가벼운지 지나는 말, 이웃의 말, 메스컴의 홍수에 노출되어 얇은 두께로 휘청일 때마다 스스로 부끄럽게 여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런 중에 이렇게 좋은 글로 부끄러움도 일깨워 주시고, 반성도 하게 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다. 속인이 그냥 쳐다보는 고목에 ‘그분’이라 칭하시는 겸허함을 알게 해 주시고, 천지신명께 두 손 모으는 일을 ‘원초적 순수 신앙심’으로 격상 시켜 주시니 책을 읽으면서 속죄 받는 느낌이 든다. 조금 낮은 목소리, 조금 느슨한 행동, 너무 미리 앞당겨 하는 고민 등등 그런 중에 어른다운 중심잡기가 되는 지침을 정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순간순간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09 제23회 반월문화제

# 심사평

백일장 · 사생 · 서예 · 사진촬영대회 · 좋은책읽기



## 백일장 심사평

대지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봄소식을 느끼게 하는 계절,

새 생명이 솟아나는 좋은 계절에 유치원 어린이들로부터 일반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참여리에 개최된 백일장에 제출된 수준 높은 작품이 많음에 흐뭇한 느낌을 감출 수 없다.

회를 거듭할 수록 참여도가 높고 작품 수준이 향상하여 높아지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바이다.

특히 초등부 어린이의 산문에서 편지 형식으로 전개하면서 보이지 않는 대상에게 직접 대화하는 식으로 실감나게 표현해 나아가는 구성 전개가 인상적이었다.

운문에서 “솟아 오른다 굳세게 솟아 오른다 새 생명이 용트림으로 솟아 오른다” 와 같이 점층적 반복법의 구사가 대견스럽고 칭찬받기에 족함을 느꼈다.

중등부의 산문에서 일기 형식의 전개로 자신의 얘기를 심도 있고 진지하게 이끌어 가는 전개방식이 세련되어 칭찬하는 바이다.

운문에서 외쳐도 소리 높여 불러도 또 불러도 응답 전혀 없는 무반향의 공간을 설정하고 그 허공에 향하여 절규하는 처절하고 간곡한 그리움의 심정을 드러낸 점은 고도의 문학성 표출로 보아 칭찬하는 바이다.

고등부와 일반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게 되며 제출된 작품의 높은 수준에서 그만큼 많이 읽고 써본 흔적을 읽을 수 있었다.

관내에서 가장 크고 비중 있는 반월문화제 본행사의 백일장의 성황에 자부심을 느끼며 내년 대회에는 더 많은 참여를 기대하며 꾸준히 읽으시고 쓰기에 매진하시기 바란다.

심사위원장 양윤택

심사위원 이석구, 이중희, 이원용, 강현남

## 사생대회 심사평

올해도 날씨의 맑고 흐림을 걱정하면서도 대회는 스물세 번째를 맞았다.

봄의 그림이 더욱 아름다운 것은 겨우내 감춰졌던 빛이 살아나기 때문이 아닐까?

시작이 날씨로 조금 걱정스러웠지만 점차 회복되어 봄의 빛을 찾아서 다행이었다.

행사에 다소 참가자가 적은 것은 이 기간이 학교의 행사들과 겹쳐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됐다. 그러나 참가자 모두가 열심히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포천미술, 예술발전에 참으로 고무적인 장면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미술실기대회에는 여러 분야의 종목이 있는데 학생들의 경험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매년 한 종목씩 바뀌가며 참가하면 어떻게 생각해 보았다(예를 들면 1학년 때는 사생, 2학년 때는 구성, 3학년 때는 판화 등)

-유치부는 참가자가 특히 적었으며 평년수준의 작품이었다. 그리기 지도를 받은 그림이 확실히 눈에 띄었다.

-초등부 저학년부는 19명의 특선 이상 작품이 뽑힌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제일 많이 참가하여 좋은 그림을 내주었다. 그러나 아직도 유치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그림도 있었다.

-초등부 고학년부는 실기용지가 커짐에 따라(8절에서 4절 도화용지) 많은 부담이 있었던 듯, 구도와 완성도가 떨어진 작품이 많았다.

-중고등부, 매년 지적되는 참가자 수가 적은 것은 여전했지만 소수정예라고 할까, 충분히 기량을 펼친 작품이 여러 분야에서 나왔다 그 중 동남고등학교 1학년 이세은 학생의 작품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일반부, 참가자 수가 매우 적었고(7명) 좀 더 연마하여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여 주길 기대한다.

그림그리기는 창의력을 바탕으로 이를 표현하기위한 기능이 필히 갖춰져 있어야 한다. 당연히 전문적인 지도를 받으며 수많은 연습을 통하여 준비한 사람들이 잘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러나 수상을 목적으로 어른이나 지도교사의 손이 탄 작품으로 보

이는 그림이 눈에 띈었다.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창의력을 망치고 의지력이 약한 어린이, 학생으로 키우려거든 욕심을 내시라. 흔히 드는 예로 고기를 잡아 줄 것이 아니라 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라는 진리도 미술현장에 살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끝으로 수상작의 선정에 있어서 시상품의 한계 때문에 더 많이 뽑지 못했음을 언제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아직도 웬만하면 다 상주고 싶은 심사위원들의 심사소감이었음을 밝혀둔다.

심사위원장 황행일

심사위원 홍명진, 김계영



## 서예대회 심사평

먼저 서예대회에 참가한 학서자들에게 당락을 떠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미리 고지된 서체의 '오자'로 인하여 혼란을 가져온 점에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예년에 비해 중·고등부의 참가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안타까웠지만, 반면 일반부는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 붓을 잡은 한 사람으로 뿌듯합니다.

대회 횟수에 비하여 나아지는 모습이 부족한 듯하여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서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이하학적으로 볼 때, 붓과 먹을 다루는 기교라 했지요. 서예의 묘미가 필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묵을 사용하는 법에 따라 작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참가자 대부분이 숙지하지 못하여 묵의 조화를 이루지 못해 효과가 상한 것이 많았던 것 같아 첨언을 해보면서 차후 염두에 두시어 평소에도 그리 연습하시기를 적극 권해봅니다.

한편 글감의 다양함과 서체의 다양함을 위해서라도 전국회화대회처럼 자유명제를 제시하면 참여 인원도, 작품의 질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되어 제안을 해봅니다.

다시 한 번 참가자들에게 더욱더 즐기찬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장 박재교

심사위원 이병찬, 최영진

## 사진촬영대회 심사평

2009년 반월문화제 사진부문은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퇴조한 모습을 보였다.

일반부의 참여율은 증가했으나 그외 부문은 모두 급감하는 양상을 띠었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질적인 면에서도 눈에 띄는 수준작이 없는 등 질과 양 모든 면에서 현격한 퇴조를 보인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선뜻 한 눈에 띄는 빼어난 작품들이 출품자의 원작인지의 진위 여부를 떠나 해마다 한 두점 씩은 있었으나 올해는 그러한 사진들이 한 점도 없었다는 점에서 혹여 이것이 반월문화제 사진부문의 전반적인 퇴조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이 점이 올 사진부문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였음을 밝힌다. 아울러 또 다른 특징으로는 작품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하향곡선을 띠고 있다고 하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대회를 치루면서 작품의 수준이 떨어진 해는 올해가 처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수한 작품들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출품작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배경 처리가 미숙한 점은 그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초, 중, 고, 일반부 등 모든 부문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현상이었다. 사진을 찍을 때 조금만 주의를 하고, 배경을 잘 선택해서 주제를 잡고, 그 주제가 돋보일 수 있도록 해야하는 제일 첫 번째 사항이 바로 배경 처리 문제다. 뒷 배경이 어수선해서는 결코 좋은 작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배경이 깔끔하게 잘 처리된 사진들은 언제나 눈에 띄게 마련이다. 불필요한 요소들이 배경에 자리잡고 있는 상태 그대로 사진을 찍으면서 그 사진이 훌륭한 사진이기를 바란다면 정말 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강조를 하는 바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좋은 사진을 얻는 첩경임을 이번 사진 심사를 통해 새삼 피부로 느끼게 된다. 내년 작품들에선 이런 작은 문제들이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으면 하는 큰 기대와 바람

을 가져본다.

올해의 사진 심사평은 각 부문별로 해왔던 기존의 방식을 접고 전체적인 면을 간단히 기술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부디 내년도에는 사진 부문에 참석하는 모든 참가자들이 모두 심기일전하여 우수한 작품을 무수히 쏟아내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심사평을 마친다.

심사위원장 이규준  
심사위원 강돈희



## 좋은책읽기 독후감 심사평

독후감 쓰기는 연중 상·하반기로 실시하는 행사이기에 백일장 대회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각자의 나름대로 여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계획성 있게 글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마련이다.

한권의 책을 읽고 자기 나름대로 실화처럼 소화하여 주관적인 사실로 그려낸 기법이 있고 줄거리를 요약하고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기법의 두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어느 방법이든 자기 자신이 작품 속에 빠져 드는 식으로 제법 감상문적인 표현의 글을 보면서 대견스러움을 느꼈다.

중·고등부 학생들의 글은 훨씬 세련되고 전개 방법이 짜임새가 있어서 보는 이들이 함께 빠져들게 하는 글이 많았다.

작품속의 사건이나 인물에 대하여 비평하고 자신과 비교도 하면서 보다 넓은 상상과 관찰을 통해 자신이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건들을 간접체험에서 깨닫는 모습에서 한 단계 성숙해지는 의식세계를 그려내는 것을 볼 때 훨씬 어른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

많이 읽고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의 양식도 풍부해지고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니 독서를 습관화하는 사람이 되기를 당부 드린다.

독후감 쓰기 지도에 높은 관심으로 협조해 주신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과 지도교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심사위원 양윤택, 이석구



# 입상자명단



## 백일장 입상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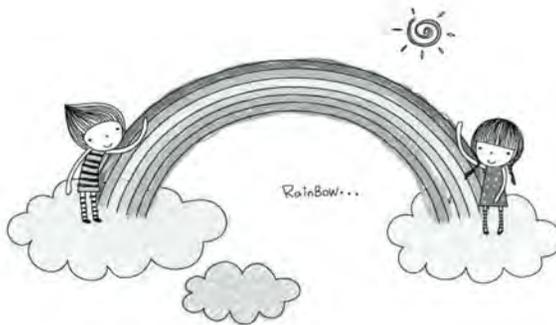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명	학교(소속)명	학년
운문	초등부	장원	조민재	추산초등학교	6학년
		차상	설수연	일동초등학교	3학년
		차상	이연빈	추산초등학교	3학년
		차하	강성은	추산초등학교	5학년
		차하	정영은	포천초등학교	4학년
		차하	김예림	일동초등학교	5학년
		장려	한시원	송우초등학교	3학년
		장려	한선용	가산초등학교	4학년
		장려	김수연	포천초등학교	4학년
		장려	이수민	화현초등학교	5학년
		장려	강기웅	추산초등학교	3학년
		장려	이상윤	영북초등학교	5학년
		장려	이수연	내촌초등학교	1학년
		장려	박진영	추산초등학교	6학년
		장려	박나은	포천초등학교	3학년
		장려	이찬영	중리초등학교	6학년
		장려	이지은	송우초등학교	6학년
		입선	이지연	포천초등학교	6학년
		입선	엄태호	신봉초등학교	2학년
		입선	이채영	송우초등학교	3학년
		입선	김선빈	유암초등학교	5학년
		입선	정지혁	태봉초등학교	4학년
		입선	이현경	중리초등학교	5학년
		입선	윤지훈	유암초등학교	5학년
입선	이다애	송우초등학교	6학년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명	학교(소속)명	학년
운문	초등부	입선	이규진	송우초등학교	6학년
		입선	공민정	포천초등학교	2학년
		입선	이은지	영중초등학교	2학년
		입선	김예진	선단초등학교	2학년
		입선	김준호	추산초등학교	6학년
		입선	이상경	태봉초등학교	6학년
		입선	최지원	외북초등학교	5학년
		입선	이근비	태봉초등학교	5학년
		입선	나은선	신북초등학교	6학년
		입선	이제희	태봉초등학교	6학년
		입선	김유진	선단초등학교	6학년
		입선	한승연	선단초등학교	6학년
		입선	조우영	추산초등학교	4학년
		입선	장석영	태봉초등학교	6학년
	중등부	장원	신승희	영중중학교	2학년
		차상	박기영	포천여중학교	3학년
		차상	이소정	동남중학교	3학년
		차하	최현아	포천여중학교	2학년
		차하	함지훈	포천중학교	3학년
		차하	윤솔아	포천여중학교	3학년
		장려	김미지	포천여중학교	1학년
		장려	양민지	동남중학교	3학년
		장려	김유림	포천여중학교	3학년
		장려	이윤희	포천여중학교	3학년
		장려	김승윤	포천중학교	3학년
		장려	황하니	포천여중학교	2학년
장려	한진솔	송우중학교	1학년		
장려	마상조	포천중학교	1학년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명	학교(소속)명	학년
운문	중등부	장려	김채현	동남중학교	1학년
		장려	마주희	포천여중학교	2학년
		입선	이초화	포천여중학교	1학년
		입선	김다슬	포천여중학교	1학년
		입선	정선경	갈월중학교	1학년
		입선	김지은	이동중학교	2학년
		입선	이현민	포천여중학교	1학년
		입선	황지연	포천여중학교	1학년
		입선	박지혜	대경중학교	1학년
		입선	신혜빈	관인중학교	2학년
		입선	김하영	대경중학교	2학년
		입선	김현지	포천여중학교	3학년
		입선	김태윤	포천중학교	3학년
		입선	이세권	포천중학교	3학년
		입선	박수환	포천중학교	3학년
		입선	김비율	포천중학교	3학년
		입선	정새결	포천중학교	3학년
		입선	최지현	포천여중학교	3학년
		입선	김용운	포천중학교	3학년
		입선	김효빈	포천여중학교	3학년
		입선	이소영	내촌중학교	3학년
	입선	백충환	포천중학교	3학년	
	고등부	차하	김도희	동남고등학교	1학년
		차하	이현주	동남고등학교	1학년
		입선	고경종	포천일고등학교	3학년
		입선	최나현	포천고등학교	1학년
	일반부	차하	김미현	포천시 신읍동	
		장려	최정현	포천시 소흘읍	
		입선	이진복	포천시 영중면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명	학교(소속)명	학년
산문	초등부	장원	송정민	태봉초등학교	3학년
		차상	김나영	신봉초등학교	4학년
		차상	이아연	태봉초등학교	3학년
		차하	정태경	포천초등학교	6학년
		차하	김수빈	이곡초등학교	5학년
		장려	정지수	영북초등학교	6학년
		장려	최소원	태봉초등학교	2학년
		장려	조수미	왕방초등학교	4학년
		장려	황재민	왕방초등학교	4학년
		장려	이은주	영중초등학교	5학년
		입선	박현지	영북초등학교	5학년
		입선	김민준	송우초등학교	5학년
		입선	유소영	태봉초등학교	5학년
		입선	이송희	포천초등학교	6학년
		입선	남혜원	일동초등학교	6학년
		입선	최형란	신북초등학교	6학년
		입선	전소라	신북초등학교	6학년
		입선	김수현	중리초등학교	3학년
		입선	이선민	영북초등학교	6학년
	입선	한솔희	신북초등학교	5학년	
	중등부	장원	엄혜민	포천여중학교	1학년
		차상	한금상	포천중학교	2학년
		차상	손소원	대경중학교	1학년
		차하	남지유	포천여중학교	1학년
		차하	최다원	포천여중학교	2학년
		장려	김지영	갈월중학교	1학년
		장려	조소윤	포천여중학교	2학년
		장려	최현진	포천여중학교	3학년
		입선	최윤주	내촌중학교	2학년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명	학교(소속)명	학년
산문	중등부	입선	김지윤	포천여중학교	2학년
		입선	김가영	포천여중학교	1학년
		입선	김소영	포천여중학교	2학년
		입선	정태성	내촌중학교	3학년
	고등부	장원	이해영	송우고등학교	3학년
		차상	오두송	동남고등학교	1학년
		차하	최수정	포천일고등학교	3학년
		입선	권려진	포천고등학교	2학년
		입선	김솔님	포천고등학교	2학년
	일반부	차상	김영순	포천시 소흘읍	
		차하	한희영	포천시 소흘읍	
		장려	이혜정	포천시 소흘읍	
		입선	서선례	포천시 신읍동	



## 사생대회 입상자 명단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명	학교(소속)명	학년
상상화	유치부	최우수	장재용	연세어린이집	
		우수	김은진	양문어린이집	
		우수	송윤주	세화유치원	
		특선	정원빈	자연과동화어린이집	
		특선	이수인	자연과동화어린이집	
		특선	김지연	키즈아트미술학원	
		입선	정향우	동심유치원	
		입선	안현민	동심유치원	
		입선	최연호	태봉초 병설유치원	
		입선	심가연	송우초 병설유치원	
		입선	김정선	포스트창조미술학원	
		입선	김연지	파란나라어린이집	
		입선	배효민	차니유치원	
		입선	김영경	중리초 병설유치원	
		입선	나아연	자연과동화어린이집	
		입선	장재우	파란나라어린이집	
		입선	최희재	공룡나라어린이집	
		입선	양혜미	원암어린이집	
		입선	이경재	동심유치원	
		입선	이기영	일동초 병설유치원	
		입선	이수연	화현초 병설유치원	
		입선	백가은	차니유치원	
		입선	신용현	송우어린이집	
입선	이정은	세화유치원			
입선	지예인	미래예능어린이집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명	학교(소속)명	학년
상상화	유치부	입선	김찬구	자니유치원	
		입선	이민주	미래예능어린이집	
		입선	안채원	미래예능어린이집	
		입선	김다은	자연과동화어린이집	
		입선	양하영	자연과동화어린이집	
		입선	김민준	신북초 병설유치원	
		입선	최정우	자니유치원	
		입선	현진환	자니유치원	
		입선	한금정	다모아미술학원	
		입선	김민주	송우어린이집	
		입선	김민서	파란나라어린이집	
		입선	김재원	파란나라어린이집	
		입선	정예린	파란나라어린이집	
	초등부 저학년	최우수	이지원	태봉초등학교	1학년
		우수	임문섭	신봉초등학교	2학년
		우수	손기원	송우초등학교	1학년
		우수	유제혁	이곡초등학교	3학년
		특선	이선용	태봉초등학교	2학년
		특선	장채린	선단초등학교	2학년
		특선	이선아	추산초등학교	2학년
		특선	정하은	태봉초등학교	1학년
		특선	이민주	추산초등학교	3학년
		특선	구하늘	송우초등학교	3학년
		특선	송광호	가산초등학교	1학년
		특선	김채린	신봉초등학교	1학년
특선	이준	포천초등학교	1학년		
특선	이윤지	태봉초등학교	3학년		
특선	박상욱	왕방초등학교	2학년		
특선	임주원	추산초등학교	2학년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명	학교(소속)명	학년
상상화	초등부 저학년	특선	이유민	태봉초등학교	2학년
		특선	김민석	포천초등학교	2학년
		특선	한예진	청성초등학교	3학년
		입선	박찬희	신봉초등학교	1학년
		입선	김정원	태봉초등학교	1학년
		입선	최희찬	포천초등학교	1학년
		입선	신경호	태봉초등학교	1학년
		입선	이대경	추산초등학교	1학년
		입선	이유민	정교초등학교	1학년
		입선	홍지수	태봉초등학교	1학년
		입선	배재민	일동초등학교	1학년
		입선	조영미	송우초등학교	1학년
		입선	최인효	왕방초등학교	1학년
		입선	최영은	신북초등학교	1학년
		입선	김가영	영중초등학교	1학년
		입선	한광희	포천초등학교	1학년
		입선	윤혜원	외북초등학교	1학년
		입선	이승헌	송우초등학교	1학년
		입선	박혜은	태봉초등학교	1학년
		입선	백은빈	태봉초등학교	1학년
		입선	유제은	이곡초등학교	1학년
		입선	한도희	신북초등학교	1학년
		입선	배지원	송우초등학교	1학년
		입선	이은영	태봉초등학교	1학년
		입선	손유진	추산초등학교	1학년
		입선	장다은	일동초등학교	1학년
		입선	이에인	태봉초등학교	1학년
		입선	김대현	태봉초등학교	1학년
입선	이에진	태봉초등학교	1학년		

| 입상자명단 사생부문 |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명	학교(소속)명	학년
상상화	초등부 저학년	입선	김민서	신북초등학교	1학년
		입선	김혜민	왕방초등학교	1학년
		입선	양하민	추산초등학교	1학년
		입선	이소연	포천초등학교	1학년
		입선	최효진	신북초등학교	1학년
		입선	유준희	이곡초등학교	1학년
		입선	박보경	신봉초등학교	1학년
		입선	최예슬	태봉초등학교	1학년
		입선	원민재	송우초등학교	1학년
		입선	이현진	포천초등학교	1학년
		입선	여찬민	태봉초등학교	1학년
		입선	김은희	추산초등학교	1학년
		입선	김찬학	송우초등학교	2학년
		입선	김채연	왕방초등학교	2학년
		입선	최민숙	포천초등학교	2학년
		입선	백은비	포천초등학교	2학년
		입선	윤준영	왕방초등학교	2학년
		입선	박선영	태봉초등학교	2학년
		입선	최민지	포천초등학교	2학년
		입선	민지홍	왕방초등학교	2학년
		입선	박민서	포천초등학교	2학년
		입선	박가연	포천초등학교	2학년
		입선	김은미	일동초등학교	2학년
		입선	이륜아	왕방초등학교	2학년
		입선	이상일	포천초등학교	2학년
		입선	최진아	포천초등학교	2학년
		입선	정권희	추산초등학교	2학년
		입선	한지원	태봉초등학교	2학년
		입선	김현영	태봉초등학교	2학년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명	학교(소속)명	학년
상상화	초등부 저학년	입선	김유빈	태봉초등학교	2학년
		입선	김재현	신북초등학교	2학년
		입선	이진표	신북초등학교	2학년
		입선	김어진	영중초등학교	2학년
		입선	장유진	영중초등학교	2학년
		입선	김선홍	태봉초등학교	2학년
		입선	김다영	포천초등학교	2학년
		입선	조유빈	추산초등학교	2학년
		입선	우진희	추산초등학교	2학년
		입선	강승빈	신북초등학교	2학년
		입선	송희성	신봉초등학교	2학년
		입선	김민채	추산초등학교	2학년
		입선	최아영	왕방초등학교	2학년
		입선	이민혁	포천초등학교	2학년
		입선	정서현	추산초등학교	2학년
		입선	이윤주	왕방초등학교	2학년
		입선	강민지	포천초등학교	2학년
		입선	심민석	송우초등학교	2학년
		입선	박범진	태봉초등학교	2학년
		입선	이민영	포천초등학교	2학년
		입선	장주찬	송우초등학교	2학년
		입선	조아라	추산초등학교	2학년
		입선	이종현	영북초등학교	2학년
		입선	김연주	신봉초등학교	2학년
		입선	조나현	왕방초등학교	3학년
		입선	최세현	포천초등학교	3학년
		입선	문서영	송우초등학교	3학년
		입선	박서연	송우초등학교	3학년

| 입상자명단 사생부문 |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명	학교(소속)명	학년
상상화	초등부 저학년	입선	이강은	신북초등학교	3학년
		입선	신다솔	송우초등학교	3학년
		입선	양기택	신봉초등학교	3학년
		입선	문진서	태봉초등학교	3학년
		입선	하은서	태봉초등학교	3학년
		입선	이주은	왕방초등학교	3학년
		입선	오소연	노곡초등학교	3학년
		입선	이태연	태봉초등학교	3학년
		입선	김수연	송우초등학교	3학년
		입선	박정은	일동초등학교	3학년
		입선	황초희	추산초등학교	3학년
		입선	최수빈	왕방초등학교	3학년
		입선	이주휘	송우초등학교	3학년
		입선	한경희	포천초등학교	3학년
		입선	최준용	신북초등학교	3학년
		입선	장원희	일동초등학교	3학년
		입선	백은서	태봉초등학교	3학년
		입선	구수연	신봉초등학교	3학년
		입선	조원준	포천초등학교	3학년
		입선	이소진	포천초등학교	3학년
입선	김예진	포천초등학교	3학년		
포스터	초등부 저학년	특선	김정우	영북초등학교	3학년
		입선	김은진	왕방초등학교	3학년
		입선	박세희	신봉초등학교	3학년
사생화	초등부 고학년	최우수	김경실	추산초등학교	6학년
		우수	주은총	송우초등학교	5학년
		우수	강은빈	송우초등학교	4학년
		우수	정희아	추산초등학교	6학년
		특선	이은서	추산초등학교	4학년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명	학교(소속)명	학년
사생화	초등부 고학년	특선	장성명	신북초등학교	4학년
		특선	이건우	태봉초등학교	4학년
		특선	강승범	태봉초등학교	4학년
		특선	정민성	왕방초등학교	4학년
		특선	박예원	포천초등학교	4학년
		특선	정다희	일동초등학교	6학년
		특선	김민주	추산초등학교	5학년
		특선	홍예지	태봉초등학교	5학년
		특선	최우준	포천초등학교	5학년
		특선	이지오	추산초등학교	5학년
		입선	김현호	태봉초등학교	6학년
		입선	이은지	추산초등학교	6학년
		입선	김동화	청성초등학교	6학년
		입선	임수빈	신북초등학교	6학년
		입선	장다예	일동초등학교	6학년
		입선	유현진	왕방초등학교	6학년
		입선	조유정	정교초등학교	6학년
		입선	변지희	왕방초등학교	6학년
		입선	장혜림	추산초등학교	6학년
		입선	박수빈	포천초등학교	6학년
		입선	양혜인	송우초등학교	6학년
		입선	이지원	태봉초등학교	6학년
		입선	남제이	삼정초등학교	6학년
		입선	한예규	송우초등학교	5학년
		입선	곽수지	태봉초등학교	5학년
		입선	임나현	외북초등학교	5학년
		입선	박규연	추산초등학교	5학년
		입선	조민기	일동초등학교	5학년
입선	서은희	추산초등학교	5학년		

| 입상자명단 사생부문 |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명	학교(소속)명	학년
사생화	초등부 고학년	입선	김니영	송우초등학교	5학년
		입선	한지유	송우초등학교	5학년
		입선	신채연	송우초등학교	5학년
		입선	김정현	포천초등학교	5학년
		입선	한호진	포천초등학교	5학년
		입선	윤현식	태봉초등학교	5학년
		입선	최송이	신북초등학교	5학년
		입선	조세빈	외북초등학교	4학년
		입선	이지은	왕방초등학교	4학년
		입선	이은채	왕방초등학교	4학년
		입선	조나은	왕방초등학교	4학년
		입선	김서현	왕방초등학교	4학년
		입선	이인선	포천초등학교	4학년
		입선	조민지	왕방초등학교	4학년
		입선	최해나	일동초등학교	4학년
		입선	권소현	신북초등학교	4학년
		입선	함석원	추산초등학교	4학년
		입선	전진아	일동초등학교	4학년
		입선	김경린	일동초등학교	4학년
		입선	이주민	왕방초등학교	4학년
		입선	류장호	선단초등학교	4학년
		입선	이진명	왕방초등학교	4학년
		입선	전진범	왕방초등학교	4학년
		입선	이하연	왕방초등학교	4학년
		입선	우정민	송우초등학교	4학년
입선	오희현	신봉초등학교	4학년		
입선	이광연	추산초등학교	4학년		
판화	초등부 고학년	우수	이강연	추산초등학교	6학년
		우수	김민재	추산초등학교	5학년

| 입상자명단 사생부문 |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명	학교(소속)명	학년
판화	초등부 고학년	우수	최선관	포천초등학교	4학년
		특선	배형근	포천초등학교	5학년
		특선	손규민	추산초등학교	4학년
		특선	배대근	포천초등학교	6학년
		입선	김수정	포천초등학교	4학년
		입선	배상준	포천초등학교	4학년
		입선	이두희	가산초등학교	4학년
		입선	이종호	왕방초등학교	6학년
		입선	기준범	영평초등학교	6학년
		입선	신성준	영평초등학교	6학년
		입선	김도훈	정교초등학교	6학년
		입선	이강준	신북초등학교	4학년
		입선	김호현	추산초등학교	5학년
		포스터	초등부 고학년	입선	황수진
입선	장예찬			송우초등학교	6학년
입선	권순정			중리초등학교	6학년
한국화	초등부 고학년	우수	이찬희	가산초등학교	5학년
		특선	김재영	유암초등학교	6학년
		입선	원동인	노곡초등학교	6학년
		입선	안지수	노곡초등학교	5학년
사생화	중등부	최우수	최수연	영중중학교	1학년
		우수	조서경	포천여중학교	3학년
		우수	최석주	송우중학교	2학년
		특선	윤소정	포천여중학교	3학년
		특선	김지은	갈월중학교	3학년
		특선	허재경	송우중학교	1학년
		특선	곽윤재	송우중학교	2학년
		특선	원지연	포천여중학교	1학년
		특선	황혜지	포천여중학교	3학년

| 입상자명단 사생부문 |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명	학교(소속)명	학년
사생화	중등부	특선	이재이	경북중학교	1학년
		입선	조현정	포천여중학교	2학년
		입선	김수진	동남중학교	2학년
		입선	송누리	대경중학교	2학년
		입선	신예지	영중중학교	3학년
		입선	윤종현	송우중학교	2학년
		입선	최석용	송우중학교	1학년
		입선	노혜민	송우중학교	1학년
		입선	김혜인	송우중학교	1학년
		입선	최동원	포천중학교	1학년
		입선	최지인	갈월중학교	2학년
소묘	중등부	최우수	권지연	포천여중학교	3학년
		우수	이현지	송우중학교	1학년
		특선	김채윤	갈월중학교	2학년
		특선	조현섭	내촌중학교	3학년
		입선	박준식	포천중학교	3학년
		입선	윤이나	내촌중학교	3학년
		입선	박현영	포천중학교	1학년
		입선	박세원	갈월중학교	1학년
		입선	박준규	포천중학교	2학년
판화	중등부	최우수	김나나	영중중학교	3학년
		특선	김은아	포천여중학교	2학년
		특선	한소현	송우중학교	1학년
		입선	이사라	영중중학교	2학년
		입선	임현주	송우중학교	1학년
		입선	임채영	포천여중학교	1학년
한국화	중등부	우수	지희정	영중중학교	2학년
		특선	김선욱	포천여중학교	2학년
		입선	이영현	포천여중학교	1학년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명	학교(소속)명	학년
사생화	고등부	대상	이세은	동남고등학교	1학년
		특선	이가령	송우고등학교	1학년
		특선	서하늘	포천고등학교	1학년
		입선	정혜림	포천고등학교	1학년
정물화	고등부	최우수	차정희	포천일고등학교	3학년
		우수	김영희	포천고등학교	3학년
		특선	허슬기	포천고등학교	3학년
		특선	정승희	포천고등학교	3학년
소묘	고등부	우수	신동해	포천고등학교	2학년
		특선	성민예	송우고등학교	2학년
		입선	정경원	송우고등학교	1학년
		입선	이영규	포천고등학교	3학년
		입선	차윤지	포천일고등학교	2학년
		입선	정민정	송우고등학교	2학년
구성	고등부	우수	김다래	포천고등학교	3학년
		특선	김선주	포천고등학교	2학년
		특선	김나연	포천고등학교	3학년
		입선	엄혜임	포천고등학교	1학년
판화	고등부	특선	문희진	관인고등학교	2학년
		입선	김효선	포천고등학교	1학년
		입선	반지혜	포천고등학교	1학년
포스터	고등부	특선	김선혜	포천고등학교	1학년
		입선	남지영	포천고등학교	1학년
한국화	고등부	입선	김수정	송우고등학교	2학년
사생화	일반부	우수	허옥	포천시 소흘읍	
		특선	윤종철	포천시 신읍동	
		특선	민순희	포천시 신북면	
		입선	유재현	포천시 소흘읍	
		입선	조웅진	포천시 소흘읍	

## 서예대회 입상자 명단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명	학교(소속)명	학년
서예	초등부 한글	최우수	김이준	선단초등학교	5학년
		우수	한나연	포천초등학교	5학년
		우수	신윤호	왕방초등학교	5학년
		특선	김은주	영중초등학교	5학년
		특선	한규리	왕방초등학교	6학년
		특선	양기영	신봉초등학교	5학년
		특선	유호권	태봉초등학교	2학년
		입선	이송주	영중초등학교	4학년
		입선	김은수	영중초등학교	5학년
		입선	이지현	왕방초등학교	5학년
		입선	임은영	영중초등학교	2학년
		입선	김지호	신봉초등학교	6학년
		입선	이한별	영중초등학교	5학년
	초등부 한문	우수	박지윤	포천초등학교	5학년
		우수	김우석	영북초등학교	5학년
		특선	김혜서	영북초등학교	6학년
		입선	송민경	영북초등학교	1학년
	중등부 한글	우수	한도연	포천중중학교	2학년
		입선	장한나	포천여중중학교	1학년
	중등부 한문	최우수	홍주연	포천여중중학교	3학년
		우수	이수현	포천여중중학교	2학년
		입선	김성경	동남중중학교	2학년
		입선	김보영	동남중학교	1학년
	고등부 한문	최우수	이병무	포천일고등학교	2학년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명	학교(소속)명	학년
서예	고등부 한문	우수	이병민	포천일고등학교	1학년
		우수	이해인	포천고등학교	2학년
		특선	이영미	동남고등학교	3학년
		입선	나애리	동남고등학교	3학년
	일반부 한글	우수	홍성민	포천시 선단동	
		입선	한현민	포천시 신읍동	
		입선	박광모	포천시 군내면	
	일반부 한문	최우수	구자영	포천시 선단동	
		우수	김용순	포천시 영북면	
		우수	유명렬	포천시 영북면	
		특선	이옥주	포천시 일동면	
		특선	홍순익	포천시 소흘읍	
		특선	김광수	포천시 신읍동	
		특선	이갑형	포천시 관인면	
		특선	이순휘	포천시 가산면	
		특선	함영대	포천시 선단동	
		특선	이양순	포천시 관인면	
		입선	전윤종	포천시 영북면	
		입선	김대용	포천시 영북면	
		입선	임병식	포천시 영북면	
		입선	오석교	포천시 영북면	
		입선	이덕성	포천시 영북면	
		입선	최장식	포천시 소흘읍	
입선	김수덕	포천시 소흘읍			
입선	유만영	포천시 이동면			

## 사진촬영대회 입상자 명단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명	학교(소속)명	학년
사진 촬영	초등부	최우수	이정	송우초등학교	4학년
		우수	정아현	청성초등학교	6학년
		특선	김아림	송우초등학교	4학년
		특선	이혜승	청성초등학교	6학년
		특선	백수진	삼정초등학교	6학년
		특선	이산	신북초등학교	5학년
		입선	최지우	포천초등학교	6학년
		입선	장선호	도평초등학교	6학년
		입선	박동해	도평초등학교	6학년
		입선	손채원	포천초등학교	6학년
		입선	이다솜	가산초등학교	4학년
		입선	구정모	정교초등학교	6학년
		입선	박진원	도평초등학교	6학년
	중등부	최우수	박예진	이동중학교	1학년
		우수	김민영	동남중학교	3학년
		우수	김상현	포천중학교	3학년
		특선	이성주	포천중학교	2학년
		특선	백영민	포천중학교	1학년
		특선	송지현	포천여중학교	3학년
		특선	주정우	포천중학교	3학년
		특선	박진용	포천중학교	3학년
		특선	윤세웅	포천중학교	1학년
		입선	이종효	포천중학교	3학년
입선	신찬영	포천중학교	3학년		
입선	김지승	동남중학교	3학년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명	학교(소속)명	학년
사진 촬영	중등부	입선	최진수	포천중학교	3학년
		입선	이미리	대경중학교	3학년
		입선	강병찬	포천중학교	3학년
		입선	김영휘	포천중학교	1학년
		입선	배세정	동남중학교	3학년
		입선	박경애	이동중학교	1학년
		입선	김남훈	포천중학교	1학년
		입선	최규용	포천중학교	3학년
		입선	이현근	포천중학교	1학년
		입선	윤성욱	포천중학교	3학년
	고등부	최우수	한선희	동남고등학교	2학년
		우수	박윤진	동남고등학교	1학년
		입선	한은혜	송우고등학교	3학년
		입선	이하늘	송우고등학교	3학년
		입선	김현수	동남고등학교	2학년
		입선	박다애	송우고등학교	2학년
	일반부	최우수	김연경	포천시 관인면	
		우수	배현수	포천시 신읍동	
		특선	차영숙	포천시 이동면	
		특선	석창진	포천시 가산면	
입선		김영화	포천시 이동면		

## 좋은책읽기 독후감 입상자 명단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명	학교(소속)명	학년
상반기 좋은책 읽기 독후감	초등부	장원	이진	창수초등학교	4학년
		차상	이주희	지현초등학교	5학년
		차상	이영찬	선단초등학교	3학년
		차하	이지연	포천초등학교	6학년
		차하	강예진	보장초등학교	4학년
		장려	한혜주	청성초등학교	4학년
		장려	박준성	영북초등학교	2학년
		장려	김세희	영북초등학교	6학년
		장려	홍채원	축석초등학교	5학년
		장려	윤채원	태봉초등학교	5학년
		입선	권민지	축석초등학교	6학년
		입선	박세빈	지현초등학교	4학년
		입선	김하늘	영북초등학교	6학년
		입선	정은지	영북초등학교	5학년
		입선	김지우	영북초등학교	6학년
		입선	김유린	청성초등학교	5학년
		입선	이다정	관인초등학교	6학년
		입선	이슬	축석초등학교	4학년
		입선	김수현	중리초등학교	3학년
		입선	이유니	중리초등학교	6학년
		입선	김에스더	정교초등학교	6학년
		입선	최경원	영중초등학교	5학년
		입선	이진아	영중초등학교	5학년
		입선	김영언	보장초등학교	2학년
입선	김종표	보장초등학교	1학년		
입선	김예진	포천초등학교	3학년		
입선	최봉준	추산초등학교	2학년		

| 입상자명단 좋은책읽기 독후감 부문 |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명	학교(소속)명	학년
상반기 좋은책 읽기 독후감	중등부	입선	안유정	창수초등학교	5학년
		입선	강예림	창수초등학교	4학년
		입선	김하람	왕방초등학교	2학년
		입선	임남규	포천초등학교	1학년
		입선	신준환	영북초등학교	2학년
		입선	원민호	지현초등학교	4학년
		입선	전나현	태봉초등학교	2학년
		입선	유준선	왕방초등학교	4학년
	중등부	장원	이영아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차상	조현정	포천여자중학교	2학년
		차하	오윤아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차하	최미송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장려	원진경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장려	지은선	내촌중학교	1학년
		장려	정동아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장려	이효주	포천여자중학교	2학년
		장려	방상미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입선	이빈희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입선	권지연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입선	강주은	일동중학교	2학년
		입선	이유정	일동중학교	1학년
		입선	신창교	일동중학교	1학년
		입선	박한나	내촌중학교	1학년
		입선	박지영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입선	김재희	동남중학교	3학년
		고등부	장원	이하은	동남고등학교
	차상		이제윤	동남고등학교	2학년
	차하		송민호	동남고등학교	2학년
	차하		이은샘	동남고등학교	2학년
	일반부	차상	박경자	포천시 일동면	

# 반 월

제 23 호(비매품)

2009년 7월 일 인쇄  
2009년 7월 4일 발행

발행인 : 포천문화원장 이 만 구  
편집인 : 포천문화원 사무국  
인쇄인 : 합동 인쇄 (031-534-4000)

포천문화원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148  
전화 : 031) 532-5055 전송 : 031) 536-1020  
E-mail : kgpc1986@yahoo.co.kr  
홈페이지 : www.pcmh.or.kr

이 책은 포천시의 지원금으로 발행되었습니다.

